

원양산업 종합정보 페루편

목 차

제1장 페루의 일반현황	1
제1절 개요	3
제2절 페루의 경제 동향	6
제3절 우리나라와 교역 현황	7
제4절 수출입 현황	8
제5절 수입규제제도	11
 제2장 페루의 수산업 현황	13
제1절 개요	15
제2절 해면어업	16
제3절 내수면 어업	25
제4절 양식업	26
제5절 유통, 가공, 수출	28
제6절 수산업 부문의 사회 경제학적 기여	33
제7절 거버넌스	33
제8절 법적 체계	37
 제3장 페루의 투자제도	39
제1절 개요	41
제2절 정부의 투자 정책 및 외국인 우대 정책	41
제3절 진출형태별 투자절차	44
제4절 투자 장려 분야	50

제4장 페루의 기업 진출현황	53
제1절 한국 투자동향	55
제2절 외국 투자동향	62
제5장 페루의 국내기업 진출방안	65
제1절 페루 전 산업부문 진출전략	67
제2절 한·페루 수산 부문 협력사업 추진전략	70
제6장 페루의 수산업 정책현황	75
제1절 개요	77
제2절 주요 수산 관련 기관	78
제3절 주요 관련 정책 및 제도	79
제7장 페루의 수산관련 법률	87
제1절 어업 관련 법률	89
제2절 수산가공업 관련 법률	93
부 록	97

Chapter

1

페루의 일반현황

제1장 페루의 일반현황

제1절 개요

- 페루 공화국(Republic of Peru)은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형태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3권이 분리되어 있으며, 2011년 7월에 오안타 모이세스 우말라 타소(Ollanta Moisés Humala Tasso) 대통령이 취임하였고 임기는 5년으로 재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함.
- 페루의 인구는 3,142만 명이며, 민족은 인디오(45%), 메스티조(37%), 백인(15%), 흑인, 일본 및 중국계(3%)로 구성되어 있음.
- 수도는 리마(인구 약 969만 명, 면적 2,672.3km²)이며,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와 케추아어임.
- 종교는 대부분 가톨릭교(90.5%)이며 이외에는 기독교(6.5%), 기타(3.0%) 종교를 가지고 있음.
- 기후는 리마를 포함한 바다 인근 지역(costa)은 온난한 사막성 기후이고, 안데스 산맥 산악 지대는 무덥고 비가 오는 열대성 기후임.
- 국토의 면적은 128.5만km²이며 이 중 53.2%가 산림지대, 21.2%가 목초지, 2.7%가 경작지이고 주요도시로는 Lima(969만 명), Piura(183만 명), Cusco(131만 명), Arequipa(127만 명)가 있음.
- 건국(독립일)은 1821년 7월 28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으나, 완전한 독립은 1823년이라고 함.

〈표 1-1〉 페루 약황

일반사항	
국 명	페루공화국(República del Peru)
수 도	리마(Lima, 975만명)
인 구	3,142만명('14)
국토면적	128만㎢ (한반도의 약 6배)
공식 언어	스페인어, 케추아어
정치현황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임기 5년, 연임불가)
의회구성	단원제 - 130석, 임기 5년
주요 지도자	- 대통령 : Ollanta <u>Humala</u> Tasso (오안타 우말라 따소, 2011.7.28 취임) - 외교장관 : Ana Maria <u>Sanchez</u> (아나 마리아 산체스, 2015.4.2 임명)
경제현황('14)	
GDP	2,082억불
1인당 GDP	6,625불
경제성장률	2.4%
교 역	수출 383억불, 수입 408억불
외환보유고	626억불
외 채	635억불
우리나라와의 관계	
수교 일자	1963.4.1
공관 창설	1971.8.1
현 대사	- 주페 : 장근호 (2014.4 부임, 제14대) - 주한 : Jaime Antonio <u>Pomareda</u> (하이메 안포니오 뽀마레다, 2013.2 부임, 제9대)
교역현황('14년)	- 수출 : 13.9억불(자동차, 합성수지, 휴대폰) - 수입 : 14.3억불(동, 은, 아연, 수산물·공품)
투자 및 진출기업 현황('14년)	- 총누계투자 : 42억불(신고 기준) - 지상사 : LG전자, 삼성전자, 포스코건설 등 - 자원개발업체 : SK에너지, 석유공사 등
우리 교민 현황	약 1,300명 - 의류·원단수입 판매, 사진관, 중고차 판매, 수산업 등 종사

자료 :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관



자료 :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관

[그림 1-1] 페루 지도

제2절 페루의 경제 동향

- 세계 경제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1.0%의 성장률을 기록한 2009년을 제외하고 2005년 이후 5% 이상을 유지하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은 에너지 및 광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증가였으나, 2014년 국제 광물시세 하락과 엘니뇨현상으로 인해 광업과 수산업이 불황을 맞이한 반면 건축업, 상업, 서비스업은 호황기를 누리고 있음.

〈표 1-2〉 GDP 성장률

연도	단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명목 GDP	백만솔	370,398	368,627	419,694	469,855	508,319	546,942	576,118
실질 GDP	백만솔	191,505	193,155	210,143	407,052	431,273	456,172	466,895
GDP성장률	%	9.1	1.0	8.5	6.5	6.0	5.8	2.8
1인당 GDP	US\$	4,427	4,362	5,196	5,883	6,550	6,674	6,235

자료 : 페루 중앙은행(BCP), 국제통화기금(IMF)

- 페루의 상업은행은 2015년 상반기 어업활동 시즌이 2/4분기로 미뤄지고, 시도지사 교체를 앞두고 있어 공공 투자의 실행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5년 1/4분기 GDP 성장률을 4.8%에서 3%로 하향 조정하였음.
- 페루의 2014년도 경기침체로 인해 올해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에서는 기존 2015년 경제 성장률 5.1%를 4.4%로 하향하여 1월 말 발표하였음.

제3절 우리나라와 교역 현황

- 페루는 안정적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개방형 국가로서, 자원이 풍부하고 지정학적으로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임. 최근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지속성장을 유지하여 가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용을 지향, 자원부국인 페루가 우리의 전략적 자원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 했음.
- 또한, 총인구는 약 31백만 명, 총면적은 약 128만km²로 한반도의 약 6배임. 자동차, TV, 의약품 등은 9%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FTA 체결이 對페루 수출 경쟁력에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또 최근 건설 수요 증가, 청정개발 메커니즘 확대, 성형수술 시장 확대 등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 관련 품목의 수출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3월 21일 정식 서명되고, 6월 29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된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은 8월 1일에 발효되었음. 한-페루 FTA는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와 함께 우리나라의 남미지역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 확대, 양국간 자원협력 및 투자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협상중인 한-콜롬비아 FTA 타결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한국은 자동차 수출 등에서 우리의 경쟁상대인 일본에 앞서 FTA를 타결하여 페루시장을 선점하게 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하였음. 페루는 2010년 기준, GDP는 1,528억 달러, 세계 50위, 은(매장량 1위), 아연(매장량 3위), 금(매장량 5위), 동(매장량 3위) 등 매장량이 세계적 수준으로 자원의 안정적 확보도 도모할 수 있었음.
-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양국은 쌀 관련 일체의 제품에 대해 양허 제외를 규정함. 페루는 한국산 수입품목의 0.1%를 제외한 품목에 최대 10년 내로 관세를 철폐함. 페루는 중국과 일본상품 양허에 비해 한국에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의 품목을 양허하였는데, 중-페루 FTA에서 페루 측 양허 제외 품목 비율은 약 8.1%, 한-일 FTA의 양허 제외 품목 비율은 약 5.1%였음.
- 한-페루 FTA는 한-콜롬비아 FTA 타결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브라질이 반대하고 있는 MERCOSUR¹⁾와의 FTA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산업통상자원부)

1) MERCOSUR : 남미 공동 시장 - Merco(Market) + Sur(south)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제4절 수출입 현황

- 작년 한 해 동안 페루 무역수지는 14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함. 작년 대비 수출입 규모가 감소했으며, 수입 감소폭(3.3%)보다 수출 감소폭(7.4%)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증가함.

〈표 1-3〉 페루 분기별 무역수지

(단위: US\$ 백만)

구분	2012	2013					2014				
	연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도
1. 수출	47,411	10,485	10,056	11,155	10,778	42,474	9,770	9,484	10,333	9,739	39,326
전통상품	35,869	7,865	7,394	8,364	7,629	31,251	6,850	6,719	7,395	6,575	27,538
非전통상품	11,197	2,539	2,598	2,739	3,110	10,958	2,861	2,719	2,900	3,138	11,618
기타	345	82	64	53	39	238	60	46	38	26	170
2. 수입	41,135	10,230	10,529	11,128	10,331	42,217	9,959	10,391	10,546	9,911	40,807
소비재	8,252	1,996	2,157	2,338	2,345	8,837	2,077	2,186	2,248	2,380	8,891
원부자재	19,273	4,847	4,761	5,213	4,691	19,512	4,677	4,692	5,034	4,416	18,819
자본재	13,347	3,338	3,563	3,514	3,239	13,654	3,173	3,450	3,212	3,076	12,911
기타	262	48	48	62	55	213	31	63	53	39	185
3. 무역수지	6,276	256	-476	27	447	257	-188	-908	-213	-172	-1,480
수출가격지수	-2.2	0.3	-5.4	-6.8	-10.6	-5.6	-11.9	-6	-2.3	-7.8	-7.1
수입가격지수	-0.2	-0.1	-0.6	-0.8	-1.6	-0.8	-1.7	0.5	-0.2	-4.9	-1.6
교역조건	-2.1	0.5	-4.8	-6	-9.1	-4.9	-10.4	-6.5	-2.1	-3.1	-5.7
수출물량지수	2.2	-13	-1.7	-2.4	-2.1	-5.1	5.8	0.3	-5.2	-2	-0.3
수입물량지수	10.9	7	5.9	1.8	-0.3	3.5	-0.9	-1.8	-5	0.8	-1.8
수출금액지수	-0.0	-12.8	-7	-9	-12.5	-10.4	-6.8	-5.7	-7.4	-9.6	-7.4
수입금액지수	10.7	6.8	5.2	1	-1.9	2.6	-2.6	-1.3	-5.2	-4.1	-3.3

주: 기준연도 2007년 = 100

자료 : 페루중앙은행

- 페루 주요 수출국은 전체적으로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등의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음. 2014년 페루의 주요 수출대상국 1, 2위는 중국과 미국으로, 각국의 수출점유율은 약 18%, 16%임. 2013년 수출대상국 1위는 미국이었으나, 2014년도에 2.24% 하락하면서 2위로 밀려남.
- 2014년 페루의 대한민국 수출은 전년대비 약 28% 하락해 14억 3,300만 달러를 기록함.

〈표 1-4〉 국별 수출실적

(단위: US\$ 백만)

순위	수출대상국	수출액			점유율(%)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1	중국	7,841	7,354	7,024	16.96	17.27	18.29
2	미국	6,258	7,774	6,150	13.54	18.26	16.02
3	스위스	5,074	3,025	2,642	10.98	7.10	6.88
4	캐나다	3,448	2,742	2,524	7.46	6.44	6.57
5	브라질	1,404	1,757	1,594	3.04	4.13	4.15
6	일본	2,571	2,226	1,583	5.56	5.23	4.12
7	칠레	2,003	1,688	1,537	4.33	3.96	4.00
8	스페인	1,860	1,593	1,363	4.02	3.74	3.55
9	독일	1,866	1,169	1,233	4.04	2.75	3.21
10	콜롬비아	921	855	1,226	1.99	2.01	3.19
10개국 합계		33,247	30,183	26,876	71.92	70.89	70.00
총수출대상국 합계		47,411	42,474	39,326	100	100	100

자료 : ADEX

- 작년 동 기간 대비 올해 총수출 규모는 1-6월 동안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농수산물, 농·목축제품, 금속광물 부문은 상향세를 보임.

〈표 1-6〉 제품별 수출실적 비교

(단위: US\$ 백만, %)

구분	2013년(2분기)	2014년(2분기)	증감율
1. 전통상품	31,251	27,538	-11.88
수산물	1,707	1,726	1.11
농산물	785	843	7.39
광물	23,554	20,410	-13.35
석유 천연가스	5,205	4,559	-12.41
2. 비(非)전통상품	10,985	11,618	5.76
농목축제품	3,434	4,205	22.45
수산물	1,028	1,151	11.96
직물	1,926	1,795	-6.80
제지용품	426	415	-2.58
화학제품	,503	1,509	0.40
비금속광물	720	663	-7.92
철강금속 및 보석	1,258	1,145	-8.98
금속광물	534	572	7.12
기타	156	163	4.49
3. 기타	238	170	-28.57
4. 총수출	42,474	39,328	-7.41

주: 항목3 기타는 외국 선박에 대한 식량 및 연료 판매와 자본재 수리 비용을 포함함.

자료 : 페루중앙은행

- 페루의 주요수입대상국은 전체적으로 아시아 및 미대륙 국가로 구성되어 있음. 대표적인 수입 국가는 미국과 중국으로 양국의 수입점유율은 전체의 약 41%에 달함.
- 한국은 2014년 기준 페루의 주요수입대상국 7위로 2013년까지 수입액이 증가하다가 광물 자원 또는 금속류가 감소하면서 하락함. 2014년 페루 내 한국의 중고차, 핸드폰 수입량은 증가했지만 다른 부분의 수입 감소가 커서 -3.4%의 성장률을 기록함

〈표 1-5〉 국별 수입현황

(단위: US\$ 백만)

순위	수입대상국	수출액			점유율(%)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1	중국	7,815	8,414	8,922	18.53	19.42	21.14
2	미국	7,923	8,792	8,791	18.79	20.29	20.83
3	브라질	2,579	2,325	1,994	6.12	5.37	4.73
4	멕시코	1,675	1,817	1,924	3.97	4.19	4.56
5	에콰도르	2,012	1,930	1,774	4.77	4.45	4.20
6	독일	1,366	1,388	1,478	3.24	3.20	3.50
7	대한민국	1,648	1,589	1,382	3.91	3.67	3.27
8	칠레	1,244	1,327	1,279	2.95	3.06	3.03
9	아르헨티나	1,951	1,565	1,253	4.63	3.61	2.97
10	콜롬비아	1,563	1,467	1,244	3.71	3.39	2.95
10개국 합계		29,777	30,614	30,042	70.62	70.65	71.18
총수출대상국 합계		41,135	42,217	40,807	100	100	100

자료 : ADEX.

- 또한 한국은 페루로부터 전통적으로 아연, 구리, 수산물 등을 수입하고 자동차, 가전 제품, 기계류, 화학제품 등의 일반 제조업 상품을 수출함. 대(對)페루 수입량은 제 원자재시장의 가격 추이에 따라 유동적임.

제5절 수입규제제도

- 페루는 후지모리 전(前)정부가 집권한 1990년 7월 이후 수입 금지 및 규제조치 전면 해제, 일부 품목을 제외한 수입허가서 발급절차 폐지 등 시장 개방과 수입 자유화 정책 등을 펼침. 이러한 정책기조는 2006년 제2차 알란 가르시아 전(前)정부 들어서도 유지함.
- 알란 가르시아 정부는 제1차 집권 때엔 1980년대 후반 많은 수입 규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2006년 재집권한 후 2011년 7월 28일 퇴임할 때까지 개방 및 수입자유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수입관세율을 세 가지로 단순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여 2007년 10월 15일 9%, 17%, 20%로 대규모 개편하였고 2010년 말에 다시 여러 품목에 걸쳐 관세를 인하함. 이 기조는 2011년 8월 당선된 우말라 현 정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
- 페루는 안데스 회원국²⁾ 생산 제품 수입에 한해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수입규제 차원이 아닌 역내 생산품 수입에 대하여 특혜관세(무관세)혜택을 주기 위함임.
- 한국산 제품에 대한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으며 오히려 한국 제품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현지 내 한국상품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좋은 편이며 특히 LCD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보안장비 시장에서 한국산이 인기를 끌고 있음.

2)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등 5개국

Chapter

2

페루의 수산업 현황

제2장 페루의 수산업 현황

제1절 개요

- 페루는 정치가 안정되어 있고 정권이 교체되어도 시장경제가 유지되는 점이 중남미에서는 매우 큰 강점이며, 지리적으로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 또한 페루의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이 아니며, 임기 5년 후 장관 교체 시 모든 부처에 변동이 있음.(2016년 7월 페루 대통령 선거 예정임)
- 현지인 노동자 평균 인건비는 하루 40~50솔(약 16,415원), 한 달에 1,100~1,200솔(약 419,488원)임. 현재 최저임금은 750솔이며 상여금, 휴가, 의료보험이 추가로 제공됨.
- 철저한 서류처리 등 유럽식 선진국 행정으로 서류진행이 느리며, 공장폐수 처리 등에 정부규제가 심하나 구체적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엘니뇨 등의 환경적 요인과 열악한 유통시설로 인해 페루의 수산경쟁력이 우려되고 있음.
- 대왕오징어는 연간 40만 톤 어획, 톤당 700~1,200솔에 거래되며 중국 원양어선 공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상태임.
- 한국선박들은 매년 6월 15일 포클랜드 어기종료 후 보름 간 페루로 이동하여 선박 수리 및 공해 조업하고, 크리스마스쯤에 다시 포클랜드로 이동함. 대왕오징어는 1월 중순에서 2월 사이에 어기가 시작됨. 채낚기선에는 한국인 3~7명, 외국인 약 30명이 승선하여 외국인은 한 명당 5,000불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음.
- 현재는 대왕 오징어 가격이 하락하여 EEZ조업도 경제성이 없는 실정임. 대왕오징어는 1년산이며 맛이 없어 조미채로 가공되기 때문에 단가가 상승하게 되고, 원어 가격이 저렴하여 최근에는 튀김용으로 이용되기도 함.
- 진출업체들은 대왕오징어 관련하여 진미채, 오징어링, 젓갈을 생산하고 있으며, 패티와 액기스 등을 추가적으로 생산 준비 중임. 한국 업체 진출 시 통조림(캔)의 자동·현대화 생산시설 관련 업종이 유망할 것으로 보임.
- 업체들은 대왕오징어를 가공하여 주로 한국과 그 외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음. 태국은 불교신자 95%로 오징어 목살에 대한 수요가 높음. 2005년에는 파이타에 3~4개 업체가 존재하였으며, 현재까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냉동 공장은 각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 오징어 수리미는 첨가제를 넣어 생산되나, 이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음. 공장 소유주들에게는 어분생산 허가가 용이하나 페루의 원어 물량과 판로가 많지 않으며, 안초

비 가공공장 시설비는 대왕오징어보다 3~4배가 높아 어분은 생산하지 않고 있음. 대왕오징어 외에 페루의 고등어는 펍펍하여 한국인 입맛에 맞지 않고, 페루에는 병어도 어획되나 크기가 작음.

- 파이타에서 안초비가 과거만큼 어획되지 않고 있으나, 리마에는 활발히 어획 중임.
- 또한 페루는 각 수산자원의 이용 상태에 따라 매년 자유경쟁을 통해 국제입찰을 실시하고 있음. 입찰공고는 페루의 생산부 홈페이지(www.produce.gob.pe)에서 확인할 수 있음.

제2절 해면어업

- 수산업은 광업 다음으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페루 경제의 주요 부문임. 해면 수산업은 특히 중요하며, 그 다음은 내수면 어업과 양식업임. 2013년 해양 및 내수면 생물 양륙량은 6,016,100톤이었으며, 이는 2012년보다 23.8% 증가한 수치임.
- 전통적으로 페루 어업활동은 주로 안초비(*Engraulis ringens*)와 콩치(*Trachurus murphyi*) 및 고등어(*Scomber japonicus*) 등 해양 원양자원에 기반을 두었음. 최근에는 대왕오징어(*Dosidicus gigas*) 및 만새기(*Coryphaena hippurus*) 등 기타 자원의 비중도 늘고 있음.
-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저서어류나 메를루사(*Merluccius gayi*) 등의 연안 트롤어업임. 근 10년 간 메를루사 자원의 상태가 취약하여 수산업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고, 메를루사와 관련 어종의 중단기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획을 지원하고 있음. 수산업 생명 주기 연구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기초하여 수산업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위원회가 설립되었음. 동 위원회는 상업적 어업 부문의 대표들이 소속되어 있음.
- 어창 용적 32.6m³까지의 소규모 선박으로 이루어진 영세어업이나 소규모어업도 중요함. 이들은 대부분 약 220개 어종의 해안의 자원을 어획하며, 이 중 80%는 물고기, 17%는 무척추동물, 2%는 조류, 나머지 1%는 기타 자원임. 페루 해안을 따라 어촌이 200개 존재하며, 이들의 어획물은 주로 식용(DHC)를 위한 것임.
- 최근 소규모 선단은 대왕오징어(pota)로 다각화되었음.
- 특히 다랑어나 원양 대구는 특정 선박이 필요하긴 하나, 기타 해면어업은 전통적 어획이나 가공 기술을 다각화하여 발전할 수 있음. 원양 긴뿔천길새우(*langostino*)나 왕게, 장수어미게 등의 기타 잠재 자원도 미래 수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음.
- 1960년대 당시 유일한 타깃 어종이었던 안초비 어획은 3.5백만 톤에서 12백만 톤으로 4배 증가하였음. 그러나 동 어업은 과도한 어획과 가공 능력, 1972/73년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1970년대 초 붕괴되었음.

- 1990년대에 안초비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며, 1960년대 어획량에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그러나 1997/98년 더욱 강한 엘니뇨현상으로 안초비 어획이 약화되었고, 1998년 어획량은 1.2백만 톤으로 감소하였음.
- 동 시기에는 1972/73년과 달리 적절한 어업 행정조치를 취하여 어업이 신속히 회복될 수 있었음. 그 결과, 1999년 양륙량은 6.6백만 톤이었음. 2000년 안초비 어획량은 9.6백만 톤으로 증가하였고, 이후에는 8.0백만 톤 이상 어획되다가 2006년 이후 감소 추세로 2013년 양륙량은 4.9백만 톤임.
- “선박당 최대 어획 수준”을 설정한 법령 1084가 제정되었고, 이는 어획 노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산 자원의 개인권을 배정한 규제 도구임. 선박당 어획을 제한하면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어업활동 프로그램 향상, 어기 연장, 환경 영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도임.
- 비교적 해안에서 가까운 저층 트롤 형식의 저서 어업은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음. 이때부터 산업화 된 트롤선으로 인해 양륙량이 크게 증가하였음. 1978년 어획량은 300,000톤에 달했고, 선망어선은 150,000톤을 어획하였음. 이로 인해 메를루사 자원은 매년 약화되었고, 1988년에는 79,000톤만이 양륙되었음. 1996년에 235,000톤으로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메를루사 양륙량은 감소하여 약 30,000톤~50,000톤이며 2013년 생산량은 2012년 대비 64% 증가한 54,522톤임.
- 영세어업은 선박이 없거나 어창 용적 32.6m³, 길이 15m 이하인 선박을 가진 영세 자연인 및 법인이 행하는 어업으로, 대부분 수공으로 작업 됨. 소규모 어업도 어창 용적 32.6m³ 이하의 선박으로 행하지만, 현대적 어구나 어법을 사용함. 페루의 영세어업은 두 가지 사회적 역할을 함. 첫 번째는 주요 고용원으로 빈곤 완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욱 빈곤한 인구 집단에 주요 단백질 공급을 제공하는 것임.
- 영세 어업의 어장은 현재 해안 5마일 내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가끔 10해리를 넘어 가장 큰 해양 영역에서 조업하는 국가 선단이 되었음. 영세 어업 어구 및 어법에는 유망, hook-and-line, compressor diving, 선망어업, 표면 연승어업이 있음. 선박 약 9%가 2개 이상의 어구를 가지고 있음. 선박이 없는 육지 어민들은 영세 트롤망을 이용해 조류나 연체동물을 어획함. 기타 어민들은 연안의 강에서 민물새우(Cryphiops caementarius)를 잡음.
- 대부분의 영세 어업 양륙물은 신선 상태로 식용을 위해 현지 및 국내 시장에서 판매 됨.

1. 어획물

- 2013년 수산물의 총 양륙량은 23.8% 증가한 6백만 톤에 달했으며, 대부분 안초비 어분 및 어유 산업(28.9%)이 기여하였음. 이는 양륙량의 94.7%를 차지하는 북부 중앙 지역의 해양환경이 표준화되었기 때문임.
- 또한 통조림 산업(14.9%), 신선 소비(27.0%) 성장으로 인해 식용을 위한 양륙량이 7.3% 증가하였음
- 양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종은 안초비(*Engraulis ringens*), 공치(*Trachurus murphyi*), 고등어(*Scomber japonicus*), 만새기(*Coryphaena hippurus*) 등임.
- 저서 어류는 주로 연안 트롤어업으로 어획됨. 주요 어종은 Peruvian hake (*Merluccius gayi*)이고, 기타 어종으로는 lumptail searobin (*Prionotus stephanophrys*), humpback smooth-hound(*Mustelus whitneyi*), weakfish (*Cynoscion analis*), rock seabass (*Paralabrax humeralis*)가 있음.
- 주로 영세 및 소규모 어업에서 어획되는 연안 어종은 지난 10년간 매년 총 27,000~77,500톤이 어획되었음. 주요 어종은 silverside (*Odontesthes regia*), flathead grey mullet (*Mugil cephalus*), lorna drum (*Sciaena deliciosa*)임.
- 기타 자원으로는 매년 약 15,000톤의 crustaceans (prawns), 약 25,000톤의 molluscs (*Argopecten purpuratus*), 약 15,000톤의 squid (*Loligo gahi*)가 있음. 대왕오징어 (*Dosidicus gigas*) 양륙량은 연간 약 400,000톤임.
- 비식용(IHC)을 위한 양륙량은 2013년 4.8백만 톤에 달했음. 동 시장 총 어획량의 55%는 연안 중심부의 가공 공장으로 보냄. 어획물 분배 관련하여, 85.9%는 중북부에, 14.1%는 남부에 양륙되고 있음.

〈표 2-1〉 2013년 페루 수산물 양륙량

(단위: 천 톤)

용도	2012	2013	2013/12 비율(%)
총	4,861.3	6,016.1	23.8
식용	1,165.0	1,250.4	7.3
통조림	125.4	144.0	14.9
냉동	672.9	633.6	-5.8
염지	37.0	54.0	45.9
신선	329.7	418.7	27.0
비식용	3,696.3	4,765.7	28.9
안초비	3,693.9	4,754.1	28.7
기타 어종	2.4	11.6	382.3

자료: 페루 생산부



〈표 2-2〉 2013년 페루 해면어업 수산물 양륙량

(단위: 천 톤)

어종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I+II+III)	6,874,412	4,221,094	8,211,716	4,801,034	5,948,567
I. 어류 (A+B+C+D)	6,377,269	3,735,311	7,650,889	4,180,788	5,321,832
A.-원양	6,213,579	3,598,421	7,502,502	4,059,525	5,143,167
Anchoveta	5,935,165	3,450,609	7,125,244	3,776,880	4,859,056
Atún	2,520	12,512	7,739	2,352	8,291
Bonito	30,648	13,144	14,654	23,893	77,221
Caballa	110,605	20,467	46,946	26,781	58,297
Jurel	74,694	17,559	257,240	184,951	82,111
Perico	57,153	53,359	43,688	42,347	55,830
Samasa	6	26,752	3,520	0	-
Sardina	26	17	63	161	-
Tiburón	2,762	4,002	3,408	2,160	2,362
B.-저서	59,280	55,334	51,515	46,147	65,295
Ayanque	2,522	4,138	4,323	2,838	3,551
Cabrilla	2,481	1,020	1,047	1,550	765
Coco	1,091	2,159	1,207	1,476	1,382
Lenguado	234	288	168	624	143
Merluza	47,162	41,108	37,645	33,147	54,522
Raya	1,509	1,440	1,235	2,021	813
Tollo	4,281	5,181	5,890	4,491	4,120
C.-연안	56,568	38,188	41,142	43,619	36,751
Cabinza	4,699	4,142	3,657	1,500	2,258
Cojinova	453	314	638	1,105	458
Corvina	457	377	774	514	466
Chita	154	87	103	262	96
Liza	18,595	10,779	13,335	18,638	13,781
Lorna	9,204	9,945	9,049	9,023	7,742
Machete	10,008	4,878	1,779	4,058	3,375
Pejerrey	12,618	7,406	11,556	8,228	8,318
Pintadilla	380	260	251	291	256
D.-기타	47,842	43,368	55,730	31,497	76,620
II. 조개류 (A +B)	489,597	480,098	553,380	614,365	603,119
A.-갑각류	19,570	22,183	31,041	32,462	29,570
Cangrejo	1894	1578	1797	2593	2343
Langosta	1	2	2	-	0
Langostino	17519	20337	29221	29869	27212
Otros crustáceos	156	266	21	-	14
B.-연체류	470,027	457,915	522,339	581,903	573,550
Abalón	274	2,237	1,195	1,312	739
Caracol	3,308	2,389	2,894	2,821	2,127
Choro	11,072	9,022	9,171	8,451	6,954
Conchas de Abanico	26,478	62,827	93,050	39,678	91,474
Macha	31	-	-	-	-
Almeja	326	765	491	760	1,227
Calamar	13,178	4,798	2,251	20,483	16,611
Pota ¹⁾	411,805	369,822	404,730	497,462	451,061
Pulpo	1,030	2,546	2,511	2,626	1,317
Otros moluscos	2,525	3,509	6,046	8,310	2,039
III. 기타 (A+B+C+D)	7,546	5,685	7,447	5,881	23,616
A.-극피동물	1,866	1,314	1,552	2,295	1,427
B.-거북 종류	-	-	22	1	0
C.-고래	3	3	72	0	0
D.-조류	5,677	4,368	5,801	3,585	22,189

자료: DIREPRO

2. 어선

- 페루 어선단은 어창 용적 32.4m³(약 30톤) 이상이면 대규모로, 이하면 소규모 및 영세어업으로 분류됨.
- 허가 받은 대규모 선단은 산업적 원양 선망어선, 연안 트롤선 등으로 구성됨. 동 선단의 총 어창 용적은 179,800m³임.
- 선망어선 선단은 586척이며 어창 용적은 45~868m³이고, 안초비 및 정어리, 꽂치, 고등어 조업에 허가되었음. 동 선단의 총 어창 용적은 약 142,500m³임. "Vikings"로 알려졌으며 어창 용적 43.6~110m³인 502척의 목선 선망어선은 안초비 및 정어리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음. 이들은 총 어창 용적이 약 31,500m³임.
- 트롤 선단에는 52척의 선박이 있으며, 총 어창 용적은 6,400m³임. 이 중 45척이 메를루사 조업에 라이선스가 있음. 23척은 다목적 선박이며(surface longline, bottom longline, purse seine, trawl, trap 포함 다양한 어구와 함께), 만세기 및 상어 등의 기타 어종 어획에 라이선스가 있음. 이 선단 부문은 총 어창 용적이 약 3,600m³임.
- 소규모 및 영세 선단은 약 9,667척의 선박이 driftnet (33%), hook-and-line (19.6%), compressor diving (13.7%), purse seine (12.3%), surface longline (9.8%), trawl net (1.5%) 등의 어구를 사용함. 선박의 약 9%는 두 개 이상의 어구를 가지고 있음.
- 페루의 어업법은 외국선이 어업 및 운항 제한에 따라 입어료를 지불하고, 수산업 관리에 대한 규정의 조항에 따라 영해에서 조업하도록 허가하고 있음.

3. 주요 자원

- 페루 연안 수역은 남부 태평양 동부지역의 고기압성 지역으로, 표층 해류의 속도가 느린 것이 특징임. 동 사향과 남동 무역풍 관련 계절적 변동으로 인해 수류와 수괴가 형성되었고, 이는 여름에 약하고 겨울에 강함. 또한, 주로 '엘니뇨'라 불리는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기간 등 비정상적인 불규칙 변동이 있는데, 이는 남태평양 해양 및 대기 시스템에 막대한 변화를 줌.
- 이러한 상황은 페루 연안의 다양하고 풍부한 수산 생물에 용승 생태계를 유발하였음.
- 페루는 광활한 해양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어종 중 일부만 이용하고 있음. 해양 어류군은 736종이 있으며, 북부에는 더욱 다양하고 이에 비례하여 남부에는 그보다

- 적음. 이 중 80종(11%)만이 산업적 어업 및 인간소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연체동물 약 40종이 잡히고 있으며, 이는 알려진 연체동물 870종의 5%에 해당함. 갑각류 동물은 23종 잡히고, 이는 알려진 갑각류 동물 320종 중 7%에 해당함.
 - 해면 어업은 주로 해수대 및 얕은 해수층의 어종에 집중되어 있음. 상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류군은 Engraulidae ("안초비", *Engraulis ringens*), Carangidae ("꽁치", *Trachurus murphyi*), Scrombidae ("고등어", *Scomber japonicus*), Merlucciidae ("메를루사", *Merluccius gayi*), Sciaenidae ("lorna drum", *Sciaena* spp.) and Serranidae ("rock seabass", *Paralabrax* spp.)임.
 - 연체동물 주요 종은 홍합(*Aulacomya ater*), 바다 우렁이(*Thais chocolata*), 조개 (*Semele solida*), Peruvian scallop (*Argopecten purpuratus*), "chanque" (*Concholepas concholepas*), 함박조개(*Mesodesma donacium*), 오징어(*Loligo gahi*) 임.
 - 양륙되는 갑각류는 prawn, shrimp, 갯가재, 다양한 게, swimcrab이 있음.
 - 안초비(*Engraulis ringens*)는 지리적으로 주로 연안 100해리 이내의 남위 03°30'~37°00'에 분포해 있으며, 남위 04°00'~16°00'에 집중되어 있음. 꽁치 (*Trachurus murphyi*)는 에콰도르(북위 01°38')에서 칠레(남위 55°)까지, 고등어 (*Scomber japonicus*)는 만타 및 갈라파고스 제도(에콰도르), 칠레의 Darwin 만 남부 (남위 45°)에서 찾을 수 있음. 페루에서는 위도로 보아 두 어종 모두 영해 및 공해의 전 해안선에서 발견됨.
 - 메를루사(*Merluccius gayi*)는 깊이 500m 이하의 전 해역에서 발견되며, 페루 북단인 남위 00°30'에서 남위 13° 56'에 걸쳐 있음. (Chirichigno, 1974) 대왕오징어 (*Dosidicus gigas*)는 동부 태평양에 넓게 분포해 있으며, 캘리포니아 만(북위 36°)에서 남위 47°까지 걸쳐 있음.
 - 선망 어선단은 주로 남쪽인 파이타(남위 6°30')에서 조업함. 주요 항구는 파이타 (Paíta), 침보테(Chimbote), 수페(Supe), 카야오(Callao), 피스코(Pisco), 일로(Ilo)임. 트를 선단은 대륙붕이 가장 넓은 북위 6°에서 조업함.
 - 어창 용적 32.6~110m³인 목선의 대규모 선단은 Santa Rosa, San José, Chimbote 등 발항지와 가까운 중북부 해안에서 조업함.

4. 자원 관리제도

- 페루 수산업 관리의 목적은 수산업 및 양식업 활동을 규제하여 수산 생물자원의 지

속 가능한 개발과 책임 있는 이용을 발전시키는 것임. 관리 방안은 법적,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수단 마련과 동 부문의 민간 투자를 장려하는 것임.

- 국가 고정자산으로서 페루의 수산 생물자원은 국가가 관리함. 제도적 관리는 생산 부(전 수산부)의 수산 차관실에서 수행하며, 주요 기능은 수산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환경 보존, 사회경제학적 개발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임. 수산 차관실은 수산물 위생 및 품질, 수산업 안전 및 위생, 환경 보존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함.
- 수산·양식업 행정부는 해양 및 내수면 생물자원 이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조업을 포괄하여 관리하고 있음. 수산업은 수산 생물자원에 적용될 원리, 원칙,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고안된 규정을 통해 관리되며, 생물자원들은 독립된 개체로 관리됨.

○ 규정 내용

- 수산업 관리 규정은 주요 수산업(메를루사, 콩치, 고등어, 대왕오징어 등)에 적용됨. 각 규정은 관리의 적정한 목표와 수산업 진입 체제, 총 선단과 가공 능력, 어기, 총 허용 어획량, 어구, 낚시 도구, 어법, 최소 크기, 금지 구역, 연구 수요, 통제 및 정찰 조치 등을 설정하고 있음.
- 어로활동 진입 제도는 선단 규모 및 어업 한도 증가에 대한 허가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규정 조항 및 자원 이용 상황에 따라 발급함. 양식업 진입 제도는 허가 및 권리 형식으로 되어 있음. 수산가공업 진입은 한도 및 조업 라이선스 설정으로 규제됨.

○ 이용도에 따른 자원 분류

- 개별 수산업에 대한 진입은 과학적 증거 및 이용도에 따라 해당 자원 상황으로 분류되어 규제됨. 분류 범주는 다음과 같음. a) 활동이 없어 이용되지 않는 자원, b) 활동이 증가하여 약간 이용되는 자원, c) 활동이 최대 지속가능한 양으로 이루어져 최대한으로 이용되는 자원
- 이용되지 않은 수생 생물자원은 탐사 및 실험선과의 연구 사업이 장려됨. 연구 사업은 반드시 IMARPE로부터 승인받아야 함.
- 약간 이용되는 수생 생물자원의 경우 진입은 선단 규모 및 조업 한도 증가에 대한 허가로 규제되며, 수산업 성장과 자원 가능성 균형에 책임이 있음.
- 자원이 최대한으로 이용되고 있으면 선단 규모 증가(어업에 새로운 선박 진입)는 허가되지 않으며, 어업 진입을 위한 조업 한도도 주어지지 않음. 예외적으로, 기존 선단과 비슷한 어창 용적으로의 교체는 허가 됨.
- 임시 규제는 회복 체제의 메를루사와 같이 조업 활동이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

협하는 곳에 적용됨. 수산업 관리에서 특별히 다뤄지지 않는 수산업이나 수생 생물자원은 대부분 수산업에 대한 일반법 및 규제에 의해 규제 됨.

5. 어업 공동체

- 연안으로의 이주와 생계 전략으로서 영세 어업에 대한 자유 진입으로, 국가의 인구 증가 및 빈곤의 지리적 분배가 이루어짐. 이러한 수치는 선박 보유 어민과 미보유 어민(지상), 해변 트롤망 어민, 조류 수집 어민, 민물 새우(*Cryphiops caementarius*) 어민을 포함함.
- 또한 II ENEPA 조사에 따르면 영세 어민의 평균 교육 수준이 크게 증가하여, 중등 교육 비율이 44%에서 54%로 증가하였음. 이는 어업으로의 양질의 교육인구가 이동하였음을 의미하며, 높은 불완전 고용에 대한 국가 통계를 확인시켜 주었음. 또한 어민의 7.1%가 더 높은 교육을 받았다는 점은 흥미로움.
- 모든 어민, 특히 영세 어민은 무역협회나 노동조합, 해양 협회, 집단 및 기타 기관 등 단체에 소속되어 있음.
- 수산업 부문 노동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분석 연구에 따르면 생산에 종사하는 여성은 일반적으로 식용을 위한 가공공장에 고용되어 있으며, 계절적으로 고용되어 생산성에 따라 교대 근무 시간 당 지급 받음. 어류 통조림 공장에서는 지원 및 능숙함이나 업무가 남자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생산 라인에서 분류, 세척, 필렛 만들기, 통조림 채우기, 포장 추가, 상표 붙이기, 청소 구역에서 품질 관리 등 여성에게 특화된 기타 작업을 함.
- 영세 어업에서 어민들의 부인은 매일 혹은 어류가 양육되면 이를 개인적으로 판매함.
-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조업, 가공, 마케팅, 연구, 개발 등 여성의 직업적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며, 심지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감독 및 관리자 지위에도 오르고 있음.

제3절 내수면 어업

1. 아마존

- 페루의 아마존은 지리적 및 생물학적 이질성이 특징임. 면적은 778,449km²이며 국가 총 면적의 61%를 차지함. 페루 아마존의 종은 타 지역보다 다양하며 726종으로 추정됨. 이 중 70종만이 인간 소비를 위해 상업적으로 조업되며, 420종은 관상 용도로 어획됨.
- 어업은 동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활동 중 하나이며, 식량 공급 및 고용 창출의 기반이 되고 있음.

2. 산맥

- 페루 산맥의 조업 활동 대부분은 티티카카호에서 토착종인 Ipsi(*Orestias* genus)를 어획함. 또한 유망이나 기타 현지 어구로 어획되는 Carachi(*Orestias agassi*), 품질 및 크기 면에서 상업적으로 매우 귀한 Boga(*Orestias pentlandii*), 트롤망 종류에 따라 중간 심층에서 어획되는 “bolsa”, 메기 종류로 호수에서 발견되며, 현재 남획 및 낮은 생산 수준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Suche 및 Mauri가 있음. Puno 부서를 통해 Suche와 Boga, Mauri에는 무기한 금어기가 설정되어 있음.
- Ipsi는 매년 번식기인 1~3월에 금어기를 통해 보호되고 있음. 그러나 동 어종의 송어 사료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함.
- 산맥 및 티티카카호에 중요한 기타 자원으로는 외래종인 송어와 Argentine silverside(*Odonthestes bonariensis*)가 있음. silverside는 원양어종이며 수심 10~50m에서 발견됨. 두 어장에서 어획되는데, 일 년 내내 조업되는 개방호와 더 큰 표본이 어획되는 해안가 지역임. 조업은 유망으로 이루어짐.
- 또한 silverside는 Apurímac, Cusco, Puno호에서 관리되며, 최소 크기 및 어기는 번식기에 따라 설정되어 왔음.
- 송어는 티티카카호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어종이며, 먹이인 Ipsi와 서식 환경이 동일함. 송어는 유망으로 조업되며, 주로 하구에서 이루어짐.
- 해안에서 민물 새우 조업(*Cryphiops caementarius*)은 주로 페루의 남부나 중앙의 강에서 이루어짐. 동 어종은 번식 절정기(주로 하계와 일치함)에 어업 금지로 보호

됨. 어획은 선택된 어구 및 어법으로만 허용되며, 최소 크기가 도입되었음.

3. 어선

- 아마존 지역 어선은 특성에 따라 4개 집단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상업적 어업 및 지역적 이용을 위한 대규모 선박, 현지 이용을 위한 소규모 선박, 생활형 어업을 위한 배, 스포츠 낚시를 위한 배이다. 관상용 어류 조업에 이용되는 선박도 있음.
- 큰 선박들은 평균 길이 21m이며 10~30m³의 등온 상자를 갖추고 있음. 이는 아마존 어획량의 15%를 차지함. 소규모 어업 선박은 더 짧고 3~10m³의 등온 상자를 갖추고 있음.
- 생활형 어업을 위한 배는 통나무배나 소형 선박임. 약 42,000척의 배가 연간 아마존 어획량의 약 75%를 어획한다고 추정됨. 관상용 어류는 소규모 동력선이나 노 젓는 배로 어획함.
- 페루 아마존의 주로 어획되는 자원은 'boquichico' (*Prochilodus nigricans*), 'llambina', 'palometa', 'maparate', 'ractacara', 'yahuarachi', 'yulilla'이고, 상업적 가치가 높은 어종은 'paiche' (*Arapaima gigas*), 'gamitana' 또는 black pacu (*Colossoma macropomum*), 'tucunare', 'acarahuazu', dolphinfish, 'doncella' (*Pseudoplatystoma fasciatum*), 'cunchimama', red pacu (*Piaractus brachypomus*)임.
- 티티카카호에서는 주로 해안가에서 토착종을, 해안가 및 해안가에서 떨어진 곳에서 silverside를 조업함. 조업은 주로 자망을 갖춘 소형 선박으로 이루어짐.

제4절 양식업

- 페루에서 양식업은 192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으며, 수정된 무지개송어 알은 미국에서 수입되었음. 새우 양식은 1980년대 말 시작되었으며, IMARPE와 수산부가 Tumbes 지역에서 최초 양식 실험을 실시함. 새우 양식은 그 뒤 민간 기업에서 인수하였음. 가리비 양식은 피스코에서 1980년대 초 시작하였으며, 당시 종자의 자연 생산이 풍부하여 촉발되었음. 가리비 양식은 추후 해안 지역들에서 성공적으로 지속되었음.

- 페루의 양식은 여전히 소수 어종만 진행되고 있음. 전 양식 지역 중 77.8%(18,300헥타르)는 해면 양식업, 22.2%(5,240헥타르)는 내수면 양식을 진행하고 있음. 가장 진보된 양식업이 가리비와 새우였으며, 이는 주로 수출되었음.
- 송어 양식은 현지 시장 및 수출용으로 안데스 산맥 고지대에서 진행되고 있음. 열대 지역에서 양식되는 기타 어종은 토착종으로, 'gamitana' 또는 black pacu (*Colossoma macropomum*), red pacu (*Piaractus brachypomus*), 'boquichico' (*Prochilodus nigricans*)이며 대부분 현지 시장용임. 틸라피아는 현지 소비용으로는 산 마르틴의 산악림에서, 국내 시장 및 수출용으로는 페루의 북부 해안에서 양식되었으나 이러한 형태의 양식업은 여전히 초창기로 소량 생산하고 있음.
- 양식업은 최근 페루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급속히 페루의 경제 개발을 위한 선택이 되고 있음.
- 페루의 양식 부문은 양식업 진흥 개발법(Law N° 27460)과 그 규정(Supreme Decree N° 030-2001-PE)에 따라 규제됨. 양식업에 대해서는 수산업에 대한 일반법이 보충하고 있음. 양식 활동은 '양도' 또는 '허가' 받는데 양도는 공유 토지와 수면에 주어지며, 허가는 연구 및 보충 활동을 위해 사유지에서 양식될 때 요청됨. 두 라이선스 모두 10~30년 동안 주어짐.
- 양식업 라이선스는 최저 생활수준(연간 2톤 이하 생산)과 소규모 수준(연간 2~50톤 생산), 대규모 수준(연간 50톤 이상 생산)으로 구분됨. 어류 종묘와 치어 센터는 소규모로 분류 됨.
- 또한 노동법 및 사회 안보와 관련하여 양식업 노동자는 법 N° 27360에 따른 농업 노동자의 건강 보험에 포함되며, 의료 혜택을 대체하여 고용인이 매달 지불함.
- http://www.fao.org/fishery/countrysector/naso_peru/en 및 국가 양식부문 개요(NASO) (http://www.fao.org/fishery/countrysector/naso_peru/en)에서 페루 양식업 현황을 찾을 수 있음.

제5절 유통, 가공, 수출

1. 가공

- 2013년 수산물 총 가공량은 2012년 대비 14.3% 증가한 1.7백만 톤이었으며, 이는 어분(30.5%) 및 통조림(8.4%), 훈제·염장 제품(72.5%) 생산 회복에 기인함.
- 식용(통조림, 냉동, 훈제·염장) 수산가공품 생산량은 449천 톤으로 통조림 17%, 냉동 77%, 훈제·염장 6%를 차지함.
- 비식용 수산가공품 생산량은 1,289천 톤으로 어분 86%, 어유 14%임.
- 어분은 주로 Chimbote(23.3%), Chicama(15.5%), Chancay(10.0%), Callao(9.2%), Pisco(7.8%)에서, 통조림은 Chimbote(48.5%), Paita(13.4%), Coishco(13.3%), Callao(12.2%), 냉동 제품은 Paita(64.9%), Callao(9.6%), Ilo(3.1%), Caleta Cruz(2.5%)에서 생산되었음.
- DHC에 대한 산업용 어류 가공공장은 179개 존재하며, 73개 통조림 공장 생산 능력은 1교대에 통조림 175,682개, 93개 어류 냉동 공장은 1일에 3,913톤, 13개 어류가공품 염지 공장은 1달에 1,243톤 생산함.

2. 유통, 수출

- 2013년 수산물 총 641,189톤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었음.
- 2013년 수산물 수출량은 총 1.5백만 톤이며, 전년 대비 어유(-64.0%), 어분(-36.4%), 통조림(-11.6%), 냉동(6.5%), 염지(3.7%) 제품량 감소로 인해 연간 32.4% 감소하였음.
- 2013년 페루의 어류 수출은 1,458,541톤에 FOB기준 2.769십억 달러였음.
- 어분 및 어유 등 비식용을 위한 제품은 다시 수출 이익의 62%에 해당하는 1.702십억 달러를 차지하며, 기타 용도로는 1%인 34백만 달러였음.
- 2013년 냉동 제품 수출액은 855백만 달러였으며, 총 수산업 수출 중 식용 제품의 83%를 차지했음. 수출량은 387,317톤(상품 무게)이었으며, 수산업 수출의 27%를 차지함. 동 제품의 주요 수출 시장은 중국과 스페인, 태국이며, 각 23.5%, 15.7%,

14.1%를 차지함. 그 다음은 한국 5.5%, 일본 5.1%, 이탈리아 3.3%, 러시아 3.1%임.

- 통조림 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고등어 통조림은 놀랍게도 51%, '정어리 류' 안초베타 통조림은 73%, 안초비 통조림은 99% 증가함. 동 범주의 전체적인 수출액은 미화 108백만 달러에 달하며 총 수산업에서 4%를 차지함. 41,009톤(상품 무게)이 수출되었음.

〈표 2-3〉 2013년 페루 수산 가공품 생산량

(단위: 천 톤)

용도	2012	2013	2013/12 비율(%)
총	1,520.9	1,738.9	14.3
식용	470.9	449.5	-4.5
통조림	70.5	76.4	8.4
냉동	383.8	344.5	-10.3
훈제 · 염장	16.6	28.6	72.5
비식용	1,050.0	1,289.4	22.8
어분	853.6	1,114.2	30.5
어유	196.4	175.2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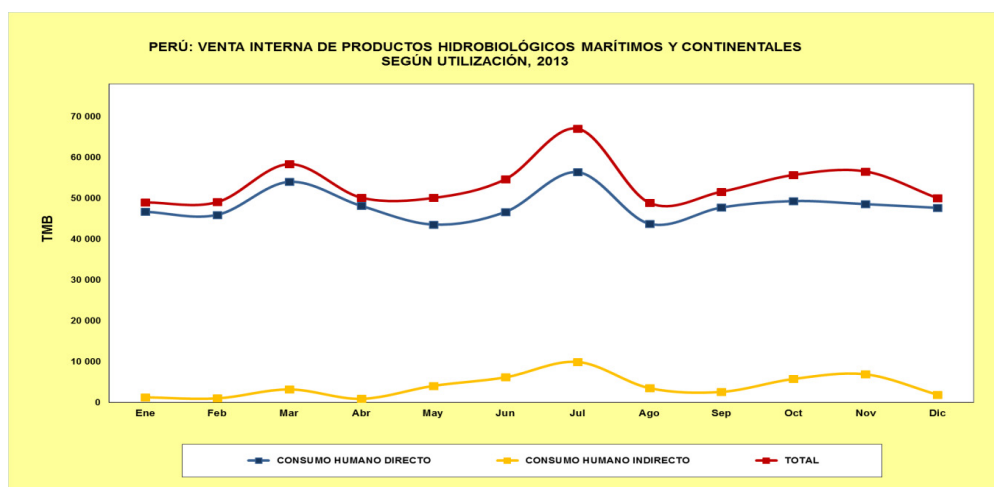
자료: 페루 생산부

〈표 2-4〉 2013년 페루 수산물 국내 판매량

(단위: 톤)

용도		총
	총	641,189
1.	식용	578,531
	통조림	45,990
	국내	21,389
	수입	24,601
	냉동	80,000
	국내	29,630
	수입	50,370
	염지	13,438
	국내	11,514
	수입	1,924
	신선	439,103
	국내	415,932
	수입	23,171
2.	비식용	47,160
	어분	8,906
	기타 가루	7,044
	어유	31,210
3.	기타	15,498
	국내	7,207
	수입	8,291

자료: 페루 생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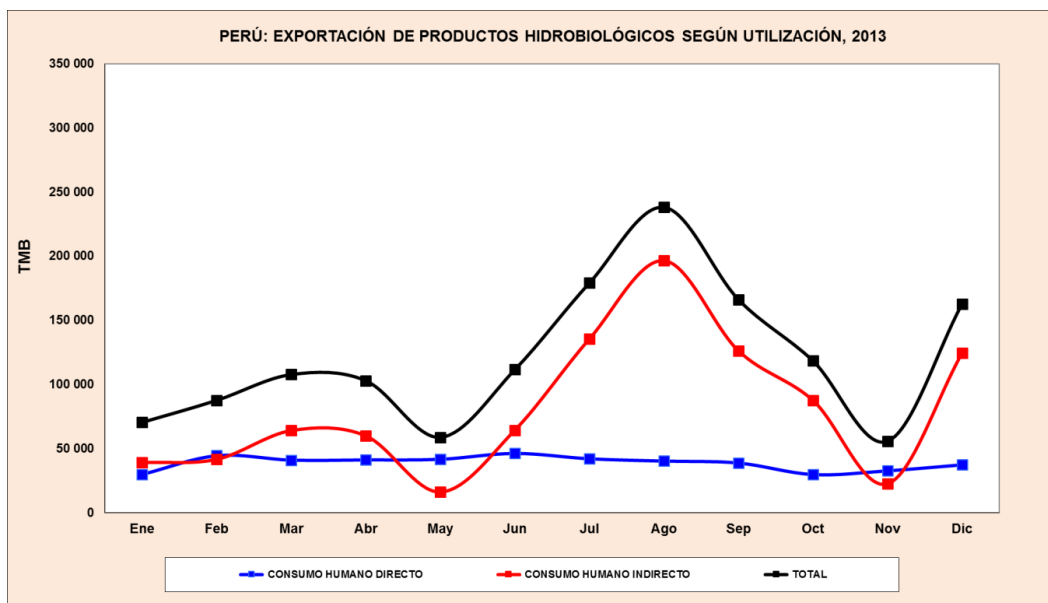
출처: DIREPRO, SUNAT(페루 국세청)

〈표 2-5〉 2013년 페루 수산물 수출량

(단위: 천 톤)

용도	2012	2013	2013/12 비율(%)
총	2,158.5	1,458.5	-32.4
식용	498.4	464.5	-6.8
통조림	46.4	41.0	-11.6
냉동	414.4	387.3	-6.5
염지	37.6	36.2	-3.7
비식용	1,606.4	946.7	-41.1
어분	1,334.7	849.0	-36.4
어유	271.7	97.8	-64.0
기타	53.7	47.2	-12.1

자료: 페루 생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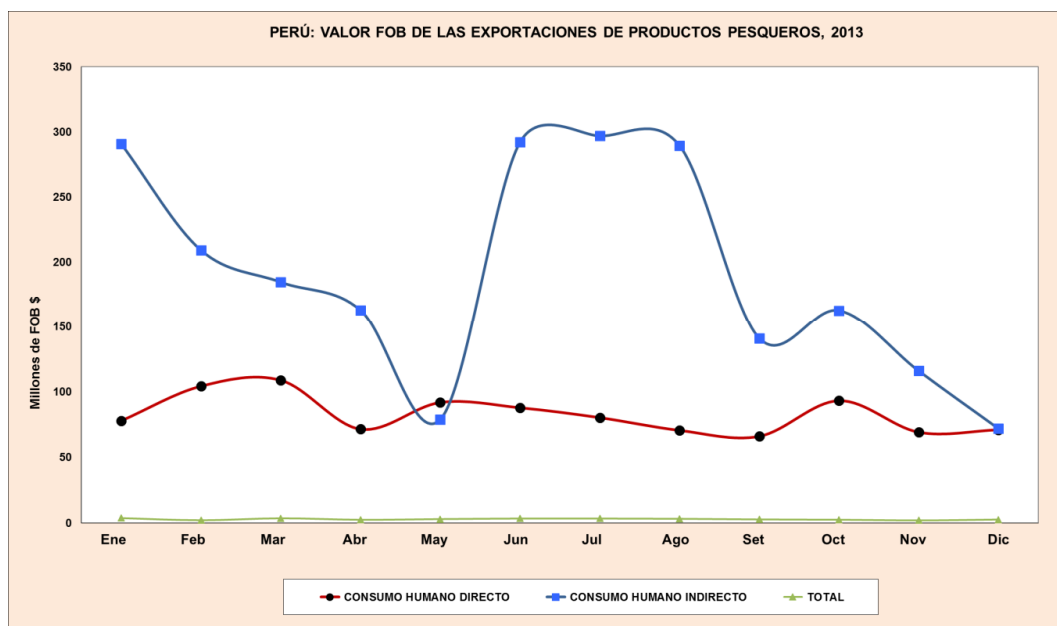
자료: SUNAT(페루 국세청)

〈표 2-6〉 2013년 페루 수산물 FOB 수출액

(단위: US\$ 백만)

제품	총
총	2,769.40
식용	1,032.99
통조림	107.86
냉동	855.42
염지	69.71
식용	1,701.99
어분	1,359.05
어유	229.62
기타 오일	113.31
기타	34.42

자료 : 페루 생산부



자료: SUNAT(페루 국세청)

제6절 수산업 부문의 사회 경제학적 기여

- 수산업 수출로 인한 외화 획득은 2013년 미화 27.69억 달러에 달했으며, 그 중 미화 17.02억 달러는 전통 제품(어분 및 어유), 미화 10.67억 달러는 비전통 제품(통조림, 냉동, 염지 등)임.
- 식량 안보는 모든 사람이 항상 신체·경제적으로 충분히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접근할 수 있고, 건강하고 활발한 생활을 위한 그들의 식량 욕구나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을 때 가능함. 페루에서 어류의 동물성 단백질 제공 비율은 약 23%이며, 1인당 어류 소비량은 21.4kg임. 어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대중적인 저가 상품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있음. 지역 영양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소형 원양어류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임. 수산업이 지속가능한 최대한도에 도달하여 세계 식량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는 다른 나라와 달리, 아직 페루는 현재 어분에 사용되는 어획물(특히 안초비) 일부를 전용하여 식량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음. 페루 정부에서는 어류, 특히 안초비의 섭취 증진에 기반을 둔 식량 안보 제도의 설립 계획이 있음.
- 국민의 식량 부족을 위해 수산가공 제품 개발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몇몇 고부가가치 제품이 개발되고 있음. 수산업 연구 및 개발, 교육, 기술 이전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인 페루 수산기술연구소(ITP)는 안초비 기반의 가공 제품 기술을 개발 및 적용해 오고 있음. 또한 소규모 어선에 가공 공장용 어획물의 효과적인 선상 보존 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술은 연구하고 있음.
- 고용은 주로 산업용 어업이나 가공업에서 이루어짐.
- 경제 활동 인구(EAP) 중 잡는 어업은 58%, 가공업은 19.3%, 양식업은 6.2%이었으며, 16.6%는 관련 활동에 해당되었음.

제7절 거버넌스

1. 제한과 기회

- 페루 산업용 수산업의 특징은 자연적 주기, 즉 차가운 연안 상승류와 따뜻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기후 변화로 수생 생물자원이 가변적이라는 점임. 이로 인해 주요 제품(어분 및 어유)의 시장 환경도 가변적임.
- 자원 이용 증가로 어류 자원 관련 선단의 크기가 커지자 선망어업 선단이 남획하게 되었음. 조업 일수의 점진적 감소와 높은 일일 어획 수준으로 인해 어류 자원이 압박되었고, 고용 상황도 불안정해졌음.

- 안초비에 최대 어획 한도를 도입하면서 적절한 관리와 효과적 조업으로 어업은 이득을 보았음. 또한 선단 감축에 대한 장려책으로 기능하였음.
- 고용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노동자, 특히 선단에서 근무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이 연구되어 왔음. 비식용용 안초비 어업의 최대 어획 수준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보상 및 배치 전환하는 것임.

2. 정부/비정부 부문 정책 및 개발 전략

- 페루의 수산업 부문 개발은 어업 자원이나 어획·생산·수출 수준에 따라 가변적임. 어류 자원의 변동성은 페루 해역의 자연환경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변하며, 상승류와 많은 어류 개체군을 만들어 내는 환경, 특히 안초비가 좋아하는 연안 및 원양 환경이 포함됨. 페루 해양 연구소에서 수행한 해면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국내 주요 어획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음.
- 주요 어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의 안초비 어획물은 역사적 평균치와 비교해야 함. 다음으로 중요한 메를루사 어업은 단위 노력당 어획량 및 어구 감소에 따라 완전히 자원 회복 중이며, 남획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고 있음. 수산업 부문의 또 다른 문제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일시적 혼란 후 쌍각 연체동물로의 시장진입이나 새우 양식 회복임.
- 다랑어 관련 현지 가공공장에의 공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수익성이 좋거나 경쟁력 있는 현지 시장용 및 수출용 모두 포함됨. 관상용 어류 수출용 기타품목도 증가할 수 있음. 양식업 관련하여 새로운 사업과 투자가 수출을 증대를 견인하여야 함.
- 식용을 위한 페루 수산업 환경은 개선되어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동 활동은 비식용 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세계수요와 특히 냉동 및 냉장 제품에서의 새로운 투자로 최근 고속 성장하였음. 추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 산업의 발달은 수출과 새로운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음.
- 양식업은 지난 15년간 꾸준히 성장하였고, 2002~2007년이 절정기였음. 이러한 성장에는 많은 원인이 있는데, 투자 및 국내 경제 성장을 위한 국가의 안정성과 해외 및 때때로 현지 시장으로의 양식 제품 접근성, 양식 생산 기술의 존재와 적용, 확장과 투입이 필요한 구역의 이용 가능성이 있음.
- 2013년 활동 증가로 과거 생산 수치보다 2배 증가하였음. 2018년 장기 전망에 따르면 지속적 성장으로 페루 양식 부문이 매년 100,000~120,000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더욱 낙관적인 예상에 따르면 페루 양식 생산량은 2018년 150,000톤일 것으로 보임.

3. 연구 및 교육, 훈련

- 페루 해양연구소와 수산기술연구소는 각각 과학, 기술 연구를 담당하고 있음. 전자는 해양 및 내수면 생물자원, 생태계 요인, 해양학 및 호소학, 수산 환경 특성 등의 과학적 연구를 수행 중임. 주요 기능은 수산업 자원 관리를 위한 과학적 초석을 마련하는 것임. 수산기술연구소는 수산 생물자원의 가공 및 보존 연구를 수행함.
- 이키토스(Iquitos)에 위치한 페루의 아마존연구소(IIAP)도 수산 과학 연구를 수행하며, 목적은 아마존 지역을 개발하는 것임.
- 영세 어민을 위한 훈련 및 기술 개발 프로그램 개발은 국립수산개발기금(FONDEPES) 담당이며, 파이타 항구에 본사를 두고 있음. 파이타의 수산훈련센터는 영세 어업과 기본적인 사회 기반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홍보, 지원, 수행 활동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양식업 증진을 위한 주요 활동을 개발 및 수행하고 있음.

4. 제도적 체계

- 생산부는 법 N° 27779에 따라 창설되었으며,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산업 및 수산업 관련 생산 활동을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 및 승인, 감독하며 이들의 경쟁력과 생산량을 증진시킴. 목적 달성을 위해 생산부는 수산업 및 소부문 산업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국가 규칙을 발표하거나 집행을 감독함.
- 생산 부문의 조직 구조에는 생산부와 분권화된 공공 단체 및 사업체, 산하 위원회들이 포함됨. 동 권한은 수산업 및 제조업 활동에 관련된 자연인 및 법인까지 해당됨. 수산업 관련 생산 부문은 재판권 아래 해양 수역과 국토 내 강과 호수 및 기타 수역의 모든 수생 생물자원에 권한이 있음. 이에는 소부문의 과학 기술 연구, 서식지의 환경생태현황, 보존 및 어획 수단, 수산 제품의 품질 및 위생, 안전, 수산업 사회기반 시설, 어획을 위한 보조 또는 지원 서비스, 양식업 및 일반 어업 활동이 포함됨. 연안 국민 페루와 인간 소비용 수생 생물자원의 이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함.
- 수산업 차관은 생산부 공무원이며 수산업 소부문을 직접 담당하고 있음. 정책 수립과 해면 및 내수면 수산 자원의 어획 및 가공, 양식을 다룬 규칙의 이행 안내 및 준수 확인에 대한 의무가 있음. 기술 단체로는 양식 및 어획, 가공, 영세 어업, 어업 환경 및 감독, 감시통제 부서들이 있음.

- 또한 수산부 차관실은 분권화 된 공공 단체인 국립수산물개발기금(FONDEPES), 페루 해양연구소(IMARPE), 페루 수산기술연구소(ITP)의 활동을 안내 및 감독함.
- 페루 해양연구소는 해양 환경 및 생물다양성 연구와 수산자원 평가, 정보 제공, 수산 및 양식, 해양환경 보호 관련 의사 결정 자문을 담당하는 수산 공공단체임.
- 국립수산물개발기금(FONDEPES)은 영세 어업의 지속 가능한 통합 개발과 양식업 개발을 위한 기술 및 노하우 창출 및 홍보를 담당하는 분권화된 공공단체임.
- 페루 수산기술연구소(ITP)는 국내 수산자원의 이용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수산양식 건강 및 양식 조건 향상을 담당하는 공공단체임.
- ITP는 국립수산물보건소의 행정 기관이며,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수산 양식 자원 및 제품의 품질을 향상 및 보증함.
- 생산부는 분권화 과정을 관리하는 법률의 틀 내에서, 정책 결정이나 국가 규칙 제정, 수산 및 제조업 관련 집행 사항 감독 시 지역 정부와 협력하고 있음.
- 수산 공공단체의 인터넷 주소
 - 생산부: www.produce.gob.pe
 - 페루 해양연구소: www.imarpe.gob.pe
 - 국립수산물개발기금: www.fondepes.gob.pe
 - 페루 수산기술연구소: www.itp.org.pe

〈도표 2-1〉 페루 생산부 조직도



제8절 법적 체계

- 수산업 일반법령 N° 25977은 어업활동 규제, 식량 및 고용, 소득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 증진, 수생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보장, 환경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과 동시에 경제수익 최대화를 위한 법적 틀임.
- 수산업 일반법 규정 Supreme Decree N° 012-2001-PE는 수산업 일반법에 정리된 조항을 규제함. 또한 동 규정은 모든 규칙 및 수정 조항을 단순화하고 법·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도구를 포함하여, 수산업 부문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이러한 규칙을 수생 생물자원의 책임 있는 관리와 지속 가능한 이용의 기준과 조화시킴. 본 규정은 원칙이나 규칙, 규제조치를 정한 법률을 제공하고, 이는 아래 나열된 중 같이 독립 개체로 다루어지는 수생 생물자원에 적용됨.
- 대왕오징어 관련 수산 관리 규정 Supreme Decree N° 013-2001- PE는 대왕오징어의 생물학적 개체군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획, 어획에 따른 이익 최대화의 목적이 있음.
- 생물학적 개체군 특성과 책임 있는 수산업 원리,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고려한 원양 대구 어업의 통합 개발 증진과, 동 자원 및 관련 종의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원양 대구의 수산 관리 보장에 대한 규정 Ministerial Resolution N° 236-2001- PE
 - 또한 이를 통해 남극 해양 생물자원의 보존 및 보호를 위한 방법 및 규칙을 채택하여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의 목적을 강화하고자 함.
- 메를루사 수산 관리 규정인 Supreme Decree N° 016-2003- PRODUCE - 메를루사 관리의 주요 목적은 생물학적 개체군 특성과 책임 있는 수산업의 원리,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고려하여 메를루사 및 관련 종의 추후 지속 가능한 어획을 위해 중단기 회복을 달성하는 것임. 또한 메를루사 어획 및 가공에서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조화시킴.
- 다랑어 수산 관리 규정 Supreme Decree N° 032-2003-PRODUCE (04.11.03) - 관리 목적은 동 어장 관리 보존법 적용을 통해 페루 영해 및 공해 모두에서 다랑어 및 관련 종의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어획하는 것임. 또한 전문화된 국가 다랑어 선단을 구축하고, 페루를 고도 회유성 어종과 이들의 보호, 통합관리 연구에 대한 소구역 및 지역, 세계적 협력 기구에 활동적으로 참가하게 함으로써 다랑어 어업을 발전시킴.
- 콩치 및 고등어 수산 관리 규정 Supreme Decree N° 011-2007-PRODUCE - 목표는 콩치 및 고등어 자원의 합리적인 어획을 촉진시키고, 수산 일반법 및 관련 조항의

원칙 및 규칙에 따라 해양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수산업을 식량 및 고용, 외화원으로서 다각화 및 개발에 기여하는 것임.

- 티티카카호 집수 지역의 수산 및 양식 관리 규정 Supreme Decree N° 023-2008-PRODUCE - 본 규정의 목적은 수생 생물자원의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강령의 원칙에 따라 티티카카호 분지의 수산 양식 활동을 개발하며,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임. 또한 본 규정은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포함하여 경제적 성장과 투자 장려, 자원 보존 간 동적 평형을 성취하기 위해 티티카카호의 현실에 맞춘 규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페루 아마존의 수산 관리 규정 Supreme Decree N° 015-2009 - PRODUCE - 목적은 책임 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강령의 원칙에 따라 수생 생물 자원의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과 아마존 수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포함하여 경제적 성장, 투자 장려, 자원 보존 간 동적 균형을 보장하는 것임.
- 더욱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음.
 - 국가 양식 법률 개요 (NALO)
(http://www.fao.org/fishery/legalframework/nalo_peru/en)
 - FAOLEX 법률 데이터베이스(<http://faolex.fao.org>)

출처 : FAO

Chapter

3

페루의 투자제도

제3장 페루의 투자제도

제1절 개요

- 페루의 투자관련 법에 의하면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투자업종도 언론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 개방에 가까운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다만, 외국기업에게 페루 내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여야 하지만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으로 인센티브 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음.
- 2006년 7월 알란 가르시아 정부가 들어서면서 광물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투자 광산업체에게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기 위한 협상에 나을 것을 요구해 반발을 사는 경우도 있었음.
- 2011년 7월에 출범한 우말라 정부의 경우 당초 시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지속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함으로써 인해 에너지 및 광업 분야를 중심으로 평균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페루 투자청에서 발표한 2015년 전망보고서에서는 페루가 세계 35위로 비즈니스하기 좋은 나라로 전망하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 시장 개방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함.
- 더불어 페루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독려하기 위해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치적 위험도를 포함한 국가위험도 측면에서 중남미 주요 국가들 중 위험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어 투자에 긍정적 환경을 조성함. 아울러 사유재산권 보장, 국내외 자금 조달 관련 신용 접근의 자유 및 안정된 조세제도를 유지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발표하는 2015년 비즈니스 환경지수에서 189개 국 중 35위에 위치했음.

제2절 정부의 투자 정책 및 외국인 우대 정책

- 페루의 투자관련 법적 기본 골격은 크게 내국인을 위한 민간기업 투자진흥법(Law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Investment)과 외국기업을 위한 외국인 투자진흥법(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Law)으로 구분됨.

1. 민간투자진흥법 및 외국인투자진흥법

- 민간투자진흥법 (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on Privada Decreto Legislativo 757, 1991. 11. 8)
 -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참여 및 규제 최소화,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세제와 간소화된 행정절차 등을 규약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진흥법 (Ley de Promocion de la Inversion Extranjera Decreto Legislativo 662, 1991. 8. 29)
 -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의 동등대우, 외국인 재산권 보호, 투자이윤 및 원금의 자유로운 송금 등을 보장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을 규정하고 있음.

2. 외국인 투자 관련 기본원칙 및 우대정책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기본 원칙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함. 외국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음. 아울러 WTO 규정에 의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선별한다거나 생산성 요건 충족 요구를 할 수 없음.
- 비차별 대우: 내외국인 투자 모두에게 동등한 법적 대우를 부여함.
- 대부분의 산업분야를 외국인투자에 개방함.
 - 국경에서 50km 이내의 부동산 취득, 무기 및 폭발물 산업 투자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며 공중파 라디오 및 TV 방송, 항공 산업에의 투자에는 내국인과 합작 투자를 하되 내국인의 지분이 다수를 차지해야 함.
- 자유로운 자본 송금, 사유재산권, 국내외 자금 조달 관련 신용 접근 자유 보장
- 다양한 투자협정: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및 다자간투자보장기구 회원국, OECD투자위원회 가입함

3.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본권

- 내국인에 비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상업과 산업, 수출과 수입의 자유
-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국내에서 창출한 이익 또는 배당금을 자유로이 해외 송금할 수 있는 자유
- 외환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환율로 환전을 할 수 있는 권리
- 이미 투입한 자본을 본국으로 반환할 수 있는 권리(주식 양도, 자본 감축, 자본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때)
- 내국인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아무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
- 기술 계약과 로열티 송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
-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자유
- 투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보험계약을 외국에서 체결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투자를 위해 국가와 법적 안정성 보장 협정을 체결할 권리

4. 법적 안정성(judicial stability) 보장 협정

- 정부는 내외국인 투자자 또는 그들이 투자한 회사와 법 계약 성질을 띤 협정을 체결하며 이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의 계약 부분을 적용함.
- 법적 안정성 협정 체결 자격
 - 투자자와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내기업 모두 협정 체결 가능
 - 새로운 회사 설립 또는 기존 회사 증자 형태에 관계 없음
 - 민영화나 정부양도 개발권 참여회사 또는 이 과정과 관계있는 회사

제3절 진출형태별 투자절차

1. 진출 형태

- 페루 투자청(Proinversión)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투자 형태는 주식회사, 지사 및 지점(연락 사무소)이며 대다수의 기업이 주식회사를 설립함. 기타 기업의 경우 합작 투자나 파트너십 계약을 통하여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임.
- 광업이나 석유 사전 탐사 혹은 탐사 단계의 경우, 외국 기업은 현지 업체를 통한 합작 투자를 선호하는데 이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현지 기업을 통한 합작 투자 형태가 외국 기업의 분배 문제 및 위험 부담 감소에 유리하기 때문임.
- 또한, 외국 기업은 시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 및 자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페루 기업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합작 투자는 농업, 수산업 등 페루 시장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음.

2. 일반절차

가. 필요 서류 구비

- 설립할 회사의 상세 정보가 필요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설립자의 신원 정보, 설립 목적, 사장단, 이사회, 주주 권리 및 의무 조항, 관계자의 직위 및 추가 정보 등.
 - 설립 절차에는 변호사 및 주주의 공증이 필요함.

나. 계좌 개설

- 기업의 명의인 현지 은행 내의 계좌를 개설해야 함. 회사 형태에 따라 각 주주(투자자)는 해당 투자자금을 납부해야 하며 형태는 아래와 같음.
 - 동산(은행 잔고)
 - 전문 자료를 통한 부동산(가구, 기계류 및 장비)
 - 동산 및 부동산 형태

다. 페루 상업 등기소(SUNARP, www.sunarp.gob.pe) 등록

- 공증 절차를 거쳐 상업 등기소(SUNARP)에 기업을 등록해야 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여러 주주가 동시에 설립하는 경우(Constitución Simultánea)와 주주를 모집해서 설립(Cnstitución por Oferta a Terceros)하는 경우가 있음. 두 형식 모두 공증인이 필요하며 주주들은 기타 필요한 제반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야 함.
- 직접설립방식(Constitución Simultánea)
 - 자본금은 페루 내 은행구좌에 예치해야 함.
 - 주주들은 페루 변호사가 작성한 회사 정관에 서명해야 함.
 - 서명 후 공증받아 해당 지역 등기소(SUNARP)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함.
- 공모설립방식(Cnstitución por Oferta a Terceros)
 - 회사설립자는 서명 인증을 위해 설립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공증함.
 - 공증 후, 해당 지역 등기소(SUNARP)에 제출.
 - 추후 가능성 있는 지분참여 신청인을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실시해야 함.
- 신청인의 회의 장소, 일시는 프로그램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모집 공고에 표시한 대로 하되 임명된 사람은 회의를 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 설립 공정 증서를 만들어 해당 지역 등기소(SUNARP)에 등기해야 함.

라. 관할 사무소에서 납세번호(RUC) 취득

- 페루국세청(SUNAT)은 법률에 의거한 관세행정정부기관으로, 납세자 등록서의 등록을 입증하는 각각의 증명서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납세자 등록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에게 납세고유번호(RUC)를 부여하고 있음. 납세번호 발급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함.
 - 페루 산업 등기청 (SURARP)에 신청할 定款 및 자본납입증명서
 - 재정 소재지 수도 전기세 영수증

- 페루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일정 양식서
 - 신분증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소유주 증명서
- 만약 본인이 아닌 제 3자 대리인이 납세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법정 대리인이 부여한 위임장과 대리 신청인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만 함.

마. 회계상 필요조건

- 법인은 영업행위의 수입 지출과 관련된 주 장부인 회계장부는 스페인어로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특별히 외화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지화 기준으로 기장, 정리해야 함.
 - 과세부과기준은 외화로 정해질 수도 있지만 해당 세금을 납부할 때는 당시 환율로 환산하여 현지화로 납부해야 함. 주요 회계장부는 아래와 같음.
- Trial-Balance Book Stock Book
 - Day-Book
 - Ledger Book
 - Payroll Book
 - Record Book
 - Ledger, Wages & Salaries Payroll Book
 - Minute Book
- 회계장부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증확인이 필수이며, 특히 종업원 급여에 관한 장부인 Payroll Book이 경우는 페루 노동부에 의해 검증되어야 함.

바. 주소지 소재 시구청의 영업허가서

- 이 허가서는 상업, 제조업, 서비스, 기타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며,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 관할단체에서 관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허가서를 발급해야만 함.

○ 영업 허가서를 발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요구됨.

- 영업허가서
- 건축물 안전 진단서
- 납세자 등록서(RUC) 사본
- 법정대리인 또는 관계자 신분증 사본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소유주 증명서
- 수수료 지불 영수증 사본

3. 회사설립절차

가. 주식회사 설립절차

〈표 3-1〉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설립절차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소요기간/비용
1	설립요건	대표자격을 부여를 입증하는 공증서류	페루법 기준, 서류 스페인어본 필요		
2	임대차 가계약	-신분증	사전계약 시 제공하지 않아도 됨.	각 업체	위치 및 면적에 따라 상이
3	구비서류	-대표자격 부여를 입증하는 공증 서류 -대표이사 혹은 이사의 신분증 사본 -외국인 대표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스페인어 본 서류	페루 외무부	
4	허가서 신청	회사 설립 허가서 신청	설립할 회사의 상세정보, 변호사 및 주주의 공증이 필요함	법률사무소 및 공증인	2~3일내, 법률사무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50\$~1,000\$ 사이임. 공증 비용 평균 150\$~400\$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소요기간/비용
5	허가서 발급	허가서 발급		상업등기소 (SUNARP)	자본금의 3/1000에 해당하는 비용
6	인감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 허가서 -건축물 안전 진단서 -납세자등록서(RUC)사본 -법정 대리인 또는 관계자 신분증 사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소유주 증명서 -수수료 지불 영수증 사본 		해당시청	시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절차 중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됨(총 설립 기간 중 2/3 소요) 14~27일, 혹은 더 길어질 수도 있음. 가격도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147\$~540\$선임.
7	구좌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정관 사본 -은행 필요 제반 서류 	페루국법에는 최 저자본 금액이 명 시되어있지 않으 나, 은행에서는 최 소 S/1,000,000(US \$360,000)의 자 본금을 요구	현지 은행	1일 소요/ 비용 없음
8	세무코드 발급- RUC(납세고유번호)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루 산업 등기청 (SUNARP)에 신청할 정 관 및 자본납입증명서 -재정소재지 수도, 전기 세 영수증 -페루국세청 신청서 -신분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소유주 증명서 	통상보증금 개념 으로 2개월치 임 대료선불지급	페루 국세청 (SUNAT)	위치 및 면적에 따라 비용 상이
9	임대차 본 계약	신분증		각 업체	

자료 : KOTRA

나. 지사 설립절차

〈표 3-2〉 지사 설립절차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소요기간/비용
1	설립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사의 유효증명 -본사의 정관에 지사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회사정관 사본 또는 정관에 해당하는 및 본사 주재국이 발행하는 서류의 사본 -본사의 지사설립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비서류 및 유의 사항은 주식회사 설립의 내용과 유사 하나 소요기간 및 비용의 경우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사유로 변동 될 수 있음 	주식회사 설립담당 부서와 유사함	정확한 비용은 언급하기 힘들으나 최근 변호사 및 공증 수속 비용의 상승으로 변동이 있음
2	임대차 가계약	대리인 신분증	가계약은 불가능함	관련 민간업체	규모 및 사무소 위치에 따라 비용은 달라짐
3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법인이 부여하는 회사설립을 위한 대표자 위임장 -법적 대리인 또는 주주의 신분증 사본 -만약 대리인이 외국인이라면 사업비자나 외국인거주자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음. 	위임장은 스페인어로 작성 되어야 함	페루 외무부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l Perú)	
4	허가서 신청	-회사 설립에 대한 공증	공 증 신 청 서 에는 회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있어야 하며 변호사의 서명이 요구됨	법률사무소, 공증인	2~3일내 공증 (Minutra) 업무 법무 소에 따라 US\$250~US\$1000, 공증인의 비용은 평균US \$250~1000정도
5	허가서 발급	-회사설립 허가서를 신청하기 위해 법적으로 공증서를 제출해야 함		해당지역 등기청	자본금의 3/1000
6	인감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허가서 -Certificado de Zonificación y Compatibilidad de Uso -건축물안전진단서 -납세자 등록서(RUC) 사본 -법정대리인 또는 관계자 신분증 사본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소유주 증명서 -수수료 지불 영수증 사본 	-상업, 산업 지역에 위치한 관할 시청에 요청	해당시청	해당 시청에 따라 소요 기간 은 조금씩 다르며 해당 지역 등기청 의 수속절차 소요 기간이 가장 길고 (회사 설립 총 소요 기간 중 2/3을 차지) 14~27일 이상 소요됨.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소요기간/비용
		-관련부문의 인증서 사본 -수수료			비용은 US\$147~US\$540
7	구좌개설	-회사설립대리인신분증 -회사정관 사본 -은행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	-법적으로 출자금의 최소금액은 없음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최소 S/.1,000.00 (≒ US\$360.00)의 예치금을 요구함	현지은행	계좌 개설 즉시 가능
8	세무코드 발급- RUC(납세고유번호) 취득	- 페 루 산 업 등 기 청 (SURARP)에 신청할 정관 및 자본납입증명서 -재정 소재지 수도 전기세 영수증 -페루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일정 양식서 -신분증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소유주 증명서		해당지역 등기청	1일 내 비용은 없음
9	임대차 본 계약	대리인의 신분증	-통상보증금 개념으로 미리 2개월 임차료를 선불로 지급	관련 민간업체	임차료는 사무실 위치 및 크기 등 여러 입지조건에 따라 다양함

자료 : KOTRA

제4절 투자 장려 분야

가. 투자가능분야

- 투자 가능 분야는 공공 질서 유지, 국가안전에 관련된 극소수 분야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 개방 상태로 투자에 있어 제한이 없음. 내국인 소유 주식을 주식시장을 통해 또는 다른 방법으로 매입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며 외국인은 자연인 이든 법인이든 내국인과 똑같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경으로부터 50km 내의 지역에서는 광산, 땅, 숲, 물, 연료, 에너지원 등을 소유하지 못함. 단, 공공의 필요로 예외를 둘 경우 국무회의 승인 법령으로 예외 인정함.
- 정부 간 협정 수혜 외국인 투자의 경우 국내 투자와 대등한 요구 조건 적용함. 기업은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계획 실행할 권리를 가짐.

- 위생, 공업 안전, 환경 보호, 보건과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고 그 외에 생산 방법, 생산 지수 등을 규정하거나 특정한 원자재나 생산 기술 과정을 금지 또는 강요하는 것, 회사 활동에 간섭하는 법을 폐지함.

나. 투자장려분야

- 2014년 정부에서 승인한 주요 투자분야는 교통, 의료, 교육, 농어업, 위생 등이며 도로 포장, 철도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교통분야 투자금액이 15억 6,20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2016년까지 국도포장률 85% 달성계획으로 투자청은 38억 달러 규모의 도로망 확충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민간투자 부문에서는 교통, 발전, 통신분야 유치에 주력할 것이라 밝힘.
- 현지 주력 투자분야인 광업의 경우 채굴권 세금인상,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프로젝트 연기, 자원가격 하락 등의 문제에 기인하여 주요 품목인 금과 구리의 생산량이 2013년 1월 각각 25%, 4%씩 하락함. 이에 따라 광업부문의 민간투자는 다소 주춤해 질 것으로 예상됨.
- 공공투자 부문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간 격차 완화를 위한 주요 지방도시의 투자도 활발해지는 추세이나, 조달청 등록 등의 절차가 더디고 진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현지기업 M&A, 합작투자 등을 통한 진출 방식의 다양화와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Chapter

4

페루의 기업 진출현황

제4장 페루의 기업 진출현황

제1절 한국 투자동향

1. 개요

- 페루의 주요 수입국은 2014년 1-6월 기준 미국, 중국, 브라질, 멕시코, 에콰도르, 독일, 한국,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순이며 승용차, 화물자동차, 칼라TV, 합성수지, 의약품 등에 대한 한국산 제품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
- 2014년에는 한국이 페루의 주요 수입국 7위를 차지하면서 라틴아메리카 주요 7개국(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칠레,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중 성장률 1위를 차지했음.
- 페루 내 한국의 인지도는 높은 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호감을 나타내기도 하며 한국산은 고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
- 2013년에 페루가 가장 많이 수입한 한국 제품은 '승용차'로, 경차, 소형, 준중형, 중형 승용차를 포함하여 약 3억 3,0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한바 있음.
-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핸드폰, PC, 가전제품 시장에서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삼성·엘지·현대 등 한국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인해 한국 상품의 인지도가 확고히 자리 잡음. 현지 가전제품 유통업체들은 한국 제품일 경우 메이드인 코리아(Hecho en Corea)를 큰 글씨로 표기하고 태극기 스티커를 함께 붙여 판매하기도 함. 이러한 점에서 페루 현지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 2011년 8월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관세율 철폐에 따라 각종 산업 분야의 한국기업 제품의 시장 진출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2011년 한-페루 FTA 발효 이후 2013년 페루 수입시장의 3.64%를 한국제품이 차지했음. FTA의 영향으로 한국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또한 현 우말라 정부가 한국정부와의 G2G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망에 따라 한국 수입 규모는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진출 사례

가. (수출) E사의 광업 장비 판매

- E사는 페루 건설 중장비 시장에 진출하였으나 진입초기 중국산 제품에 밀려 고전함.
- 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해 현지 광업 잡지에 매달 광고를 내고 꾸준한 유선접촉을 하며 샘플을 보내는 등의 노력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쌓기 시작함.
- 그 결과 중국산 제품을 주로 취급하였던 바이어들이 E사의 좋은 품질과 가격에 관심을 보이며 첫 수출을 이뤄내었고 꾸준히 매출을 올리고 있음.
- 이는 제품의 질과 업체의 노력뿐 아니라 풍부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페루의 환경과 광물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채굴을 연장한다는 페루 정부의 정책 또한 오늘날의 성공을 이끌어낸 주요 원인으로 분석함.

나. (투자) SK 이노베이션의 광구산업투자

- SK이노베이션은 아르헨티나 플루스페트를 등 5개 외국 기업과 함께 2000년 카미세아 88광구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2004년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함.
- 이후 2010년 88광구(카미시아)와 56광구에서 생산하는 대규모 천연가스를 액화시켜 LNG로 판매할 수 있는 LNG 공장을 준공하여 연간 440만 톤의 LNG를 생산함
- 이로써 기존의 사업이 탐사 광구 확보 및 개발에 집중됐다면, 페루 LNG 플랜트 건설로 제품 생산, 수송, 수출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가스사업 밸류 체인을 완성함.

다. (투자) 포스코건설, 페루 복합발전소 수주

- 포스코건설은 페루(Peru)에서 2억9,000만 달러 규모 '칠카우노(Chilca Uno)' 복합발전소 (Combined Cycle) 프로젝트를 수주함.
- 이 시설은 페루 리마에서 약 62km 떨어진 칠카 지역 내 기존 발전설비를 개조하는 것이며, 발전 용량은 810MW급이며 설계, 기자재 조달, 시공 등 일괄 계약 방식으로 진행됨.
- 포스코건설의 페루 공사 수주는 2009년 9월 칼파(Kallpa) 발전소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는 최초로 국내 건설사 중 2년 연속 페루 에너지시장 진출하는 것으로 중남미 시장에서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입증되는 계기가 됨.

3. 수산업 진출 사례

가. 페루 넙치양식 사업체 진출 사례

- 현재 페루 정부에서 양식기술이전을 요청하는 대표적인 어종은 넙치임. 페루 뿐만 아니라 칠레,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넙치를 튀김요리나 세비체(리몽과 양파에 버무린 새콤한 무침 회 종류)로 주식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어종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남미에서 넙치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고 판단됨.
- 넙치에 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페루는 활어를 원활히 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흡함에 따라 맛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선도의 문제로 인해 점심영업 시간에 한하여 세비체를 판매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 전문 회사인 "(주)월드드림피쉬"는 2010년 3월에 WORLD DREAM FISH - PERU S.A.C 라는 페루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넙치 양식시설을 건설 중이었지만 페루 진출 이후에 몇 가지 애로요인에 의해 현지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했음.
- 한국의 넙치알은 우수한 종자들을 2~3세대 동안 개량하여 부화율이나 성장이 뛰어나 수입을 추진하였지만 외래 어종에 대한 책임 문제로 인해 수입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한국산 양식기자재, 약품, 영양제 등의 통관 및 관세부분도 잘 정리되지 않아 이중의 어려움이 발생했음.
- 마지막으로 페루 현지의 생산부 및 이마르페(해양연구원)와의 상호협조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조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넙치 양식장은 해수를 이용하지만 현재 육상에서 양식을 하고 있어 정기적인 수질 검사로 적조, 바이러스 등 양식업에 위해가 되는 징후가 발견될 경우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만 협력체계의 미비로 집단폐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지역에서 양식산업 개발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기에 우리 양식업자들의 진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페루의 사례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따라서 양식 진출 사업자들의 위험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양자 간 협력의 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나. 페루 대왕오징어 가공사업 진출 사례

1) 개요

- 한국에서 소비하는 가공용 오징어(진미채, 조미오징어 등)는 페루의 대왕오징어를 원료로 이용하는데 페루의 대왕오징어 가공업체는 주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임.
- 2010년 기준 페루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대왕오징어 가공공장은 10개(건설 중인 공장을 포함하면 12개)이며, 파이타(Paita)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은 5개, 탈나라(Talara) 2개, 리마(Rima)가 2개, 아레키파(Arequipa)가 1개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페루의 북쪽지방인 파이타와 탈나라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그 이유는 이 지역이 대왕오징어의 최대 산지이며 동시에 파이타에 수출항(최소규모 정기 컨테이너선 1척-MAERSK)이 있기 때문임.
- 페루의 대왕오징어 가공업체 중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페루의 수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한인이 운영하는 기업들의 총자본금은 2,084만 달러이며, 연간 매출액은 약 6,489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음. 고용인원은 사무직과 생산직을 포함해서 약 3,000명인데, 이 중 사무직에 한인들이 일부 있을 뿐 대부분의 직원은 현지 페루인을 고용하고 있음.

〈표 3-3〉 페루의 대왕오징어 가공공장(한인업체) 명단 및 실적

기업명	장소	자본금	매출액	고용인원	
				사무	생산
Dawon	Paita	5,000	10,000	9	620
PERUCO	Rima	1,000	4,000	25	150
Ultra Frio	Rima	1,000	500	6	20
Kope E.I.R.L.	Arequipa	700	1,875	8	120
FREEKO PERU	Paita	10,000	5,000	2	100
Pesco Marine	Talara	500	13,000	20	450
MIK Carpe	Paita	300	7,500	7	200
Pacifico Sur	Tacna	60	3,700	16	180
Inhope	Paita	275	7,811	22	181
CNC	Paita	2,000	11,500	30	800
평균	4지역	20,835	64,886	145	2,821
합계	-	2,084	6,489	15	282

자료 : 남미지역 양자협력 및 수산투자활성화 방안

- 페루 현지 한인 가공공장들은 자본 대비 매출 비중이 3.1배로 건전한 경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업 당 평균 자산규모는 208만 달러, 평균 매출 규모는 649만 달러 수준임. 업체당 평균 15명의 사무직과 282명의 생산직을 고용하고 있으며 경비,

시설관리 등의 아웃소싱을 포함하면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됨.

- 현지의 주요 금융기관(제1금융권)에서 한인 기업에 대한 신용 평가는 최우수 기업 반열에 포함되지만, 페루 현지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이자가 20% 이상으로 한인업체는 현지의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용하더라도 자본금의 10% 이내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대왕오징어가 잡히지 않는 시기에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페루의 노동법 조건에 따라 비성수기에도 임금을 줘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음.

2) 업체별 현황

(1) INHOPE

- INHOPE는 2003년 7월에 페루 파이타의 해군기지를 빌려 공장을 운영하다가 2007년 2월에 지금의 공장을 설립하였음. 동 기업은 원료기준으로 일일 최대 150톤을 가공할 수 있으며, 이 외에 냉동실(63T/D), 냉동냉장보관(600톤, 완제품 기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 2008년 기준 매출은 약 900만 달러였지만, 2009년과 2010년에는 원료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480만 달러(330컨테이너, 40피트 기준) 정도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수익률은 약 4~5% 정도임.
- INHOPE에서는 자이언트오징어를 전량 반가공 원료로 수출하고 있으며, 그 상대국은 한국, 중국, 일본, 태국인데 이들 국가가 요구하는 품목의 형태도 다양함.
- INHOPE의 경우,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해외 판매경쟁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판매 채널의 고정화 혹은 구조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임.

(2) MIK

- MIK는 자이언트오징어를 1차 가공(반가공)하여 전량 수출하는 업체로 수출 상대국은 주로 한국, 중국 일본임. 한국으로 매출의 60%를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는 매출의 35%를 수출하고 있는데 한국보다 10~15% 높은 단가로 수출하고 있고 수출 원자재에 대한 관세 환급제도가 있어서 중국의 관세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국보다 원료 구매력이 높음. 일본으로는 매출의 5%를 수출하고 있음.
- 대왕오징어의 반가공원료 상품의 판로는 거대한 중국 시장이 존재하기에 판로 확보 경쟁이 치열하지 않지만 대왕오징어의 어획량 변동이 심한 것이 단점으로 나타나다품목 가공을 통해 연간 운영비를 확보하는 전략에 나서고 있음.
- 현재 동 기업은 대왕오징어 가공만을 하고 있지만, 비슷한 가공 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어종으로 상품을 확대할 계획임. 이들 품목에는 한치(총알오징어, 한국 및 일본 시장), 만세기(흰살고기 피레트로 미국 시장), Fish Meal(어분) 등이 포함됨.

(3) DAEWON SUSAN

- DAEWON SUSAN은 페루의 한국인 수산가공업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12년)를 가진 기업으로 본래는 봉장어 사업이 주 사업이었으나, 2000년 중반 이후 대왕오징어 반가공 원료에 대한 국제 수요가 많아져 이 사업도 병행 중임.
- 동 기업은 12월부터 익년 3월(페루에는 여름임)까지는 봉장어를 어획하여 피레트 가공한 상품을 한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주 사업이었으나 자원 상태의 악화와 라니냐 현상에 의해 최근에는 어획량이 급감했음. 뿐만 아니라 자원 감소 현상 중에서 가장 나쁜 상태인 사이즈 감소가 과거 80cm에서 현재 55cm로 약 30%까지 발생하고 있음.
- 동 기업은 객주로부터 대왕오징어 원료를 구입하는 한편, 자사 어선(봉장어 연안 통발)을 이용하여 원료를 직접 생산하고 있음. 페루의 어선어업허가제도는 잡을 수 있는 어종에 대해 허가를 주고 있는데 동 기업은 봉장어와 대왕오징어의 어업허가는 받아 놓은 상태임.
- 대왕오징어 반가공품은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별도의 거래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현지에 조미오징어 가공공장이 있으며, 봉장어도 이 루트를 통하여 수출하고 있음.
- 또한 대왕오징어와 봉장어(피레트)를 스페인으로도 수출하는데, 스페인 수출을 위해서는 EU등록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HACCP 인증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페루 정부도 수산가공품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ITP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대왕오징어 원료는 가격 상승 반영에도 불구하고 거래처 수요가 많아 물량이 부족한 상태임. 따라서 대왕오징어의 사업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현재의 가공공장 바로 옆에 제2공장을 설립하여 운영을 준비 중에 있음.

(4) FREEKO

- FREEKO는 한국에 본사를 둔 페루 현지 기업으로 1997년에 현지 파이타의 자유무역지대에 입지하여, 게맛살을 세계 각 지역으로 수출하였음.
- 200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게맛살 기술이 세계를 제패하는 수준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 기업은 페루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여 유럽, 미국, 남미 등에 게맛살을 수출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 리투아니아 등의 유럽동구권에서

낮은 가격의 게맛살을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한국 및 동 기업을 포함한 기존 가공기업들이 도태되기 시작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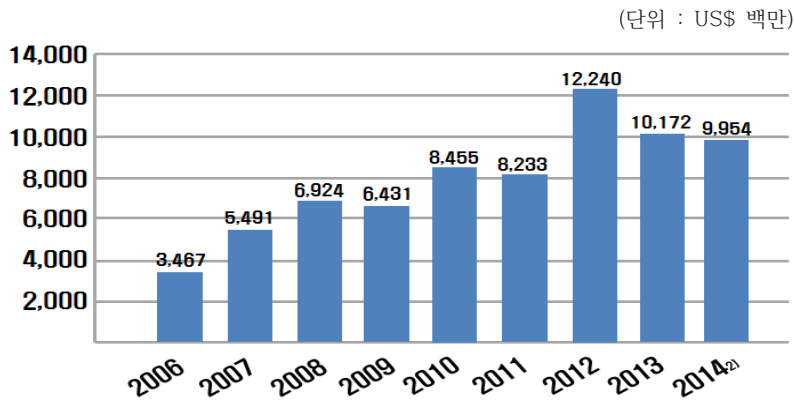
- 이에 동 기업은 2002년에 연육 설비를 도입하여 페루의 풍부한 자원을 원료로 연육 기술 향상과 생산에 박차를 가했지만, 페루의 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음. 게맛살과 연육의 사업화 부진에 따라서 동 기업의 매출은 2000년대 중반 월매출이 최대 250만 달러까지 육박했으나 현재는 50% 이상 감소한 상태임.
- 2000년대 중반 이후 사업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대왕오징어 가공업에 참여하게 되었음. 대왕오징어 가공 사업에는 게맛살 사업에서 획득한 EU인증 및 HACCP 인증이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됨. 주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기존의 게맛살 수출 루트를 이용하여 EU 시장에도 진출예정인데, 페루는 EU 무관세 국가 중의 하나임.

(5) PESCO MARINA

- 페루 현지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대왕오징어 가공업은 가공만을 주력으로 하지만, PESCO MARINA는 대왕오징어의 어획(원료 조달)에서 가공까지 수직적 통합을 이루고 있음.
- 동 기업은 페루의 북단에 위치한 탈나라에 입지하고 있는데 파이타의 수출항이 멀어 물류비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탈나라에 입지한 가장 큰 이유는 대왕오징어 원료를 산지에서 바로 조달하기 쉽기 때문임.
- 대왕오징어 반가공 원료와 봉장어 피레트 상품을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근에서 정책적으로 양식 생산되고 있는 가리비도 적은 양이지만 수출하고 있음.
- 대왕오징어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에 수출하고 있는데, 한국이 수출액의 50%, 중국이 30%, 대만과 일본이 각각 10%를 차지하고 있음. 봉장어 피레트는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음. 이 기업은 주로 대왕오징어와 봉장어 피레트를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고정적인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데, 향후 품목 다양화를 통해 남미 시장(특히, 브라질 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최근 대왕오징어의 자원 변동을 감안해서 연간 가공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왕오징어 성수기 이외의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왕오징어, 봉장어 외에 품목 다양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상품 조미의 가공방법은 페루 현지, 브라질 등에 맞추어서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고정적인 시장에서 탈피할 계획임.

제2절 외국 투자동향

1. 외국인 투자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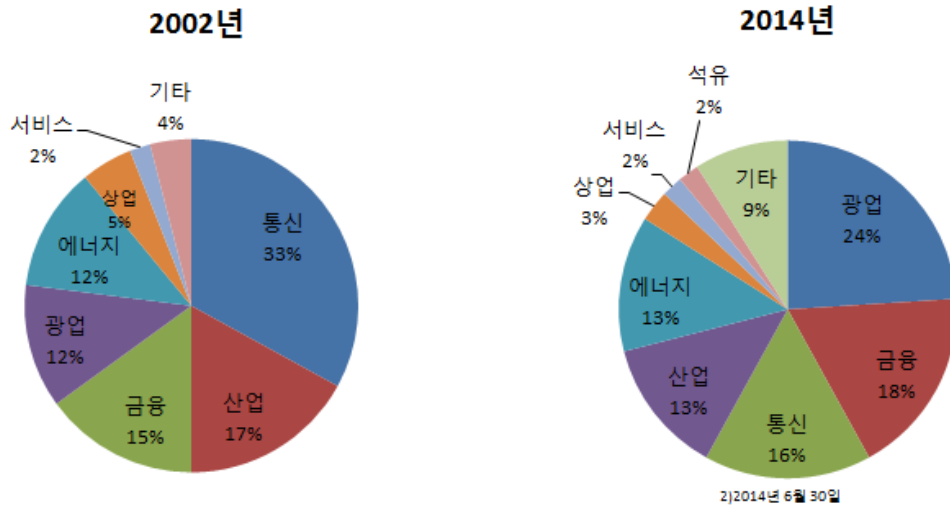


주1: 2014년(2)는 해당년도 추정치
 자료: 페루투자청(ProInversion)

[그림 3-1] 2006-2014년 외국인 직접 투자 추이

- 페루 외국인 투자동향에는 국가경제의 호·불황 기조가 그대로 반영됨. 유럽과 미국 등 선진경제권의 금융위기 확산과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페루 경제가 큰 물가변동 없이 성장하고 있기에 외국인 투자 또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잠시 감소되었으나 2010년 경제 호조와 함께 다시 상승세를 회복하여 2013년 외국인 직접 투자규모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다섯 번째임.
- 2013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101억 7,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012년의 122억 4,000만 달러보다 약 20억 6,800만 달러 감소하였지만 페루 통계청 투자자 서비스 부장인 Mr. Carlos Herrera에 의하면, 작년의 페루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은 27.8%이며 이는 중남미 전체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평가했음.
- 이러한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최근 3대 신용평가사가 페루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였으며 현 정부가 관세 등 무역 여건을 개선하고 친 시장주의 정책을 내세우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안정적 경제성장 정책을 지속해 나가고 있기에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유럽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대체투자처로서 페루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임.

(단위: %)



주1: 2014년 12월 25일 기준정보

주2: 2)2014년 6월30일 수치정보

자료: 페루투자청(ProInVersion)

[그림 3-2] 2002-2014년(6월) 업종별 누적 외국인 직접 투자변화

- 2002년과 2014년의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 변화를 비교해보면, 주요 4개 투자 분야의 비율이 변화했음. 2012년에 통신, 산업, 금융, 광업 순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집중 되었지만, 2014년에는 광업, 금융, 통신, 산업 순으로 바뀌었음. 상대적으로 광업과 금융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통신과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였음. 또한 전체 투자의 1%에 해당하는 석유 분야가 2014년에는 2%로 증가하였음.

2. 주요 외국 투자 기업 소개

〈표 3-4〉 페루에 투자한 국가별 주요 기업(2010-2014년) 현황

투자 업체명	국가	분야
TELEFONICA LATINOAMERICA HOLDING, S.L.	스페인	통신
VOTORANTIM METAIS LTDA.	브라질	광업
CYPRUS CLIMAX METALS COMPANY	미국	광업
PERU COPPER SYNDICATE LTD.	영국	광업
INTERATIONAL POWER S.A. (ANTES SUEZTRACTEBEL S.A.)	벨기에	에너지
ANGLO QUELLAVECO SARL	룩셈부르크	광업
INTERATIONAL POWER S.A. (ANTES	스페인	에너지

투자 업체명	국가	분야
SUEZTRACTEBEL S.A.)		
INVERSIONES NITTRA S.A.	칠레	금융
SANSTATO HOLDING A.G	스위스	산업
ODEBRECHT PARTIPACOES E INVESTIMENTOS S.A.	브라질	에너지
		건설
REXEL DEVELOPPEMENT AG	프랑스	상업
PERU LNG COMPANY LLC	미국	석유
NEXTEL INTERNATIONAL (PERU) LLC.	영국	통신
EMPRESA DE ENERGIA DE BOGOTA S.A.E.S.P	콜롬비아	에너지
		석유
MVM RESOURCES INTERNATIONAL B.V.	네덜란드	광업
ANGLO AMERICAN PLC	영국	광업
NII MERCOSUR TELECOM, S.L.	스페인	통신
PERU LNG COMPANY LLC	미국	석유
INTERCONEXION ELECTRICA S.A.E.S.P.	콜롬비아	에너지
CST MINING GROUP LIMITED	영국	광업
BEAR CREEK MINING CORPORATION	캐나다	광업
PAN PACIFIC COPPER CO., LTD.	일본	광업
CAPRICORN FOREST FUND K/S	디나마르카	금융
ZIBO HONGDA MINING CO. LTD.	중국	광업
INVERSIONES ALTAIR S.A.	칠레	금융
CORPORACION MARESA HOLDING S.A.	에콰도르	서비스업
INMOBILIARIA ATTON S.P.A.	칠레	관광업
EMPERSAS RELSA S.A. (ANTES RENTAEQUIPOS COMERCIAL S.A.)	칠레	서비스업

주 : 2014년 12월 25일 기준정보

자료 : 페루투자청

- 對 페루 외국인투자는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는 스페인과 미국이 주요 투자 국가였으나, 2013년 영국이 對 페루 외국인투자 상대 1위국을 차지했음.
- 이외의 주요 투자국으로는 네덜란드,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이 있음. 페루에 투자하는 선진국 기업 중 많은 기업이 모국 본사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통하여 페루에 투자하고 있음.
- 페루 오얀타 우말라 정부가 발표한 인프라구축 개발 프로젝트 등 원유개발, 가스개발, 전기에너지, 상수도 등이 외국인 투자 유망 분야로 떠오르며, 외국 기업의 프로젝트 참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Chapter

5

페루의 국내기업 진출방안

제5장 페루의 국내기업 진출방안

제1절 페루 전 산업부문 진출전략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한-페루 양국관계는 '63년 수교이후, 지난 반세기동안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발전을 해 왔음.
- 양국 교역은 최근 5년간 매년 30% 이상 성장을 보이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무역규모는 28억불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수출 14억불, 수입 14.3억불), 대한수입은 전년대비 28% 내외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한국기업의 페루 투자는 총 17.8억불에 달함.
- 11년 8월 1일 한-페루 FTA 발효와 함께 양국 교역은 67.3%(2014.6 기준) 증가하였음. 특히, 11년부터 페루 천연가스 수입을 시작으로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11년 대 페루 수출액 44.9%, 수입 88.3% 증가).
 - 한국은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페루에서 동광, 아연광 등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음.
- 양국 교역은 공산품 수출, 원자재 수입이라는 전형적인 산업간 교역구조를 보이고 있기에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더 큰 협력을 보이게 될 전망이다.
 - 특히 양국은 최초로 방산물자 및 비방산물자 거래를 위해 GtoG 계약(정부간 거래)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을 통해 고등훈련기, LPD함, 지능형 순찰차 등을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음. 성공적인 GtoG 계약 이행을 바탕으로 페루정부는 GtoG 거래분야 및 대상을 확대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양국 간의 협력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함.
 - GtoG 거래의 확산에 따라 단순한 제품의 수출에서 기술 및 운영 노하우 전수, 현지 투자증가 등을 통한 양국 간의 전략적 가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하는 국제 원자재 가격에 의해 단기적으로는 페루의 주요 수출품목인 광물(비철금속 등)의 수입가 하락으로 인한 무역수지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페루 경제성장의 둔화를 야기하여 이는 수입수요 감소로 이어져 한국의 대 페루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2. 페루시장 진출전략

가. 중장기 진출전략

- 페루는 2013년까지 총 20개국과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특히 2013년 3월 체결된 페·EU FTA의 발효로 한국의 對페루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중장비 및 부품, 화학제품 등과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함.
- 페루가 FTA를 다수 체결함으로써 FTA 체결국가가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환경에서 페루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의미가 있음.
- 효과적인 현지진출을 위해 아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1) 비가격 경쟁력 강화

- 수출증대 요인이었던 가격효과의 한계가 감지되고 있음. 1인당 국민소득이 6,600달러를 넘으면서(2013년 기준) 저가 제품보다는 유명 상표, 우수 품질 제품을 찾는 경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임.
 - 2007년 페루정부의 순찰차 구입에서 중국차(Geely, Huanghai)가 저가로 낙찰되었다가 품질불량으로 계약 취소된 사례, 2009년 페루 군이 중국산 전차 50대 구입을 추진하던 중 품질 불신으로 취소한 사례는 수출 증대 요인으로서 가격효과가 가지는 한계성을 보여 줌.
- 타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10%의 부유층이 60%의 국부를 차지하는 양극화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10년 동안의 고도 경제성장으로 중간 소득층이 성장하는 등 한국 상품진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기에 對페루 품질향상, 기술혁신, 마케팅활동 선진화로 비가격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가가는 것이 한-페루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요함.

2) 상품산업 다변화 지속 추진

- FTA와 더불어 페루의 산업구조에 맞는 제품 공급으로 수출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페루의 주종 산업인 광업, 농업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류 수요 증가 추세
- 민간 산업제품에서 방산장비로 수출다변화 추진이 필요함. 대규모 무기 교체, 대테러 소탕, 인근국과의 역사적 마찰 등을 감안한 방산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추세임.
 - 한·페루 GtoG 사업을 통해 KT-1 고등훈련기, LPD 건조함, 지능형 순찰차 등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음.

3) FTA 홍보 확대

- 리마 등 수도권에 소재한 바이어, 단체, 기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확대해 한·페루 FTA 관련 지식을 전파하는 작업이 필요함.
- 경제성장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내륙지방의 발전이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아레키파(Arequipa), 쿠스코(Cuzco), 트루히요(Trujillo) 등 주요 지방 거점도시에 FTA 및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 홍보도 중요함.

4) 현지투자를 통한 진출 확대

- 현 페루정부는 기술이전을 크게 중시하며,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자국생산을 의무화하는 등, 국내 기술 유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 생산투자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제2절 한-페루 수산 부문 협력사업 추진전략

1. 기본방향

- 한-페루 수산분야 협력사업의 목표는 페루의 수산업 진흥을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의 수산부문 진출 및 투자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본방향성을 주체별로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정부차원에서 국제기구(다자간)를 이용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함. 페루와 연관된 국제기구로는 APFC이 있으며, 남미지역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2005년에 가입한 미주개발은행(IDB)을 이용하여 투자진흥책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둘째, 양자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함. 우리나라는 페루와 FTA를 체결하였고, 2011년에 발효된 상태임. 한-페루 FTA 협정서에는 제20-5조(수산업 및 양식업 협력)가 있어 협정 발효 후 협상이 시작될 수산협력 약정을 통하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하고 최적화된 활용을 증진할 것을 명문화 하였기에 FTA의 수산약정을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들 사업은 주로 ODA사업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함.
- 셋째,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함. 주요 부문은 네트워크구축, 자금지원, 제도 및 협력임.



자료 : 남미지역 양자협력 및 수산투자활성화 방안

[그림 3-3] 한-페루 수산협력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추진전략

가. 다자간 협력

1) FAO를 활용한 수산인력 교육

- 최근 FAO는 세계 지역사무소를 통하여 수산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수산인력을 수원국 현지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수산 기술전문가 양성과정임.
- 우리 정부(해양수산부 또는 KOICA)와 FAO가 매칭펀드 형태로 페루지역에 대해서 수산기술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사업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활용 자원조사 및 관리

- APEC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1989년에 설립되어 현재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포럼임. 이들 회원국 중 남미지역은 칠레, 페루가 포함되어 있기에 페루의 수산분야 협력 사업은 APEC 수산분야 워킹그룹의 사업으로서 추진할 수 있음.
- APEC에서는 지금까지 엘리뇨에 따른 친환경 수산 기술 마련, 수산자원의 관리 방안, 다양한 수산 기술 협력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남미지역에서도 엘리뇨 현상 및 해양환경 오염, 자원남획 등에 따른 수산자원관리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페루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관리부문의 사업은 한국 주도하에 APEC을 통한 페루 정부와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임.

3) 미주개발은행(IDB) 신탁기금 활용

- 2005년 미주개발은행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IDB에 총 3개의 신탁기금인 지식협력기금(KPKF), 빈곤감소기금(KPRF), 중소기업 육성자금(IIC KSDF)에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출연한 지식공유 및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신탁기금 등을 활용해 페루와의 수산분야 기술협력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IDB는 대규모 민간 사회간접자본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부의 보증 없이 또는 부분보증방식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기에 중남미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IDB 차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함.

- IDB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 IDB 사무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사업 분야 발굴을 추진해야함.



자료 : 남미지역 양자협력 및 수산투자활성화 방안

[그림 3-4] 한페루 다자협력사업 추진전략

나.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1) 한중남미 수산포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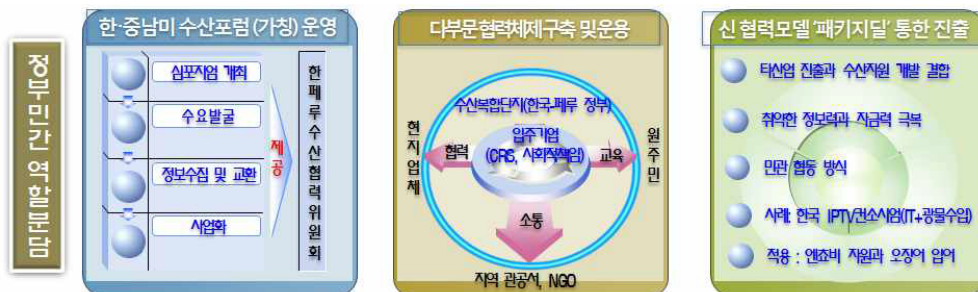
- 정부에서 페루의 제도 및 동향 자료를 제공하고, 수산업 현황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현지 조사를 지원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에서는 현지 전문가와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중남미 수산포럼을 활용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새로운 협력 수요 및 신규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2) 다부문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용

- 페루 진출 수산 기업들은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자금조달, 입찰과정 불투명, 인력 수급, 숙련노동력 확보, 원주민 사회와의 갈등, 치안불안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치안불안에 대해서는 진출 지역을 산업단지공단으로 지정받아 독립된 수산복합타운으로 조성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러한 역할을 정부 측에서 추진하고, 기업에서는 지역사회 및 원주민 사회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수출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하여 고급인력 확보 및 야간 기술훈련 과정을 운용하여 자체적으로 종업원을 숙련노동자 층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됨.

3) 새로운 협력모델 ‘패키지딜’ 을 통한 진출 방안 마련

- 수산부문의 투자에 있어서 최근 새로운 협력모델로 사용되는 ‘패키지딜’을 통한 진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페루정부가 FTA 추진 시 수산부문의 개발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으므로, 수산분야와 타산업을 결합한 투자방식으로 진출한다면 효과가 클 것임.
- 최근 자원개발과 인프라 또는 플랜트 건설을 연계시키는 ‘패키지형’ 진출 방식은 취약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진출 전략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음. 페루에서는 정부간 협정 체결 시 수의계약 입찰이 가능하므로 정부와 민간 협동 방식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한 예로 한국 IPTV 컨소시엄은 IT사업과 광물자원 수입(輸入)을 연계한 패키지 진출 전략을 시도하였음. 2009년 4월 3년간 페루 전역에 유무선 IPTV망을 구축하고 현지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인적자원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페루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였음. 10억 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의 투자비용 전액을 페루 현지 광물(구리, 아연, 몰리브덴 등)로 받기로 합의함. 이를 위해 한국 IPTV 컨소시엄은 페루 광물개발 기업인 SCI그룹 등과 주요 광물 지급 조건에 대해서도 협약을 체결했음. 이러한 방법은 난공불락의 확보가 어려운 엔초비 자원과 대왕오징어 입어의 새로운 활로로 모색될 수 있음.



자료 : 남미지역 양자협력 및 수산투자활성화 방안

[그림 3-5] 한·페루 정부와 민간 역할분담 추진전략

Chapter

6

페루의 수산업 정책현황

제6장 페루의 수산업 정책현황

제1절 개요

- 페루는 어획 활동과 더불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2001년 5월 양식 진흥개발법(법률 제27,460호)을 공포하여 소득세 감면, 각종 세금 환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2003년과 2006년에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어로 금지를 실시했으며, 2005년에는 전갱이, 고등어 및 다랑어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들 어종의 조업어선에 대해 각종 연료비를 면제하였음.
- 페루 수산업에서는 외국 어선의 페루 해역 내 어업을 허용하며, 외국어선은 어획과 항해의 허가를 받은 후 어획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주로 대형 오징어 등을 어획하고 있음.
- 수산물 관련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가 있는데, 해산물 및 어패류는 수입 시 수산물 검사소의 위생 적합 증명서가 필요함.
- 또한 페루정부는 국가 소규모어업 발전 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Pesquero Artesanal)에 따라 수산업의 발전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수산업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표적인 수출상품이었던 엔초비(anchoveta)의 남획 때문임.
 - 수산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엔초비의 과잉포획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페루 수산부문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
 - 2010년 현재 페루의 엔초비는 연간 약 10~17억불에 달하는 생산을 기록하고, 경제활동인구의 2%, 수출의 11~16%를 기록하는 등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2번째로 큰 엔초비 생산국가임.
 - 엔초비는 연간 약 1,000만 톤이 포획되고 있으나, 과잉포획으로 인해 점차 어획량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향후 엔초비의 어획, 어분 공정, 국내 소비 및 수출 등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함.
- 페루 수산 업체의 문제는 어선과 가공공장의 현대화에 있으며, 현재 대다수 어선인

350~500톤급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향후 800톤급 이상의 어선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과제임. 슈퍼프라임 급의 어분의 가격이 톤당 900에서 1800불로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기에 수산 업체는 어선의 현대화에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음.

제2절 주요 수산 관련 기관

- 한·페루 FTA 발효를 계기로 한국은 페루와 다양한 형태로 수산분야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가 페루와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페루의 수산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페루 수산업을 관장하는 기관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페루의 수산분야는 생산부(Ministerio de Produccion)에서 담당하고 있음. 에너지 생산부문을 포함하는 페루의 생산부는 정부부처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정부부처 중 하나임.
 - 생산부 내에서 수산부문은 엔초비 어획량에 기반을 둔 어분회사 등이 관련되어 있기에 생산부 내에서도 수산분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페루 생산부 내에는 수산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수산식품사업, 수산발전기금사업 등을 위해 IMARPE(페루해양연구원), ITP(수산기술연구소), FONDEPES(페루수산개발기금)와 같은 기관들이 설립되어 있음.
 - 우선 페루의 해양연구원(IMARPE)은 한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유사한 조직으로 해양수산 R&D를 담당하고 있으며, 총허용어획량(TAC)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부에 제공하고 있음.
 - 수산기술연구소(ITP)는 우리나라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유사한 조직으로 수산물 검사·검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기관 설립의 주요목적은 페루 최대 생산물인 엔초비의 식용화를 위한 식품개발에 있음.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에 수출하기 위한 식품개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식품개발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페루수산개발기금(FONDEPES)은 어업인 교육, 양식어업, 소규모 낚시어업, 기금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생산부 소속 기관 중에서 가장 어업인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임. 페루수산개발기금은 소규모, 영세 어업자들의 교육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부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음. 현재는 전국에 현지의 특성에 맞는 6개의 양식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치어관리 및 시험양식을 하고 있음.



[그림 3-6] 페루의 수산관련 기관

- 페루의 생산부와 해양연구원(IMARPE), 수산기술연구소(ITP), 수산개발기금(FONDEPES) 등의 소속기관이 각자 독자적인 역할을 갖고 수산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페루 생산부의 수산분야 협력사업 수요는 생산부에 소속된 수산분야 기관들의 사업수요가 반영될 것으로 판단됨.
- 페루와의 주요 협력 사업은 페루 수산개발기금(FONDEPES)의 협력사업 수요가 가장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페루 수산개발기금의 역할과 사업 등을 고려하여 페루와의 장단기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실질적인 협력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제3절 주요 관련 정책 및 제도

- 페루 정부의 수산정책은 생태계(eco-systems) 보호, 청정기술 사용, 생물다양성 보전, 사회정의,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등 다섯 가지 원칙에 기초하고 있음.
- 페루 정부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어로 금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형 어선의 신형 교체와 고품질 어분 생산을 위한 저온건조공법 사용, 첨단공장 설립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 또한 어족 생산 다변화를 위해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아 심해 수산물 연구개발에도 투자하고 있음.
- 페루에서 수산정책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어획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엔초비 조업 어선에 대한 최대 어획 한도를 지정하고 있음.
 - 남태평양 대구에 대해서는 개별조업 쿼터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형 오징어, 전갱이, 고등어, 다랑어 및 관련 어종, 심해 대구 등에 대해서도 조업 규정을 두고 있음.
- 직접 식용 어족에 대한 페루 정부의 정책 목표는 식품안전과 수출 촉진이며, 주요정책으로는 안초비 및 오징어를 사용한 제품의 개발 촉진,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 대양어선(high seas fleet)의 개발 촉진, 여러 도시 내 냉장유통(cold chains) 체계의 설립 촉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가. 수산자원 보호

- 최근 페루 정부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어선 당 최대 어획 한도(Maximum Catch Limits per Vessel : MCLV)' 제도 도입임. 2009년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북부/중부 및 남부 지역에서 조업하는 각 어선은 어획 할당량을 부여받음. 예를 들어 철선(steel vessel)과 목선(wooden vessel)의 경우 어획 경력 및 어선의 수용능력 등에 따라 어획 할당량이 다르게 적용됨.

〈표 3-5〉 페루의 수산자원 보호의 주요 조치

항목	주요 내용
바이오메스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업 개시 및 폐장을 법적으로 규정 - 연간 및 계절별 총 어획 한도 제도 도입 - 5마일 이내에서는 생계형 어선만 조업 가능 - 어획 시 10% 이상의 유치어가 잡히거나 어획 허용 한도에 도달했을 때 조기 폐장 - 어선 당 최대 어획 한도(MCLV) 제정
혼획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어 한도 5%(2007년 현재 3.6%) - 최저 그물 크기 : 1/2인치(12mm)
하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재용량 공식 신고 - 신규 어선의 진입 금지 - 200마일 이내에서 조업 시 허가 필요 - 5마일 이내에서 조업하는 모든 어선에 대해 위성추적장치 부착 - 134개 하역지점에서 24시간 어획 기록 - 규정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벌금 부과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부는 매일 웹사이트에 당일 조업허가 어선과 조업금지 어선에 대해 공지 - 가공공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이나 생계형 어선으로부터 생선을 받을 수 없음 - 가공기계나 환경보호 장비에 이상이 있을 시 가공공장은 생선 반입 금지 - 생선의 훼손을 막기 위해 트럭이나 생계형 어선으로 벌크 수송 금지 - 펌프와 파이프를 통한 생계형 어선의 어획 금지

자료 : 남미지역 양자협력 및 수산투자활성화 방안

- MCLV제도 도입이전에는 50일 이내의 조업기간 동안에 전체 쿼터를 채우기 위해 많은 어선들이 경쟁적으로 조업을 하다 보니 항구와 어분공장이 포화상태를 맞기도 했음.
- MCLV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조업 기간 중 어선들의 조업을 적절히 조정하여 어군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임.
 - 생계형 어업 생산을 장려하고 선원의 안전을 보장하며 어분의 질을 개선하려는

등 다각적인 포석을 갖고 있음.

- MCLV 도입으로 페루 정부는 식용 생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나. 수산가공 장려 : 어분·어유

- 페루 정부는 엔초비 및 어분·어유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첫째, 어유 및 어분 공장에서 배출 및 방출되는 각종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 및 방출에 관한 최대허용한도(Maximum Permissible Limits : MPLs)'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페루 정부는 2009년 청정기술 도입 정책의 일환으로 배출 (effluents)에 관한 최대 허용 한도제를 도입했으며, 방출(emissions)에 관한 제도는 수년 전에 도입해 이미 실시하고 있기에 페루에 있는 모든 어분 공장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둘째, 페루의 대표적인 어항인 피스코(Pisco)와 침보테(Chimbote) 항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를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먼저 2004년에 피스코 항구를 대상으로 'Apropisco'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 제도 도입으로 피스코 항구에 위치한 7개의 어분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배출물은 먼저 1차 처리 과정을 거쳐 펌프로 중앙처리장치로 옮겨지고 여기서 처리된 배출물은 바다로 방출됨. 2007년에는 침보테에서도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음. 침보테에서는 어분, 냉동 및 통조림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뿐만 아니라 광산물 쓰레기도 처리 대상에 포함됨.
 - 셋째, 자발적인 윤리규정이 도입되었음. 저인망 어선의 70%를 차지하는 페루 수산 회사들은 전국수산협회(Sociedad Nacional de Pesqueria : SNP)를 설립하고 엄격한 규정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였음. 또한 공장 및 어선 소유주, 공장 기술자, 선장 및 선원 등을 중심으로 어업행동강령 (Fishing Behaviour Code)을 제정하였음.
 - 넷째, 국가정책 차원에서 어린이 영양실조 개선을 위해 안초비의 소비를 장려해 오고 있음. 페루 정부는 사회프로그램과 관련해 모든 식자재 구입 시 8%를 안초비와 오징어가 차지하도록 하고 있음.
 - 다섯째,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확대를 위해 엔초비 통조림 등을 포함한 식용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MCLV의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지원, 조기 퇴직자를 위한 연금계획 및 훈련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다. 양식산업 육성책

- 페루 정부는 수산부문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양식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양식 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임.
- 페루에서 양식업은 지형별로 크게 해안 양식업, 고원 양식업, 아마존 강 유역 즉 정글 양식업으로 나뉨.
 - 해안가에서 양식되는 주요 어종에는 가리비, 넙치, 새우, 틸라피아 등이 있음. 내륙 및 고원지대에서 양식되는 어종은 송어가 대표적임. 마지막으로 아마존 강 유역의 정글지역에서 양식되는 어종에는 관상어, 파이체(paiche), 기타 아마존 어종 등이 있음.
- 페루 정부는 양식산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기대보다 성과가 더딘 편이며, 특히 육상 양식부문의 투자 유치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가리비와 새우 양식은 해외시장에서 높은 수요와 지리적 이점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새우 양식업은 1998년에 엘니뇨와 폭풍우, 뒤이은 치명적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기도 했음. 가리비 양식은 페루 전 해안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페루 정부는 가리비의 불법 양식을 막기 위해 민간투자자에게 특정 지역을 지정해 주고 있음.
 - 티티카카 호수 등 내륙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양식 어종은 송어임. 페루 정부는 아마존 지역에서 식용 어종의 개발을 독려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자의 관심은 아직까지 미약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페루 정부는 2001년에 기업등록세 면제 및 소득세 삭감 등의 조치를 통해 양식산업 육성정책을 실시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음. 최근 페루 정부의 양식 산업 육성정책은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관료적 절차 해소를 위해 최대 30일 안에 양식업 허가를 내주는 'An Aquaculture One Stop Shop'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음.
- 현재 페루정부는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폰데페스 산하에 모두 6개의 연구소를 두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양식 수산물을 개발하고 있음.



자료 : 남미지역 양자협력 및 수산투자활성화 방안

[그림 3-7] 페루 양식연구소 현황

라. 외국어선에 대한 조업 허가

- 페루 수산법에 따라 외국 어선들이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페루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현재 80척의 에콰도르 다랑어 어선이 페루 EEZ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 중인데 선주들은 수산물에 에콰도르 통조림업자에게 직접 전달될 경우 등록된 다랑어 어선의 순 중량의 톤당 50달러를 지불해야함. 그에 반해 다랑어가 페루에서 가공을 위해 하역될 경우 10달러만 지불하면 됨.
 - 조업은 참치 시즌인 특정 기간에만 허가됨. 현재 페루 해역에서 어획된 모든 다랑어는 페루 국경 밖으로 반출되며, 해양연구원(IMARPE)의 공식 검사관이 어선에 승선하여 다랑어의 어획을 감시함.
- 한국과 중국 어선들은 EEZ에서 대형 오징어를 어획할 수 있는 조업 허가권을 받았으나 페루의 생계형 어선과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페루 정부의 판단에 따라 조업권을 박탈당했지만 한국과 중국 어선은 200해리 밖에서 조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마. 교역 정책

1) 수출입관리 제도

- 페루는 후지모리 정권이 들어선 1990년 7월 이후, 기존의 완제품 수입금지 등의 규제조치를 전면 해제하여 수입자유화 정책을 실행해오고 있음. 페루 상법이 규정하는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든 전통산품 및 비전통산품의 수출입이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별도 제한이 없음. 단, 국가의 안전이나 국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페루는 수산물(해산물 및 어패류)의 수입에 대해서 관세 이외에 수산물 검사소(CERPER)로부터 발행된 위생 적합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음. 동식물이나 축산물은 수입될 때 수출국이 발행한 검역증명서가 필요한 반면에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페루 정부의 관련 검역국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차이가 있음.

〈표 3-6〉 페루의 수입금지 및 제한 품목

항목	주요 내용	비고
수입 금지	5년 이상의 중고 승용차 및 중고 자동차 부품	-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 중고 신발류 등	-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식품류	-
	방사능 폐기물 등 기타 위험 폐기물	-
	염소 화합 살충제 및 그 부산물	-
	영국 등 유럽산 육류	-
	식음료제품	위생검사 필
수입 제한	무선통신장비	교통통신부 사전 허가 필
	전쟁물자가 아닌 민수용 무기 및 탄약, 폭발물	내무부 허가 필
	코카인 추출 및 제조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 제품 및 화학 연료	상공부 사전 허가 필
	해산물 및 어패류	수산물검사소(CERPER)의 위생 적합 증명서 필요
	식물 또는 동물을 원료로 한 완제품 및 반제품	신고 필요
	수의학과 관련된 의약품	신고 필요
	종자, 동식물, 축산물	수출국 발행의 검역증명서 필요

자료 : 한국 수출입은행

2) 관세체제

- 페루의 관세체제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개별관세, 부당염매관세·상계관세, 중남미통합연합(ALADI) 양허세율로 분류됨.

가) 기본세율

- 기본 세율은 일반적으로 0%, 4%, 7%, 12%, 20%의 5단계로 분류되지만, 4%, 12%, 20%의 일부품목의 경우 과징금 5%가 적용되기에 실질 세율체계는 9%, 17%, 25%를 추가한 8단계로 분류됨.

〈표 3-7〉 페루의 관세구조(2008년, 총 6,994개 품목)

관세율(%)	품목 수	비중(%)
25	316	4.5
20	759	10.9
17	48	0.7
12	2,730	39
4	7	0.1
0	3,134	44.8

자료 : 페루 세관

- 2007년 1월, 자본재 등 세율 4%의 2,894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평균 관세율은 10.1%에서 8.3%로 하락하였음. 대상품목은 금속가공제품(335개), 전기기기·엔진·재생기(845개), 화학제품(847개) 등임.

나) 개별관세

- 쌀, 우유, 설탕(지정품목 및 관련품목) 등의 농산품의 경우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가격대에 준하여 추가세율을 부과하거나 감세하고 있으며, 추가세율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WTO 양허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부당염매관세·상계관세

- 부당염매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상품을 국내가격보다 대폭 인하하여 수출할 경우 이를 수입한 국가의 산업이 손해를 입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관세이며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임.

3) 특혜관세

- 페루는 2006년 1월 1일 안데스공동시장(Andean Common Market, ANCOM)에서 역내관세를 철폐한 데 이어 남미공동시장(MERCOSUR), 칠레, 멕시코, 쿠바 등과 경제보완협정을 체결하여 품목별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페루는 2006년 1월, EU의 GSP+(Enhanced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에 가입하여 대EU 농업 수출의 약 85%를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음.

4) 관세평가제도

- 페루의 관세평가는 그동안 종전 수출국에서의 선적 전 검사제도 결과에 따른 수출 가격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나, 2004년 5월 동 제도를 폐지하고 세관 당국의 자체적인 가격평가기준에 의거하여 과세하고 있음. 관세는 최근 페루에 유입된 동일 품목의 수입가격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고가제품 및 가격 파악이 용이한 제품의 경우에는 모델별로 관세부과 기준이 정해져 있음.
- 관세부과액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선임, 보험료뿐 아니라 수입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의 비용인 커미션, 수수료 등을 포함하고 있음.

5) 관세환급제도

- 페루의 가공수출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원자재 수입 시 관세를 지불하고 완제품 수출 시 이를 환급받는 관세환급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는 않음.
- 관세환급제도와 유사한 두 가지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우선 재수출을 전제로 1년 한도 내(동일기간 1회 연장가능) 일시 반입할 경우, 관세부과가 잠정 연기되며, 재수출 시 관세납부 의무가 말소됨. 동 제도는 보세가공을 위한 생산 장비·원료 등의 수입 시 활용하고 있음. 동 법이 부여하는 기한 내, 보세반입물품이 재수출되지 않을 경우 관련 물품을 몰수하며, 보세물품의 사전 신고 없이 제3자에 양도하였을 경우, 관세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함.
- 수출을 전제로 수입하지 않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된 수입물품 구매자가 물품을 생산·수출하였을 경우, 관세 환급이 이루어짐. 단, 현금이 아닌 일종의 유가증권 형태로 환불이 이루어지고, 수출업자는 여타 물품의 수입 시 관세를 동 유가증권으로 지불할 수 있음.

Chapter

7

페루의 수산관련 법률

제7장 페루의 수산관련 법률

제1절 어업 관련 법률

1. 어획 규모 분류

가. 해상에서의 어획 분류(30조)

○ 해상에서의 어획은 다음과 같이 분류함.

1) 영세 또는 소규모

○ 1.1 영세 : 영세 자연인 또는 법인

- 1.1.1 선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1.1.2 용적 32.6m³, 선체 길이 15미터까지의 선박을 사용하지만 주로 수작업으로 일함

○ 1.2 소규모 : 용적 32.6m³까지의, 현대적인 어획장비 및 시스템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며, 영세의 특징이 없는 경우

2) 대규모

○ 대규모 : 용적 32.6m³ 이상의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나. 육지에서의 어획 분류(31조)

○ 육지에서의 어획은 다음과 같이 분류함.

- 1. 소규모 : 소규모 어업 기술을 사용하고 냉장장치 또는 유사 저장용량 10m³까지의 선박

- 2. 대규모 : 대규모 어업 기술을 사용하고 냉장장치 또는 유사 저장용량 10m³ 이상의 선박

2. 어업허가 유효기간

○ 어업허가의 유효기간(33조)

- 33.1 수산법 44조에 의거한 국내 대형 어선의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순간으로부터 본 시행규칙에 지정된 만료기간까지 유효하다.
- 33.2 어업허가의 기간 및 내용의 유효상태를 유지하려면 선박은 조업 조건, 앞서 행한 어업 활동 및 해당 세금 지불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33.3 앞서 행한 어업 활동을 입증하기 위해 선주는 매년 1월 '국립 어획 및 가공국'에 어업허가세 납부(해당하는 경우)를 위한 연간 어획량 신고와 함께 제출 당일 유효한, 해양청이 발행한 선박등록증을 제출한다.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및 내용에 행정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33.4 경제적인 이유로 1년 이상 어업활동을 하지 않은 선박의 선주는 33.3에 언급된 어업활동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되며, 활동 중지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 어획 및 가공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선주가 어업활동 재개를 신청할 때까지 어업허가는 정지된다. 중지 및 재개에는 수산부의 명시적 판결이 필요하다.
- 33.5 외국 국적 어선의 경우 기한은 각각의 허가에 따라 정해지며, 1년을 넘지 않는다.

3. 세금 납부

○ 세금 납부(40조)

- 40.1 저장용량 32.6m³ 이상의 선박 및 본 시행규칙 30조 a) 1.2에 규정된 범위에 해당되는 선박의 선주는 본 시행규칙 4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리고 본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수산생물자원에 대하여는 수산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 40.2 이 세금은 선박별로 납부한다. 한 명의 선주가 여러 선박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납부 잉여액을 다른 선박의 세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재해로 인해 선박 전체가 손실된 경우에는 선주가 본인 소유의 다른 어선에 손실된 어선의 잉여 수수료를 대체하는 것이 허용된다.

○ 납부방법(41조)

- 41.1 어업허가세는 수산부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3차례에 걸쳐 납부하거나, 매월 납부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일시불로 납부하면 5%의 할인 혜택이 부여된다. 양자의 경우 공히 부가가치세를 뺀 위성추적시스템 사용료 납부로 간주한다. 감면(deductible) 금액은 어업허가 수수료 해당 월(月)의 위성시스템 사용료로 하되, 어업허가 수수료와 위성시스템 사용료를 모두 해당 월의 익월(翌月) 첫 10일 안에 납부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 41.2 위성시스템 사용료가 어업허가 수수료보다 많을 경우 잔액이 없어질 때까지 뒤에 이어지는 기간 동안 감면된다. 회계연도 말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 위성시스템 사용료는 이월되지 않는다.

○ 어업허가세 산정(42조)

- 42.1 어업허가세 산정을 위해 해당 기간에 대한 확인서(Declaracion Jurada)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아직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납부액을 산정하기 위해 어선이 어획한, 어업허가에 명시되지 않은 어종을 비롯한 모든 어종의 어획량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였다고 하여 어획 금지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어종의 어획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42.1 확인서의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선주는 어분 및 어유를 가공하는 공장에서 발행한, 전자 중량 측정 시스템에 의거한 중량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수산가공공장 또는 중량측정에 종사하는 회사는 위에 언급된 중량보고서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에 의해 처벌된다.

○ pelágicos와 명태의 어업허가세(45조)

- 다음에 열거하는 어종의 어업허가세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a) 멸치(anchovy), 정어리, 전갱이, 고등어 : 어획 톤당 UIT의 0.075%
- b) 명태 : 하역 톤당 UIT의 0.15%

○ 외국국적어선의 어업허가세 납입 방법(47조)

- 외국국적어선의 어업허가세는 120일(labor day)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3번에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수산부는 특정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어업허가세의 분할 납부, 형태, 시기 등을 행정령으로 정한다.

○ 영세 및 소규모 수산업을 위한 보호 구역(63조)

- 63.1 D.S. No. 017-92-PE 에 의거하여, 양식업과 관계 없이 해안에 근접한 0~5해리 내의 해역을 영세 수산업을 위한 보호 지정 구역으로 한다.
- 63.2 위의 보호구역 내에서는 바다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바다 바닥을 훑는 그물, 공업용 고리 그물, 기계화된 저인망, 예인망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 외국국적 선박의 어업허가(66조)

- 수산법 47, 48조에 의거하여 외국국적의 선박이 한시적 자원, 대거 이동 자원, 기타 지정된 자원을 어획하기 위한 허가에는 조건, 요건, 기간, 할당된 쿼터, 어업허가세 금액 및 납입 방법이 지정된다.

○ 67조 - 현행법 준수 보증

- 67.1 외국 국적 선박들의 현행법 준수를 보증하기 위해 조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급보증(BOND)을 제출하되, 취소불능(irrevocable), 연대보증, 무조건, 자동집행, 유효기간은 어업허가 만료일로부터 30일(calendar day) 미만이어야 하며, 수산부 명의로 은행보험감독원이 인정하는 은행, 금융기관, 보험회사가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 67.2 위에 언급된 지급보증은 어업허가세 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발행해야 한다.

○ 68조 - 위성추적시스템 설치 의무

- 페루 영해에서 조업하는 외국 국적 선박들은 위성추적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대거 이동 어종 어업의 경우에는 수산부가 행정부령으로 면제할 수 있다.

○ 69조 – IMARPE 감시자 동반 의무

- 어업허가를 받은 외국 국적 어선들은 IMARPE가 지정하는 과학기술감시자를 선상에 대동해야 한다. 선주는 위에 언급된 감시자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선상에 머무는 일수에 따라 산정한 보수를 IMARPE가 관리하는 구좌에 입금해야 한다.

○ 70조 – 승무원

- 페루 영해에서 조업하는 외국 국적 어선들은 승무원 총수의 30% 이상 페루인을 고용해야 하며, 현행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절 수산가공업 관련 법률

1. 허가조건

○ 허가 및 사업허가(49조)

- 직·간접 식용 소비, 비(非)식용 산업용으로 수산생물자원을 가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각 사업장의 시설허가, 공업시설용량 확장 및 사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 사업장 승인조건(52조)

- 52.1 본 시행규칙 49조에 언급된 사업장 승인의 기한은 1년이다. 시초 승인기간 동안 프로젝트의 50% 이상 투자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 1회 동일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승인된 기간 안에,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 말에 입증을 하지 못하면 수산 산업시설 승인은 소멸되며, 수산부는 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 52.2 수산사업장 승인 수속은 해당 사업허가와 별도이다. 그러나, 사업허가는 승인허가 또는 연장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연장 불가능) 안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되며, 수산부는 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 사업장과 가공공장의 운영 조건(53조)

- 53.1 사업장과 가공 공장의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a) 수산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b) 원료를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고 손실을 방지하는 적절한 운송 및 수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c) 어분 및 어유 가공을 위한 산업시설 및 가공공장의 경우에는 하선하는 어획물의 중량을 등록할 전자 정밀 중량 측정 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 d) 찌꺼기 및 잔여물을 복원 및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 환경오염을 감소 및 최소화한다,
- e) 안전 및 산업위생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f) 위생 관계당국의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 g) 품질검사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53.2 직접 식용소비 목적의 수산생물자원 가공 사업허가 소지자들이 하선하는 어획물의 중량을 등록할 정밀 중량 기기의 기준은 수산부가 정한다.

참고문헌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관, 웹사이트

KOTRA, 웹사이트

FAO, Fishery and Aquaculture Country Profiles, The Republic of Peru, 2010.

페루 생산부, 2013년 페루 수산·양식업 통계연보, 2013.

KMI, 남미지역 양자협력 및 수산투자활성화 방안, 2011.

부
록

부록 1.

2015년 해외투자 정보조사 현지조사 결과

1 현지조사 개요

□ 추진배경

- 주요 연안국에 대한 수산업 및 투자분야 등 해외수산투자 정보 수집·제공을 위해 해외투자 정보조사 추진
- 국가중요도 및 OFIS 구축현황 검토 등에 따라 페루를 당년 조사대상국으로 선정
- 페루 수산업·투자관련 자료수집, 전문가 동반 현지조사 추진

□ 현지조사 목적

- 페루 생산부 및 수산기술연구소 등 관련기관 면담
 - 수산업(어업, 양식, 가공, 유통 등) 및 투자진출 관련 정보 수집·문의
- 페루 투자진출 지원기관 면담
 - KOTRA 리마 무역관, 한국 대사관 등 방문하여 투자진출 현황 및 관련 정보 수집
- 페루 진출업체 면담
 - 우리나라 기업의 페루 진출현황 파악, 면담을 통한 진출 관련 애로사항 및 유의사항 등 현지화 정보 수집

□ 현지조사 개요

- 기간/장소 : '15.7.19(일)~7.27(월) (7박9일) / 페루 리마, 피우라
- 출장자 : KMI 조정희 실장, 해외수산협력원 강신원
 - * 페루 이호상 명예해양수산관 동행

2

현지조사 일정

일 자	일 정	내 용
7.19(일)	15:00(KE0017)	인천(한국) 출발
	10:40(KE0017)	로스앤젤레스(미국) 도착
7.20(월)	00:15(LA2605)	로스앤젤레스(미국) 출발
	10:55(LA2605)	리마(페루) 도착
	15:15(LA2308)	리마(페루) 출발
	17:00(LA2308)	빠우라(페루) 도착
7.21(화)	09:00	빠우라 교민 수산업체 방문 및 실태조사 [업체 CNC SAC 방문]
	11:00	빠이따 교민 수산업체 방문 및 실태조사(계속) [업체 INHOPE 방문]
	14:00	빠이따 교민 수산업체 방문 및 실태조사(계속) [업체 MIK Carpe SAC 방문]
	16:00	빠이따 교민 수산업체 방문 및 실태조사(계속) [업체 DAEWON SUSAN 방문]
7.22(수)	08:25(LA2303)	빠우라(페루) 출발
	09:55(LA2303)	리마(페루) 도착
	15:00	한국 대사관 방문
7.23(목)	10:30	코트라 리마 무역관 방문
	15:00	페루 생산부 방문
7.24(금)	10:30	어시장 견학 및 한국 채낚기 선박 방선
	13:00	페루 해양수산연구소(IMARPE) 방문 [IMARPE 내부의 한-페루 공동 연구센터 방문]
	16:00	페루 수산기술연구소 방문
7.25(토)	13:20(LA2534)	리마(페루) 출발
	22:10(LA2534)	뉴욕(미국) 도착
7.26(일)	00:50(KE0086)	뉴욕(미국) 출발
7.27(월)	04:10(KE0086)	인천(한국) 도착

3

현지조사 결과(요약)

□ 페루 일반현황

- (장점) 정치가 안정되어 있으며 정권이 교체되어도 시장경제가 유지되는 점이 중남미에서는 매우 큰 강점이며, 지리적으로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
 - 페루의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이 아니며, 임기 5년 후 장관 교체 시 모든 부처에 변동이 있음(2016년 7월 페루 대통령 선거 예정)
 - 현지인 노동자 하루 평균 인건비는 약 16,415원으로 저렴함
- (단점) 철저한 서류처리 등 유럽식 선진국 행정으로 서류진행이 느리며, 공장폐수 처리 등에 정부규제가 심하나 구체적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스페인어를 사용하기에 언어문제가 가장 크며, 엘니뇨 등의 환경적 요인과 열악한 유통시설로 인해 페루의 수산경쟁력이 우려되고 있음

□ 페루 수산업 현황

- (현황) 대왕오징어는 연간 40만 톤 어획하여 톤당 700~1,200솔에 거래되며, 중국 원양어선 공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상태임
- (정책) 페루는 각 수산자원의 이용 상태에 따라 매년 자유경쟁을 통해 국제입찰을 실시하고 있음
 - * 입찰공고는 생산부 홈페이지(www.produce.gob.pe)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페루 수산 관련산업 현황

- (현황) 진출업체들은 대왕오징어 관련하여 진미채, 오징어링, 젓갈을 생산하고 있으며, 패티와 액기스 등을 추가생산 준비 중임
- (진출정보) 한국 업체 진출 시 통조림(캔)의 자동·현대화 생산 시설 관련 업종이 유망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음

4

현지조사 내용

□ 수산 관계자와의 오찬

- 일시/장소 : '15.7.20(월) 12:00~13:00 / 리마공항 구내식당 4D
- 참석자 : 페루 해양수산연구소 Raúl Castillo Rojas 공동이사,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신창웅
소장, KMI 조정희 실장, 이호상 명예해양수산관,
협력원 강신원 행정원 등 6인
- 주요내용
 - (투자현황) 한국으로부터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페루에는 란칠레항공 등 칠레의 투자가 많은 상태임
 - * 페루는 항공, 수도, 전화 등이 민영화되었음
 - (수산업현황) 한국선박들은 6.15일 포클랜드 어기종료 후 보름
간 페루로 이동하여 선박수리 및 공해 조업하고, 크리스마스
쯤에 다시 포클랜드로 이동함
 - * 동 채낚기선에는 한국인 3~7명, 외국인 약 30명이 승선하여 외국인은
한 명당 5,000불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음
 - 현재는 어가가 하락하여 EEZ조업도 경제성이 없는 실정임
 - 대왕오징어는 1년산이며 연간 약 40만 톤이 어획되나 맛이
없어 조미채로 가공되기 때문에 단가가 상승하게 되고, 원어
가격이 저렴하여 최근에는 튀김용으로 이용되기도 함
 - 한국 오징어는 물회 등 고급용으로 이용되나, 페루 대왕오징어는
가공하여 이용되고 있음

- (진출관련) 현재 진출업체에는 정부규제로 인해 환경오염 관련 폐수처리 시설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

□ CNC SAC 면담 및 가공공장 견학

- 일시/장소 : '15.7.21(화) 11:00~13:00 / CNC SAC
- 주요내용
 - (업체현황) CNC SAC의 1공장은 빼우라에 조선소, 얼음공장, 농장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빠이따의 2공장은 생산을 담당하고 있음
 - 본 공장에서 낮에 150톤, 밤에 350톤을 생산하며 총 500톤 정도 생산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음
 - 대왕오징어는 몸통 50%, 귀 30%, 꼬리 20%로 분리되며, 수요자 요청에 따라 자숙 등 가공됨
 - (수산현황) 빠이따에서 안초비가 과거만큼 어획되지 않고 있음 (리마에는 어획 중임)
 - 대왕오징어는 톤당 700~1,200솔(255,339~437,724원)에 거래됨
 - * 1솔 ≒ 0.31달러 ≒ 364.77원
 - 현지인 노동자 평균 인건비는 하루 40~50솔(약 16,415원), 한 달에 1,100~1,200솔(약 419,488원)임
 - (진출장점) 남미 국가 중 페루인은 순하고 열심히 하는 성향으로 한국인이 사업하기 좋음

□ COSTA MIRA S.A.C 면담 및 가공공장 견학

- 일시/장소 : '15.7.21(화) 13:00~14:00 / COSTA MIRA S.A.C
- 주요내용
 - (사업내용) 1992년 붕장어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수지가 맞지 않아 대왕오징어를 가공하고 있음
 - 현재 진미채, 오징어링, 젓갈을 생산하고 있으나 패티와 액기스를 추가생산 준비 중임
 - (페루현황) 과거 대왕오징어는 톤당 180솔이었으나 작년에는 최고 1,850솔, 금년에는 850솔(현재 어가 하락한 상태)로 원어 가격이 상승하였음
 - (수출정보) 태국은 불교신자 95%로 오징어 목살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애로사항) 정부규제로 업체마다 공장폐수를 처리하고 있는 등 페루 정부는 보조사항이 부재하고 유연성이 부족함
 - 페루의 금리는 평균 6% 정도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협력 원의 수산발전기금 운용사항을 안내해드림

□ MIK CARPE SAC 면담

- 일시/장소 : '15.7.21(화) 17:00~18:00 / MIK CARPE SAC
- 면담자 : MIK CARPE SAC 김영모 부장
- 주요내용
 - (업체현황) 대왕오징어를 가공하여 주로 한국과 그 외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음

- 한국인 4명, 현지인(외국인포함) 2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윤 등 경영 상태는 원어 공급에 따라 유동적인 상태임
 - (진출현황) 2005년에는 빠이따에 3~4개 업체가 존재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임
 - (페루현황) 현재 최저임금은 750솔이며 상여금, 휴가, 의료보험이 추가로 제공됨
 - 페루는 치아 및 양파 등 농산물의 투자성이 더 높은 국가임 (미국으로 수출)
 - 페루는 한국과 비교하면 치안문제가 있으며 문화수준이 낮음
 - 본 업체는 도급 중이나 페루인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유연성이 부족한 편임
 - 그러나 멕시코인들과 비교하면 순수성이 남아있고, 부모님 생신을 챙기는 등 효도하며 가족끼리 잘 뭉치는 성향이 있음
 - (시장현황) 오징어 수요는 그대로이거나 최근에는 메르스로 감소되었으나, 중국 원양어선으로 공급은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됨
 - 냉동 공장은 각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 (수산현황) 대왕오징어 외에 페루의 고등어는 썩썩하여 한국인 입맛에 맞지 않고, 페루에 병어도 잡히나 크기가 작음
 - (애로사항) 페루는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없어 평등하나 서류진행이 느리며, 정부에서 공장폐수의 BOD*를 급감하여 버리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도 구체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 호기성 미생물이 일정 기간 동안 수중의 유기물을 산화 분해할 때에 소비하는 산소량

- (정부규제) 1차 하수처리는 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규제로 이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고, 물탱크를 이용해 저수지에 버리고 있음
- 또는 희석된 폐수를 2km 정도의 파이프를 이용하여 먼 바다에 버리는 방법이 있어, 연안 업체들은 파이프 설치 작업 중임

□ INHOPE S.A.C. 면담

- 일시/장소 : '15.7.21(화) 18:00~19:00 / INHOPE S.A.C.
- 면담자 : INHOPE S.A.C. 이종민 사장, 홍성호 부장
- 주요내용
 - (업체소개) 2002년 한국 업체 중 가장 먼저 진출하였음
 - 멕시코에서 대왕오징어 가공기술을 배워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정밀기계는 한국산을 이용하고 있음
 - 선박은 사고 등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대왕오징어를 수매하여 가공하고 있음
 - (수산현황) 대왕오징어는 1월 중순에서 2월 사이 어기가 시작됨
 - 대왕오징어는 중국이 2년 동안 어획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과잉 생산되어 가격이 하락하였음
 - 오징어 수리미는 첨가제를 넣어 생산되며, 이에 대한 수요는 높지 않음
 - 공장 소유주들에게는 어분생산 허가가 용이하나 페루의 원어 물량과 판로가 많지 않으며, 안초비 가공공장 시설비는 대왕 오징어보다 3~4배가 높아 어분은 생산하지 않고 있음

- (애로사항) 페루인들은 좋지만 스페인어를 사용하여 언어문제가 가장 크고, 정부의 규제가 심하고 부패하여 외국기업에 불리한 점이 많음

□ 주페루 대사관 면담

- 일시/장소 : '15.7.22(수) 15:00~16:00 / 주페루 대사관
- 면담자 : 주페루 대사관 장근호 대사, 홍승인 공사참사관
- 주요내용
 - (협력원소개) 해외 수산업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페루 수산업 진출 정보 수집을 위해 현지조사 중이며, 이를 통해 정보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임을 설명함
 - (KMI사업소개) 또한 KMI는 페루 현지의 대학교를 선정하여 MOU를 체결하고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함
 - * KMI는 해외 각지에 해양수산협력연구센터를 운영 중이며, 라스팔마스와 상해 센터에는 직원 상주하고 있음
 - KIOST는 IMARPE와 해양과학기술을 연구하나, KMI는 한-페루 협력방향 등 해양수산정책을 연구할 계획임
 - 이에 KMI는 '15.10.28일에 리마에서 '한-페루 수산협력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예정임
 - * 페루는 '16.11.19~20일에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임
 - 또한 KMI는 내년 상반기에 페루 학생 및 교수 등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일주일 간 교육 및 견학을 진행할 예정임

□ KOTRA 리마 무역관 면담

- 일시/장소 : '15.7.23(목) 10:30~12:00 / KOTRA 리마 무역관
- 면담자 : KOTRA 리마 무역관 박찬길 관장
- 주요내용
 - (협력원소개) 해외 수산업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페루 수산업 진출 정보 수집을 위해 현지조사 중이며 투자관련 정보를 문의코자 함을 설명함
 - (페루현황) 페루가 투자와 ODA를 환영한다고 표방하지만, 받기만 하고 추후 협력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페루의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이 아니며, 임기 5년 후 장관 교체 시 모든 부처에 변동이 있음
 - 페루는 철저한 서류처리 등 유럽식 선진국 행정을 보이며, 이외에는 중남미 관습을 따름
 - 페루의 경제규모는 콜롬비아의 2/3 수준이며, 2010~2020년 동안 경제가 성장하였으나 작년 하반기부터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 페루는 식민 지배를 받은 기간이 한국의 10배 이상이며, 독립한지 30년도 되지 않아 국민성이 수준이 낮은 편임
 - 2016년 7월에 페루 대통령선거 예정으로, 이에 따른 조직변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진출현황) 현재 페루에는 삼성, SK, LG, 포스코 등의 대기업과 광물공사, 석유공사 등이 진출해 있음

- 교민들의 주 업종은 과거 수산, 봉제, 원단이었으나 지금은 다양하며, 현재 현지사정은 어려우나 대체지가 없는 실정임 (아르헨티나는 고지인 관계로 진출이 어려움)
- (수산정책) 정부는 '수산물 현대화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현대화 시장은 소수로 상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부유층만 이용하는 실정임
 - * 리마 인구 천만 명 중 3백만 명이 부유층(페루 전체 인구 3천만 명 중 부유층은 5백만 명)
- (진출장점) 페루는 한국과 사계절이 반대이고 공급이 풍부하여 사업초기 대왕오징어 가공 사업이 잘 되었음
- 정치가 안정되어 있으며 정권이 교체되어도 시장경제가 유지 되는 점이 중남미에서는 매우 큰 강점이며, 지리적으로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
 - *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는 정권교체 시 바로 시장주의가 중단되어 해외 송금 등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
- (진출단점) 엘니뇨 등의 환경적 요인과 열악한 유통시설로 인해 페루의 수산경쟁력이 우려되고 있음
- 한인에 대한 인식이 좋으나 행정절차가 길어 인내심이 필요하며, 모든 절차는 서류로 진행하고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
- (무역관업무) 순찰차, 유조선, 경비정, 물차의 국제입찰 등 구매 정보 파악 및 바이어 탐색·조사 후 한국에 소개하여 수주까지 지원하고, 현지절차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현지 변호사와 연결 해 주고 있음

□ 페루 생산부 면담

- 일시/장소 : '15.7.23(목) 15:00~17:00 / 페루 생산부
- 면담자 : 페루 생산부 Víctor Manuel Loyola Rosario 전문관,
Ana Luisa Velarde Araujo 고문 등 3인
- 주요내용
 - (방문목적) 첫 번째로 페루의 투자·진출정보를 이해하고자 방문하였음을 설명하였고, 생산부 측에서는 홈페이지에 통계나 법률자료를 구비하고 있음을 안내함
 - 두 번째로 KMI에서 페루에 해양수산협력연구센터를 개소할 예정으로, 관련 심포지엄 개최 및 MOU 체결을 위한 사전조사 차원에서 방문하였음을 설명함
 - * KIOST에서는 페루와 해양수산 '기술과학' 협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KMI에서는 해양수산 '정책' 협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 (생산부인사) IMARPE 내부에 KIOST 전문가 2인이 상주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2012·2013년 협력원의 수산ODA 물자지원 사업에 감사를 표함
 - (페루현황) 코이카 사업에서도 '13년부터 한-페루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 (수산현황) 페루는 각 수산자원의 이용 상태에 따라 매년 자유경쟁을 통해 국제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치는 스페인과 일본 등에 낙찰되었음
 - 위성감시 중이며 영해상의 모든 조업선에 VMS를 설치하여 최근 몇 년간 불법어업이 보고되지 않았음

- 페루에 조업 중인 트롤선은 없는 상태이며, 어종별 규칙이 존재하여 대왕오징어에 대한 규칙을 업데이트 중임
- 빠이따에는 수산교육원이 위치하여 영세어민, 양식업자, 수산 기술자를 교육하고 있음

□ 페루 해양수산연구소(IMARPE) 면담

- 일시/장소 : '15.7.24(금) 13:00~16:00 / 페루 해양수산연구소
- 면담자 : 페루 해양수산연구소 German A. Vasquez-solis
Talavera 소장, Raúl Castillo Rojas 공동이사, 페루
생산부 Víctor Manuel Loyola Rosario 전문관,
페데리코비야레알 국립대학교 Feliciano Oncevay
Espinoza 부총장, Carmen Gladys San Román M.
해양과학박사, 까야오 국립대학교 David Vivzno
Pezcutes 학장, Rolando Juan Alva Zavaleta
국제기술협력국장, Antero Gargurevich Oliva
정보·홍보국장 등 13인
- 주요내용
 - (방문목적) 페루 수산업정보를 수집하여 안내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아울러 KMI의 한-페루 해양수산협력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방문하였음을 설명함
 - (한국현황)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페루 방문과, 방송에서의 페루 소개로 인해 페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언급함
 - 한국에는 해양수산 관련 연구소로 KIOST, 국립수산물과학원, KMI 3개소가 존재하며 KIOST는 기술, 국립수산물과학원은 과학, KMI는 정책·경제를 연구하고 있음을 설명함

- (KMI관련) 페루 생산부와 ‘한-페루 해양수산협력 방안’ 심포지엄 관련 협의하였음을 설명하고, MOU체결 대상기관으로 고려중인 2개 대학교가 홍보·발표함
- 페루에 설립될 해양수산협력연구센터는 KMI에서 운영비를 제공하고 장소는 대학교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중남미 협력의 중점이 되기를 희망함
- (대학소개) 페데리코비알레알 국립대학교는 수산, 양식, 식품 연구 활동을 진행 중이며, 대학원 과정은 IMARPE와 연계하여 진행 중임
- 카야오 국립대학교는 전체 40%가 석박사 과정에 있으며 대학원 과정으로 수산과 식품 2가지가 있고, 가공·위생 연구소를 신설하였음
- 카야오의 유일한 대학교이며, 중심지인 리마에 위치하고 있음
- (IMARPE인사) 한-페루 협력관계가 날로 증진하고 있으며, 관련 프로젝트도 발전하고 있음을 설명함
- KIOST원장이 페루 IMARPE를 방문하였고, IMARPE소장도 방한 예정임을 언급함
- 협력관계 증진이 양국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해저 이용 발전 등 페루 대통령도 한국과의 협력관계에 관심이 많음을 설명함

□ 페루 생산기술연구소(ITP) 면담

- 일시/장소 : '15.7.24(금) 17:00~18:00 / 페루 생산기술연구소
- 면담자 : 페루 생산기술연구소 Mercedes Inés Carazo 소장, Daniel Rejas Untiveros 고문 등 6인

○ 주요내용

- (방문목적) 페루 투자정보 수집과 KMI 센터설립을 위해 방문하였음을 설명함
- (기관소개) ITP(생산기술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전력 등 한국과 전략적 동맹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언급함
- 과거 기관명은 '수산기술연구소'였으나 '13년부터 '생산기술연구소'로 바뀌었으며 생산·가공·양식 관련 연구 중임
- 대왕오징어 가공기술도 연구 중이며 냉동, 수리미 등에 관련한 기술을 개발 중임
- 간이나 가리비조개 껍질 등 부산물 개발에 관심이 많음
- (수산정책) 한국과 페루는 현재 정부간 협정이 존재하므로, 이에 따른 구체적 협정 추진 등에서 수산협력 여지가 있음
- (유망업종) 한국 업체 진출 시 통조림(캔)의 자동·현대화 생산 시설 관련 업종이 유망할 것으로 사료됨

부록 2.

수산업 시행규칙 승인

(DECRETO SUPREMO No. 012-2001-PE)

대통령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25977법(수산업)은 수산업과 양식업에 대한 기준 제정, 지속성 있는 발전 도모, 수산자원의 책임감 있는 이용을 위해 제정됨;

수산업의 시행규칙으로서 Decreto Supremo No. 01-94-PE가 제정되었고, 시행 기간 동안 수많은 개정, 보완 및 확대를 거쳤음;

모든 기준 및 개정을 간소화하고, 수산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및 경제적 안정성 보장을 다루는 새로운 시행규칙이 필요하게 되었음. 이 법은 수산자원을 책임감 있게 다루고 이로부터 지속성 있는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560번 법(행정부법) 및 페루 헌법 118조 8항을 적용하여

공포함:

1조: 151개 조항, 11개 권, 4개 임시규정, 3개 보완규정 및 3개 최종규정(본문은 본 시행규칙의 일부임)으로 이루어진, 수산업의 시행규칙을 승인함.

2조: Resolución suprema No. 072-89-PE, Decreto Supremo No. 01-94-P(VII장 제외), Decretos Supremos No.s 008-94-PE, 009-94-PE, 012-95-PE, 004-96-PE, 005-96-PE, 007-97-PE, 008-97-PE, 009-97-PE, 010-97-PE, 005-98-PE, 002-99-PE, 004-99-PE, 007-99-PE, 016-99-PE, 001-2000-PE, 008-2000-PE, 009-2000-PE, 001-2001-PE, 005-2001-PE, Decreto Supremo No. 007-2000-PE 4조를 폐지할 것.

3조 : 본 시행규칙은 수산부가 승인할 것임.

2001년 3월 13일 정부청사에서

대통령 VALENTIN PANIAGUA CORAZAO

수산부장관 LUDWIG MEIER CORNEJO

수 산 법 시 행 규 칙

차 례

I권 총칙

II권 수산규정

III권 수산업

I장 연구 및 교육

II장 어획

III장 어업허가

IV장 가공

IV권 관상용 수산생물자원

V권 영세수산업

VI권 외국국적선박의 어업

VII권 환경보호

I장 권한기관

II장 환경관리

III장 환경검사 및 감사

VIII권 수산업감시체계

I장 총칙

II장 검사

III장 위성추적시스템

IX권 양허(CONCESSION), 승인, 어업허가 및 면허 교부 절차

X권 기관 간 조율

XI권 위반 및 처벌

I장 총칙

II장 위반

III장 처벌

IV장 처벌의 심(審)

용어집

임시규정

보완규정

최종규정

수산법 시행규칙

1권 총칙

1조 - “법”

본 시행규칙에 언급되는 “법”은 모두 25977번법-수산법 및 이의 개정법을 칭한다.

2조 – 수산부의 역할

수산부는 다음 법들의 원칙 및 기준에 의거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성 있는 이용과 자연환경보호, 사회경제발전과의 균형을 달성한다:

- 헌법
- 자연자원의 지속성 있는 이용을 위한 조직법
- 수산법
- 자연환경 및 자연자원법
- 식품 및 음료의 위생 관리 및 감시 시행규칙

3조 – 수산자원 관리

3.1 헌법 66조, 자연자원의 지속성 있는 이용을 위한 조직법 4조 및 20조, 수산자원법 2조, 44조, 45조에 따라, 수산자원은 국가가 관리하며 국가는 자원의 이용에 따르는 이익 분배에 참여한다.

3.2 국가가 수산자원의 책임감 있는 이용과 보호를 위해 투자하는 경비, 연구비, 감시 및 수산업 통제, 계획에 드는 비용 등은 재생자원의 개발에 드는 비용의 일부이며, 따라서 이 비용들은 어업허가세 및 양식양허세로 충당한다.

4조 – 수산부의 권한

4.1 어업과 양식업은 이의 관리를 위한 관점에서 볼 때, 바다의 생물자원과 바닷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4.2 수산부는 하위 조직을 이용하여 본 시행규칙 및 기타 보완규정, 확대규정, 개정법 및 연관법의 이행 감시를 맡되, 법률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의 통제권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산품의 위생 및 품질 관련법의 준수 감시, 수산가공업의 안전 및 위생 감시, 자연환경의 보호 등도 수산부가 맡은 역할이다.

2권 수산규정(Reglamentos de Ordenamiento Pesquero)

5조 - 규정

수산규정은 차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수산자원에 적용되는 원칙, 법칙 및 관리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하는 규칙이다.

6조 - 규정의 내용

위 조항에 언급된 규정에는 규정의 목적, 접근 방법, 선박과 공장의 규모, 어업 시기, 어획허용량, 어획 도구와 방법, 최소 크기 제한, 금지구역, 연구 요청, 통제 및 감시 행위 등을 명시한다.

7조 - 목적 검토

규정에 정해진 목적은 수산부가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공고한다.

8조 - 개발의 도(度)에 따른 자원 분류

수산생물자원의 책임감 있는 이용을 위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수산생물자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a) 미개발자원 : 이용되지 않은 자원
- b) 중간이용자원 : 현재의 이용 상태에서 조금 더 이용해도 좋은 자원
- c) 최대이용자원 : 최대한의 이용 상태에 있는 자원

9조 - 보호해야 할 자원

생물학적 조건이나 대양의 조건이 어느 일정한 자원의 생태계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정오표(fe de errata)** 근거 수정 그자원의존속이위험에처할때, 수산부는 IMARPE의 사전 보고를 근거로 하여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자원뿐만 아니라 그 자원과 서식을 같이 하는 다른 자원의 포획 관련 임시 조치를 취하고, 그 자원의 증가를 관찰하여 멸종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을 확정한다.

10조 - 일정 수산자원의 제한 없는 어획

10.1 일정 수산자원을 제한 없이 어획하기 위하여는 제한이 없음을 알리는 발표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만약 행정적 발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표현으로 간주한다.

10.2 제한이 없음을 알리는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어업허가 신청이 반려될 경우 그 당시 그 자원의 어획 상태를 입증하는 학술적 또는 기술적 보고 및 증거와 같은 근거가 있어야 한다.

11조 – 어업 종사 허가제도

11.1 어업 종사 허가제도가 함은, 본 시행규칙 III권 II장, III장 및 (*) 정오표(fe de errata) 근거 수정 121.1에 지정된 바에 따라, 그리고 허가 시점의 수산생물자원의 어획 정도에 따라 교부하는 증선허가 및 어업허가를 말한다.

11.2 어업 종사 허가제도를 개정하려면 수산부는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a) 개정 대상 일정 자원의 총 저장 용량의 80%를 보유한 회사들 + 동일한자원의 가공 허가를 보유한 총 산업시설의 80%를 보유한 회사들의 서면 개정 요청

b) IMARPE 보고서

c) 그 자원과 어획의 상태를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국제적으로 인증 받은 일단의 수산 전문가의 권고서

11.2 양식허가제도는 관련법에 따른 허가 및 양허이다.

11.3 수산물 가공허가는 본 시행규칙 III권 IV장에 지정된 바에 따라 교부되는 공장허가 및 사업허가를 말한다.

11.4 어업 및 양식허가를 계속 보유하기 위하여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2조 – 최대이용자원

12.1 최대한의 이용 상태에 있는 자원에 대하여 수산부는 그 자원의 어획을 위한 선박 증가나 어업허가를 양도하지 않으며, 기존의 용량을 대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2 저장용량 대체는 수산부가 본 시행규칙 14조에 의거하여 공고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대소규모 선박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 선박의 대체로 이해하며, 이 리스트에 의거한 대체허가가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

12.3 저장용량 대체 요건은 본 시행규칙 30조 a) 1.2에 언급된 대소규모의 선박에만 적용한다.

12.4 중간이용자원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최대이용자원으로의 어업허가 확대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조항 12.1의 저장용량 대체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3조 - 수산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산자원

수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수산 자원 또는 수산업에 대하여는 본 시행규칙의 내용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규정을 적용한다.

14조 - 어업허가를 받은 선박 리스트의 공개 의무

수산부는 매년 1분기 및 3분기에 다음의 법률에 근거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대소규모 선박의 허가별 리스트 및 대체허가를 받은 선박리스트를 공고한다.

근거규정 : R.M. No. 100-2001-PE

R.M. No. 101-2001-PE

15조 - 중간이용자원

일정 수산자원의 일시적(opportunity) 증가 또는 이동으로 인한 증가가 발생할 때 증선을 허가하며, 어획하는 자원의 잠재력을 감안하여 질서 있게 어획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허가한다. 수산부가 다른 어종에 위험을 가져온다고 판단할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 본 시행규칙 19조를 적용한다.

16조 - 미개발 자원

16.1 수산부는 이용되지 않은 수산자원의 조사를 위한 탐사, 실험 차원의 어획을 실시할 수 있고, 어획의 결과물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실시할 수 있으며, 단 1회 동일 기간 연장하되, 사전 검토 및 결과 배포가 있어야 한다. 조사 프로젝트를 시행하려면 IMARPE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6.2 이러한 탐사, 실험 활동에는 어업허가세가 면제된다.

16.3 수산부의 결정에 따라 이런 종류의 활동에 IMARPE와 대학교들이 참가할 수 있다.

16.4 수산부는 미개발 자원과 15조에 언급된 중간이용자원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 시행규칙의 11조에 언급된 것과 다른 종류의 어업 종사 허가제도를 지정할 수 있다.

17조 - 보존, 냉동, 가공 산업에의 영구적 공급 제도

수산부는 보존, 냉동, 가공 산업에 영구히 공급하는 제도를 정하여 수산법 21조 두번째 단락의 조치를 이행한다. 이 제도는 수산자원의 책임감 있는 이용이라는 원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8조 - 재해로 전부 손실된 선박

18.1 재해로 전부 손실된 선박의 경우 재해 발생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선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손해를 본 선주가 본래 허가 받은 것과 동일한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신청해야 한다.

18.2 위에 언급된 기간 경과 후에는 어업허가가 소멸되며, 이 경우 수산부는 이를 통고하지 않아도 된다.

18.3 본 시행규칙 18.1에 언급된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증선헤가가 나오면, 재해를 당한 선박의 어업허가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19조 - 수산부의 일정 자원 또는 활동의 제한 권한

수산부는 어업허가 신청을, 정리, 수산자원의 책임감 있는 이용, 환경보호의 명목 하에 행정령으로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수산자원의 어획 또는 가공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20조 - 수산부의 중간이용자원과 미개발 자원에 대한 어업허가 권한

20.1 어선은 본 시행규칙 14조에 언급된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고 어업허가가 있을 때만 조업할 수 있으나, 수산부가 일시적 증가 또는 이동으로 증가한, 중간이용자원과 미개발 자원의 어획에 대한 허가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2 수산부가 법령으로 정어리, 전갱이, 고등어의 어획을 원래 이 어종의 어업허가를 받은 선박 또는 20.1에 언급된 선박에 허가할 경우, 본 시행규칙의 17조에 규정된 제도만 제외하고 선상 저장 또는 보존 시설에 따른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다.

III권 수산업

I장 연구 및 교육

21조 - 수산업연구

수산업 연구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할 수 있다. 연구를 위해 선박 이용, 수산자원 포획, 공공 구역 이용, 가공공장의 가동이 필요할 경우 수산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 허가는 명의 이전할 수 없다.

22조 - 수산업 연구세

자연인 또는 법인이 연구의 결과로 생긴 수산자원을 상업적인 목적에 이용할 경우에는 어업허가세 또는 양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본 시행규칙 16조에 언급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3조 - 연구의 허가 및 세금 예외

앞의 조항들에 명시된 규정은 학문적-수산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는 수산 관련 지방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4조 - 연구결과의 제출 의무

수산부에서 수산연구 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산부, IMARPE 또는 ITP에 연구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5조 - 외국 선박 또는 기관의 연구

수산부는 행정령으로 일정기간 동안 외국 국적 선박의 선주 또는 외국전문기관이 페루 영해 내에서의 학문적 기술적 연구를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외국 국적 선박의 선주 또는 외국전문기관의 연구에는 IMARPE가 지정하는 사람이 참여할 경우에만 해양청이 항해허가를 한다. 연구를 수행하는 외국 국적 선박의 선주와 외국전문기관은 행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산부와 IMARPE또는 ITP에 연구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26조 - 연구 및 문화 전파의 목적으로 수입, 수출되는 생물

26.1 연구, 레크리에이션, 문화전파 목적의 수산생물자원 수입, 수출은 수산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6.2 수입의 경우 원산국 또는 출발국으로부터의 위생 허가가 있어야 한다.

27조 - 징수되는 세금의 용도

27.1 수산법 1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산부가 양허 및 어업허가 명목으로 징수한 세금의 1%는 학술, 기술 연구 및 교육에 사용해야 한다.

27.2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한 경우에만 이 재원을 수산 분야 지방기관에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 수산업계가 참여한 특별위원회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의 구성, 기능, 권한은 행정령으로 정한다.

근거 법률 : R.M. No. 097-2001-PE

II장 어획

28조 - 어획 또는 채집을 위한 허가 취득의무

수산법 43조의 규정의 보완으로, 자연인과 법인은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선박을 사용하지 않고 수산자원의 어획 또는 채집에 종사하는 영세어민은 예외로 한다.

29조 - 어업허가 예외 대상

생계를 위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스포츠 목적으로 선박 없이 어업 활동을 하는 자연인은 어업허가 취득 대상에서 제외한다.

30조 - 해상에서의 어획 분류

해상에서의 어획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a) 상업적 :

1. 영세 또는 소규모

1.1 영세 : 영세 자연인 또는 법인

1.1.1 선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1.1.2 용적 32.6m³, 선체 길이 15미터까지의 선박을 사용하지만 주로 수작업으로 일함

1.2 소규모 : 용적 32.6m³까지의, 현대적인 어획장비 및 시스템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며, 영세의 특징이 없는 경우

2. 대규모 : 용적 32.6m³ 이상의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b) 비상업적

1. 학술적 연구 : 탐사 어획 또는 실험적 어획

2. 스포츠 : 레크리에이션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함. 개인적인 스포츠 목적의 어업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3. 생계 목적 : 자가소비 또는 물물 교환을 목적으로 함.

31조 - 육지에서의 어획 분류

육지에서의 어획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a) 상업적 :

1. 소규모 : 소규모 어업 기술을 사용하고 냉장장치 또는 유사 저장용량 10m³까지의 선박

2. 대규모 : 대규모 어업 기술을 사용하고 냉장장치 또는 유사 저장용량 10m³ 이상의 선박

b) 비상업적 : 앞의 조항(30조 : 해상)과 동일함.

32조 - 보존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 의무

32.1 해상에서 직접 식용 소비 목적의 어업에 종사하는 대규모 선박의 증선허가 및 어업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선상에서 보존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완전히 덮인 창고가 있어야 하고, 관련법에 따른 위생조건을 충족시키는 선박 이라야 한다.

32.2 저장용량 100톤급 이상이며, 식용 가공 공장에서 사용할 자원을 어획하는 선박은 CSW(냉각해수), RSW(냉장해수) 또는 어획물의 품질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33조 -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33.1 수산법 44조에 의거한 국내 대형 어선의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순간 으로부터 본 시행규칙에 지정된 만료기간까지 유효하다.

33.2 어업허가의 기간 및 내용의 유효상태를 유지하려면 선박은 조업 조건, 앞서 행한 어업 활동 및 해당 세금 지불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33.3 앞서 행한 어업 활동을 입증하기 위해 선주는 매년 1월 ‘국립 어획 및 가공 국’에 어업허가세 납부(해당하는 경우)를 위한 연간 어획량 신고와 함께 제출 당 일 유효한, 해양청이 발행한 선박등록증을 제출한다.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및 내 용에 행정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3.4 경제적인 이유로 1년 이상 어업활동을 하지 않은 선박의 선주는 33.3에 언 급된 어업활동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되며, 활동 중지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 어획 및 가공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선주가 어업활동 재개를 신청할 때까지 어업허가는 정지된다. 중지 및 재개에는 수산부의 명시적 판결이 필요하다.

33.5 외국 국적 어선의 경우 기한은 각각의 허가에 따라 정해지며, 1년을 넘지 않는다.

33.6 본 시행규칙 14조에 지정된 바에 따라 공고되는, 어업허가가 유효한 선박의 리스트는 본 조항에 규정된 요건을 지킨 선주의 선박 리스트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선박의 어업허가는 33.3의 요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정지된다.

33.7 불가항력으로 인해 선박 저장능력에 해당하는 연간 최저 활동을 채우지 못한 선박은 불가항력이 입증되고, 이 사실이 수산부에 신고되었을 경우에 한해 33.6의 정지처분을 받지 않는다.

33.8 지정된 조업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조업활동을 하지 않은 선주는 선박의 어업허가 취소의 처벌을 받으나, 33.4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4조 - 어업허가 명의이전

어업허가는 해당 선박과 분리될 수 없다. 어업허가 유효기간 동안의 국내 어선의 명의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어업허가 역시 발급 당시와 같은 조건으로 명의 이전된다.

35조 - 증선허가 요건의 예외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영세 어선의 구매 및 건조에 증선 허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a) 선박 저장용량 32.6m³까지
- b) 직접 식용 소비 목적으로만 어업할 때
- c) 주로 수작업으로 어업할 때

36조 - 명의 이전 불가능

국내 선박 증선 허가, 국내외 어선 연구 허가, 외국 국적 어선 어업허가 등의 명의는 이전할 수 없다.

37조 - 증선 승인 기한

37.1 증선 승인의 기한은 18개월이며, 단 한 번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공사가 물리적으로 70% 이상 진행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INDECOPI가 인정하는 수산 관련 증명서 발급 자격 회사 또는 IACS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분류회사가 인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처음 기한, 또는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이 경과하도록 선박의 건조 또는 구매가 완료되지 않거나, 외국에서 구입할 경우 수입 및 통관이 끝났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선 허가는 소멸되며, 수산부는 이를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37.2 증선허가 수속은 어업허가와 는 별도이다. 그러나, 어업허가는 해당선박의 증선 승인 기한이 만료되기 전 3개월 전 (연장 불가능) 에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승인이 취소되고, 수산부는 이를 통보 또는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

37.3 36조의 명의 이전 불가 조항에 관계 없이, 선박 건조를 위한 증선 허가의 명의인은 건조가 50% 이상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단 한 번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승인 기한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래의 기한 내에 건조를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된다. 선박 본체(casco)의 명의 이전을 하려면 증선 승인 기한 내에 앞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증선 승인 역시 처음 교부 받았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명의 이전된다.

37.4 대체 명목으로 증선 허가를 받은 새 명의인은 어업허가를 신청할 때, 대체되는 선박의 소유권 증빙 또는 선주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이전 선박의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8조 - 증선 승인, 어업허가, 수산자원 접근 허가의 분리 불가능

38.1 증선 승인, 어업허가, 수산생물자원 접근허가 등은 분리될 수 없으며 2척 이상의 어선에 적용할 수 없다. 증선 승인으로 대체된 선박에 저장용량이 남을 때, 그리고 저장용량 대체로 발생한 어업허가 확대의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된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a) 선상 저장 (RSW 또는 CSW)시스템 설비 과정에서 기존의 허가 받은 저장용량과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대체할 때

b) 유효한 어업허가 또는 증선승인을 가지고 있는 어선의 저장용량을 확장할 때

c) 원래 허가 받지 않은 어종의 어업허가 또는 증선 승인을 확대할 경우, 이 때 유효한 어업허가 또는 증선승인을 가진 하나 이상의 어선으로 대체할 때 잉여 저장용량만 사용할 수 있다.

38.2 본 시행규칙 시행일로부터 인정되는 잉여저장용량의 이용은 해당 잉여용량을 인정하는 행정령의 공고로부터 90일(calendar day)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잉여 저장용량은 소멸되며, 이에 대해 수산부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38.3 누적(accumulation)은 허용되지 않으며, 증선승인을 신청 중인 어선의 조건 또는 구입에만 적용한다.

38.4 증선승인 또는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의 동일한 어종에 대한 저장용량 확장을 신청할 때, 확장 대상 어업허가를 가진 어선의 수를 줄일 경우에 한하여 저장용량만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 예외조항은 어업허가 분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9조 - 어업허가 전시 의무

어업허가는 선박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관계당국이 조사 또는 검사를 위해 요구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III장 어업허가

40조 - 세금 납부

40.1 저장용량 32.6m³ 이상의 선박 및 본 시행규칙 30조 a) 1.2에 규정된 범위에 해당되는 선박의 선주는 본 시행규칙 4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리고 본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수산생물자원에 대하여는 수산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40.2 이 세금은 선박별로 납부한다. 한 명의 선주가 여러 선박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납부 잉여액을 다른 선박의 세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재해로 인해 선박 전체가 손실된 경우에는 선주가 본인 소유의 다른 어선에 손실된

어선의 잉여 수수료를 대체하는 것이 허용된다.

41조 - 납부방법

41.1 어업허가세는 수산부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3차례에 걸쳐 납부하거나, 매월 납부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일시불로 납부하면 5%의 할인 혜택이 부여된다. 양자의 경우 공히 부가가치세를 뺀 위성추적시스템 사용료 납부로 간주한다. 감면(deductible) 금액은 어업허가 수수료 해당 월(月)의 위성시스템 사용료로 하되, 어업허가 수수료와 위성시스템 사용료를 모두 해당 월의 익월(翌月) 첫 10일 안에 납부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41.2 위성시스템 사용료가 어업허가 수수료보다 많을 경우 잔액이 없어질 때까지 뒤에 이어지는 기간 동안 감면된다. 회계연도 말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 위성시스템 사용료는 이월되지 않는다.

42조 - 어업허가세 산정

42.1 어업허가세 산정을 위해 해당 기간에 대한 확인서(Declaracion Jurada)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아직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납부액을 산정하기 위해 어선이 어획한, 어업허가에 명시되지 않은 어종을 비롯한 모든 어종의 어획량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였다고 하여 어획 금지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어종의 어획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42.1 확인서의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선주는 어분 및 어유를 가공하는 공장에서 발행한, 전자 중량 측정 시스템에 의거한 중량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수산가공공장 또는 중량측정에 종사하는 회사는 위에 언급된 중량보고서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에 의해 처벌된다.

43조 - 미납

43.1 어업허가세의 1차 및 2차 납입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납할 경우, 해당 어선의 어업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43.2 매년 제출하는 확인서 제출 기한이 끝나면 ‘어획 수산가공국(局)’은 선주에게 7일(labor day) 내에, 해당 경우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든가 납부할 것을 통

지한다. 기한이 만료되면 ‘어획 수산가공국’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선박의 어업허가를 영구 취소한다.

44조 – 허가 정지 또는 허가 만료 어선

어획 수산가공국은 어업허가 정지를 받거나 허가가 만료된 어선의 리스트를 해양청에 통보하여 출항 허가를 교부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해양청에 정지 해제 사실 역시 통보한다.

45조 – pelágicos와 명태의 어업허가세

다음에 열거하는 어종의 어업허가세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a) 멸치(anchovy), 정어리, 전갱이, 고등어 : 어획 톤당 UIT의 0.075%
- b) 명태 : 하역 톤당 UIT의 0.15%

46조 – 허가세 면제

본 시행규칙 III권 1장의 규정과 별도로, 연구목적의 샘플 채취에 대하여는 어업허가세를 면제한다.

47조 – 외국국적어선의 어업허가세 납입 방법

외국국적어선의 어업허가세는 120일(labor day)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3번에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수산부는 특정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어업허가세의 분할납부, 형태, 시기 등을 행정령으로 정한다.

IV장 가공

48조 – 영세가공 또는 소규모 가공

48.1 영세가공 또는 소규모 가공은 간단한 시설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주로 수작업을 함으로써 자연환경이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공업을 일컫는다.

48.2 물고기의 silage 작업 역시 영세어민 또는 영세가공업자가 본인이 어획한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이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49조 – 허가 및 사업허가

직·간접 식용 소비, 비(非)식용 산업용으로 수산생물자원을 가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각 사업장의 시설허가, 공업시설용량 확장 및 사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50조 – 영세가공사업장의 시설 및 사업

50.1 영세 가공사업장의 시설은 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고 관계당국이 허가한 지역 위치 증명서로 갈음한다. 이와 같은 시설의 사업 허가 취득을 위한 간결화된 요건 및 절차는 수산부가 지정한다.

50.2 영세 가공사업장의 허가기한은 1년이며, 사전에 운영 조건 인증을 받아 동일한 기간을 연속 연장할 수 있다.

51조 – 사업허가 명의 이전

가공공장 사업허가의 유효 기간 동안 사업장의 명의 변경 또는 명의 이전이 발생하면 사업 허가 역시 처음 발부 당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전된다.

52조 – 사업장 승인조건

52.1 본 시행규칙 49조에 언급된 사업장 승인의 기한은 1년이다. 시초 승인기간 동안 프로젝트의 50% 이상 투자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 1회 동일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승인된 기간 안에,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 말에 입증을 하지 못하면 수산 산업시설 승인은 소멸되며, 수산부는 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52.2 수산사업장 승인 수속은 해당 사업허가와 는 별도이다. 그러나, 사업허가는 승인허가 또는 연장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연장 불가능) 안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되며, 수산부는 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53조 – 사업장과 가공공장의 운영 조건

53.1 사업장과 가공 공장의 운영을 위하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a) 수산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b) 원료를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고 손실을 방지하는 적절한 운송 및 수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c) 어분 및 어유 가공을 위한 산업시설 및 가공공장의 경우에는 하선하는 어획물의 중량을 등록할 전자 정밀 중량 측정 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 d) 찌꺼기 및 잔여물을 복원 및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 환경오염을 감소 및 최소화하되, 본 시행규칙의 VII권의 규정과는 별도이다.
- e) 안전 및 산업위생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f) 위생 관계당국의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 g) 품질검사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3.2 직접 식용소비 목적의 수산생물자원 가공 사업허가 소지자들이 하선하는 어획물의 중량을 등록할 정밀 중량 기기의 기준은 수산부가 정한다.

54조 - 가공시설용량과 이의 변경 스펙(specification)

수산법 43조 d)에 언급된 가공공장의 사업허가 행정령에 가공시설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이 용량에 대한 모든 변경에 대해 승인 및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55조 - 금지 및 제한 구역 설정 권한

수산부는 수산물 가공 금지 및 제한 구역(지리적)을 설정하되, 수산생물자원의 가용성(可用性) 및 산업시설의 생산용량; 자연보호; 법정 보호구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IV권 관상용 수산생물자원

56조 - 관상용 어종(種) 및 상업용 수족관

56.1 관상용 및 상업용 수족관용 수산생물자원의 어획은 수산부 또는 수산부가 위임한 지방 수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6.2 관상용 수산자원의 수입은 수산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원산지 위생 증명, 국내 위생허가가 필요하다.

V권 영세 수산업

57조 영세 수산업 장려

정부는 바다 및 강에서의 영세 수산업 - 어획, 가공, 판매, 양식-을 장려한다.

58조 - 영세 수산업 종사자의 분류

수산업 34조의 실시를 위하여 영세 수산업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a) 자연인

1. 영세 어민 : 소형어선 및 어획기술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수산생물자원을 어획하는 사람으로, 어획물은 직접 식용 소비를 우선으로 한다. 특정 바닷말 채집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영세 어민은 해당 어민등록증 또는 잠수부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배를 사용하지 않는 영세 어민 또는 담수 영세 어민은 어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하고 그 지역에 해양청 사무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 수산국의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2. 영세 선주 : 영세 어선을 한 척 이상 소유한 사람

3. 영세 가공업자 : 가공수산물 또는 저장수산물을 생산하는 간단한 시설과 기술을 이용하여 수산생물자원을 가공하는 자연인으로, 적절한 위생과 품질 수준을 유지하며, 자연환경 및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b) 법인 :

영세 어업 회사 : 영세 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류의 회사로, 영세 어민, 선주, 가공업자의 총칭이다.

59조 - 영세어업 또는 가공업의 정의

수산업 36조에 지정된 바에 따라, 영세어업 또는 영세가공업에는 자연인, 가족, 영세 회사가 종사하며, 영세 어선 또는 간단한 시설 및 기술을 이용하되 주로 수작업으로 일한다. 이 작업의 최종 산물은 주로 직접 식용으로 소비된다.

60조 - 회사관리, 기술 이전, 교육

수산부는 사회기관, 노동조합, 조합, 협회, 협동조합, 기타 합법 단체의, 영세 어민 및 영세 가공업자를 위한 회사 관리, 기술 이전, 교육 사업을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민간.공공자금 뿐만 아니라 국제기술경제협력기관의 자금도 이용한다.

61조 - 특별대출

61.1 정부는 영세 어업의 발전을 위해 특별 대출 마련의 이용을 도모한다. 이 대출은 영세 어업 회사 설립; 재료, 기기, 도구, 기술 획득; 생산성 향상 및 영세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 사회복지, 보건,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것이다.

61.2 정부는 관계법에 의거하여 영세 어민들의 사회보장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62조 - FONDEPES의 역할

수산부는 영세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수산업발전기금(FONDEPES : Fondo Nacional de Desarrollo Pesquero)을 매개체로 하여 다음 자산의 관리, 이용 또는 기타 합법적인 방법으로 기본 인프라 건설 및 시설을 진행한다.

- a) 부두, 하선장, 기타 하선시설
- b) 물고기 하역, 세척 및 다듬는 장소
- c) 냉장 또는 얼음 창고, 냉장트럭 및 기타 냉장 운송차
- d) 훈제시설, 건조시설과 같은 일차적 변형 또는 가공 시설 및 기구

63조 - 영세 및 소규모 수산업을 위한 보호 구역

63.1 D.S. No. 017-92-PE 에 의거하여, 양식업과 관계 없이 해안에 근접한 0~5해리 내의 해역을 영세 수산업을 위한 보호 지정 구역으로 한다.

63.2 위의 보호구역 내에서는 바다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바다 바닥을 훑는 그물, 공업용 고리 그물, 기계화된 저인망, 예인망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63.3 수산부는 IMARPE의 사전 자문을 받은 후 지정 규모 이상의 어업활동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63.4 수산부가 지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면서 직접 식용으로 소비되는 어종의 어획에 사용되는 수제 고리 그물은 이 조항 첫번째 단락에 언급된 지역에서 현행 관계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나, Tumbes주 해역에서는 수제 고리 그물 및 새우잡이 어망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64조 - 영세 어선의 운용을 위한 어업허가

영세 어선의 어업허가로 모든 어종을 어획할 수 있지만, 직접 식용으로 소비되어야 하며, (어선의 형태에) 걸맞는 방법,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65조 - 세금 면제

수산법 45조 및 54조에 규정에 따라 영세 어업에 종사하는 자연인과 법인에게는 양허, 승인, 어업허가 및 자격증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되는데, 사전에 선주 또는 회사의 조건을 조사한다.

VI권 외국국적 선박의 어업

66조 - 외국국적 선박의 어업허가

수산법 47, 48조에 의거하여 외국국적의 선박이 한시적 자원, 대거 이동 자원, 기타 지정된 자원을 어획하기 위한 허가에는 조건, 요건, 기간, 할당된 쿼터, 어업허가세 금액 및 납입 방법이 지정된다.

67조 - 현행법 준수 보증

67.1 외국 국적 선박들의 현행법 준수를 보증하기 위해 조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급보증(BOND)을 제출하되, 취소불능(irrevocable), 연대보증, 무조건, 자동집행, 유효기간은 어업허가 만료일로부터 30일(calendar day) 미만이어야 하며, 수산부

명의로 은행보험감독원이 인정하는 은행, 금융기관, 보험회사가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67.2 위에 언급된 지급보증은 어업허가세 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발행해야 한다.

68조 - 위성추적시스템 설치 의무

페루 영해에서 조업하는 외국 국적 선박들은 위성추적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대거 이동 어종 어업의 경우에는 수산부가 행정부령으로 면제할 수 있다.

69조 - IMARPE 감시자 동반 의무

어업허가를 받은 외국 국적 어선들은 IMARPE가 지정하는 과학기술감시자를 선상에 대동해야 한다. 선주는 위에 언급된 감시자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선상에 머무는 일수에 따라 산정한 보수를 IMARPE가 관리하는 구좌에 입금해야 한다.

70조 - 승무원

페루 영해에서 조업하는 외국 국적 어선들은 승무원 총수의 30% 이상 페루인을 고용해야 하며, 현행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71조 - 이적

이적은 페루의 만 또는 부두에서 해야 하며, 수산부와 해양청의 사전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선주 또는 대리인은 이적 날짜 3일(labor day) 전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 기입하는 사항과 징수는 확인서(Declaracion Jurada)의 성격을 띤다.

72조 - 이적 승인 소멸

이적 승인을 받고 나서 이적 개시 예정일로부터 10일(calendar day)내에 이적을 하지 않으면 이를 따로 표현하지 않아도 승인이 자동 소멸된다.

73조 - 이적 신청 반려

이적 신청은 다음의 경우에 반려된다.

- a) 신청자가 이적을 위한 조건 또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때
- b) 신청자가 수산업 또는 본 시행규칙에 따른 처벌을 받아 탈락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74조 - 선상 물품 조사

외국 국적 선박이 조업을 마치고 운송 때문에 페루 영해를 벗어날 때 이적신청서 대신 선상물품조사 신청을 해야 한다.

75조 - 화물 신고 의무

이적의 모든 경우에 수산생물자원 운송 선박의 대리점은 수산부에 화물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VII 권 환경 보호

I장 권한기관

76조 - 권한기관

76.1 어업 및 양식업의 경우 환경 관련 권한기관은 수산부이며, 수산부 산하 기관 및 지방 관할 기관을 통하여 관리한다.

76.2 다음은 수산부의 역할이다.

- a) 수산업 및 양식업에서의 환경보호, 수산자원보호 정책 및 법률을 제정한다. 수산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깨끗한 생산방법과 오염 방지를 우선시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성 있는 취급을 추진한다. 환경관련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b) 수산업 및 양식업의 어획, 가공 과정 및 이와 연관된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 침해를 관할 영역 내에서 조사하고, 본 시행규칙 위반이 발생할 경우 위반자를 가려낸다.

c) 환경 적응 및 취급 프로그램 (PAMA : Programas de Adecuacion y Manejo Ambiental), 환경영향평가(EIA : Estudios de Impacto Ambiental), 환경영향 확인(DIA : Declaración de Impacto Ambiental), 최대허용기준(LMP : Límites Máximos Permisibles),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술기준,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성 있는 이용을 위한 규정 준수 여부 감시 및 관리

d) 본 시행규칙의 준수 감사; 시행규칙의 규정, 확대규정 및 보안규정, 기술규정 의무사항 위반 단속; 수질 및 대기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지속성 있는 이용을 위한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 및 관리한다.

e) 환경 및 수산자원 다양성 보호를 위해, 수산업 및 양식업으로 영향을 받는 생태계 모니터링을 제 3자를 통해 실시하되, 수산업 및 양식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f) 환경 관련 여러 부문의 기관이 개입하는 정책의 입안 및 적용을 위해 환경 관련 기관 간의 조율을 도모한다.

g) 수산업 및 양식업 종사자들이 환경과 관련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른 부문 기관과 조율하여 이중성을 배제한다.

h) 수산자원의 보호 및 지속성 있는 이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i) 질서 유지 및 수산자원의 책임감 있는 이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일정 수산업 관련 활동 허가를 정지 또는 제한한다;

일정 수산자원への 접근을 제한하되, 어획과 가공 방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호, 효율적인 수산업,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76.3 본 조항에 열거되는 수산부의 역할을 분담하는 지방정부 내 수산관련 부서

는 관련 분야 조율 기구를 만들어 수산부의 의무를 이행한다.

77조 - 환경관련 통제 및 감시 조율 기관

환경 통제 및 감시와 관련하여 수산부와 타행정부 및 귀속기관 간의 조율 기관은 다음과 같다:

a) 수산부 환경국

방출 및 노출 최대 허용기준 관련 현행법 준수 감시; 환경 적응 및 취급 프로그램, 환경영향평가, 찌꺼기 방출 기준, 수산자원 이용 관련 기준 및 의무의 제출, 승인, 시행, 감시, 통제

수산부 환경국은 환경관련법 위반 신고 절차를 규정하는 26631번 법 규정 준수; 자연보호구역, 국립관광구역 등과 관련된 기관과의 조율을 담당한다.

b) 수산부 어획 가공국은 수산자원보호, 멸종위기 어종 보호, 다양한 어획 단계에서의 수산업 보호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감시 및 이행한다.

c) 수산부 양식국은 양식업 관련 자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을 감시 및 이행한다.

d) 수산부 추적 통제 경비국은 생산집중제한기준, 최대허용기준, 행정 위반 처벌 및 기타 환경관련 기준의 통제를 담당한다.

e) 상위국(上位局 : Alta Direccion)은 환경관련 수산정책 입안 및 시행; 수산부 이외의 관련 행정부서와의 조율을 담당한다.

II장 환경관리

부(副)I장 총칙

78조 - 수산업 및 양식업자의 의무

수산업 및 양식업자는 가공 과정에서 본인의 시설로부터 방출되는 폐수, 찌꺼기,

소음, 가스; 인간의 건강, 안전에 미치는 해; 생태계 및 자연자원(특히 수산자원)의 양 및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거나 점차적으로 반전시키는 환경 관리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해방지 조치, 깨끗한 기술을 이용한 공정, 재사용, 리사이클, 최종 처리 및 조치를 실시한다. 이용하고 있는 수산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79조 – 환경영향평가에 지정된 완화책 감시

79.1 어획 및 수산 가공에 종사하기 위한 어업허가 또는 사업허가 취득,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확인서가 승인된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명시된 완화책을 실행하는지 여부를 직접 또는 환경감시관을 통해 조사한다.

79.2 양식업의 경우에는 양허 또는 승인 취득 이후로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

80조 – 복원

80.1 수산업 및 양식업에 전에 이용되던 지역 또는 이와 같은 사업으로 손상된 지역은 복원 또는 개선되어야 한다.

80.2 이 작업은 사업을 중지하는 사람이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적응 및 취급프로그램에 명시한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81조 – 환경보호를 위한 어획 기준

환경보호를 위한 기준 및 가이드와 별도로 어획종사자들은 다음의 기준 하에 사업을 해야 한다.

- a) 수산부의 기준에 따라 선상에 보존, 보호 기구 또는 시설을 보유한다.
- b) 어획하고자 하는 어종에 알맞는 방법, 기구, 기계를 사용한다.
- c) 수산부의 기준에 따라 오염을 피하는 하역 장비 및 기계를 사용한다.

d) 안전 및 위생규칙을 준수한다.

e) 지정된 지역에서만 사업한다.

f) 금어(禁漁)기간 및 승인되지 않은 어종의 어획 제한을 준수한다.

82조 - 영세 어업의 환경 기준

영세 어업 종사자들은 생태계를 보호하고 환경 오염, 파괴를 피하는 조치를 취하며 작업해야 한다.

83조 수산업자들이 취해야 할 환경 관련 조치

수산업 시설 또는 가공공장들은 오염 방지, 가공의 원료가 되는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리사이클, 재이용, 찌꺼기 처리 등을 시행해야 한다.

84조 - 환경취급 방안

수산업 및 양식업에 적용되는 본 시행규칙 및 법률과 별도로, 수산업 및 양식업에서의 환경취급 기준을 지정하는 환경연구를 위한 기술가이드를 수산부가 제정한다.

부II장 환경 추적 및 통제

85조 -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목적

수산업 종사자들은 본인의 사업장에서 방사, 배출하는 물질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하천이나 바다, 사업장의 영향권에서 다음의 목적으로 행한다:

a) 오염 방지 및 관리를 위한 조치의 효과 여부 조사

b) 수질 및 오염물질 변화 검사

c) 약속한 방사 및 방출 감소 목표치 및 법적 기준 준수 여부 조사

86조 -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빈도 및 결과

방사 방출 하천 모니터링은 환경적응 취급 계획에 정해진 빈도로 수산부에서 승인한 프로토콜에 따라 시행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조사 및 평가를 위해 환경국에 제출해야 한다.

87조 - 모니터링 비용

환경적응 취급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방사 방출 하천 모니터링, 환경 검사 및 감사비용은 수산업 또는 양식업자가 부담한다.

88조 - 정보의 진실함 및 적절함

환경 컨설턴트, 검사관, 감사관은 본인이 서명하는 서류에 나오는 정보의 진실함 및 적절함에 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주의 완수 책임은 그와 별도이다.

89조 -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및 승인이 필요한 수산업종

양허, 승인, 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승인을 취득해야 하는 수산업종은 다음과 같다:

- a) 가공 및 수산업시설
- b) 특정 기준에 따른 양식업
- c) 소규모 어획 및 영세 가공사업을 위한 정부 또는 민간의 인프라 조성
- d) 수산업시설의 생산능력 증대
- e) 공공수역을 사용하거나 가공공장을 이용한 연구활동
- f) 관상용 수산자원 도입
- g)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에 열거한 사업의 확장 또는 조건 변경

90조 - 환경영향확인서를 제출하는 업종

다음의 업종은 환경영향확인서(환경영향평가 같음)만 제출하면 된다.

- a) 영세가공업
- b)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 확장
- c) 특정 기준에 따른 양식업

부III장 환경적응 취급 계획

91조 환경적응 취급 계획(PAMA)의 시행기간

91.1 수산업 및 양식업 종사자들은 환경적응 취급계획으로 환경규제에 맞출 의무가 있으며, 그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91.2 환경적응 취급계획은, 점차적인 적응을 의무화하는 환경 규제 공포일 현재 수산업 및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및 법인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91.3 환경보고서; 방사, 방출, 수질 모니터링; 환경적응 취급계획의 제출 기한 및 조건은 해당 기술가이드에 명시된다.

91.4 환경적응 취급계획이 오염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명시하고, 환경 기술가이드의 환경보호 목적에 부합할 경우 환경보호국은 91.1에 언급된 적응 기간을 2년 이하로 연장해 줄 수 있다.

부IV장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확인서, 환경적응 및 취급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법

92조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확인서

환경관련 평가(연구)는 이를 위해 발행된 기술가이드에 따라 행한다.

93조 - 사업장 퇴장 또는 폐업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적응 취급계획 중 사업장 퇴장 또는 폐업시의 계획에는 사업

으로 발생하는 고체 액체 기체 찌꺼기 및 단중장기(短中長基)적 부정적인 영향의 제거 또는 최소화 조치에 더해 피해 입은 지역의 복원 또는 개선도 포함시켜야 한다.

94조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적응 취급계획의 의무 면제

다음의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적응 취급계획의 제출이 면제된다.

- 영세업자
- 생계를 위한 양식업자
- 소규모 양식업자
- 생계를 위하여 또는 소규모로 일하는 현지인(원주민)

95조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적응 취급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기관

수산부 환경국의 해당 리스트에 ‘활동 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영 및 민영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적응 취급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96조 - 허가 이전의 경우 적용되는 의무

일정 수산업 또는 양식업을 영위하기 위한 허가가 (타인에게) 이전될 경우, 허가를 이전 받은 사람이 전(前) 명의인이 승인 받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확인서, 환경적응 취급계획에 명시된 완화조치를 현행법에 맞춰 이행해야 한다. 이 의무는 회사의 합병 또는 분열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III장 환경 감사 및 검사

97조 - 검사 권한

수산부 추적 통제 감시국 및 환경국은 감사기관으로서 본 시행규칙의 위반 행위를 조사 및 검토한다.

98조 - 고발 접수

지방정부, 예측기관, 환경관련 권한을 가진 기관들은 수산부 추적 통제 감시국 및

주정부 수산국에 본 시행규칙의 위반 행위 또는 불이행을 고발한다.

99조 – 분쟁 또는 저항시의 지원

추적 감시 통제국과 환경국의 조사 및 검사 행위에 대한 분쟁 또는 저항이 발생할 경우, 해양청 또는 검찰에 공권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VIII권 수산업의 감시체계

I장 총칙

100조 – 통제 및 감시권한

수산부는 추적 감시 통제국, 지방 예측기관,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을 사용하여 수산업의 추적, 통제, 감시 업무를 행하고, 사업자들의 엄격한 의무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정한다.

101조 – 시범 및 통제 프로그램

수산부는 수산자원 취급 및 통제 시범 프로그램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수산부는 감정, 검사, 통제를 대행할 전문 회사를 고용할 수 있다. 일정 어종의 어획 프로그램 시행 전에 등록, 협약과 같은, 프로그램 이행을 보증할 만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102조 – 추적 및 통제 단위

수산부의 관계부서는 현행법상 수산부가 시행할 추적 감시 통제 행위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이중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II장 검사(inspection)

103조 – 검사

본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준의 준수를 위해 수산부는 해당 규칙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04조 – 검사관

104.1 검사관은 적절한 교육을 받은 수산분야 전공 전문가로서 추적 통제 감시국의 평가, 선정, 인증을 정기적으로 거쳐야 한다.

104.2 이적 검사관의 기능, 권한, 의무, 절차는 해당 규칙에서 다룬다.

105조 – 이적 검사

이적 검사는 수산부나 수산 분야 타기관 직원, 용역 회사 직원이 시행할 수 있다.

106조 – 어선장의 의무

검사를 받는 어선의 선장은 어업일지를 제출하고, 검사관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제출, 검사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107조 – 검사 작업의 사찰

검사관의 작업은 추적 통제 감시국 전문가가 사찰한다.

사찰은 불시에 이루어진다.

108조 – 외국 국적 선주의 의무

앞의 조항에 명시된 의무사항에 더하여 외국 국적 선주에게는 다음의 의무가 부과된다.

a) 운송비, 식비, 교통비, 기타 이적 검사 및 사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이 금액은 행정령으로 정한다.

b) 필요한 경우 통역을 제공한다.

c) 검사관과 사찰관의 승선, 하선, 교대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III장 위성추적시스템

부I장 총칙

109조 위성추적시스템의 목적

수산부가 관리하는 위성추적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용된다.

- 수산업 규칙 준수
- 수산자원의 책임감 있는 이용
- 어획활동의 추적, 통제, 감시 보완 작업

110조 위성추적시스템의 적용

다음의 경우 위성추적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a) 수산부의 허가를 받은 대규모 국내외 어선, 어족의 대거 이동으로 인한 면제 발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b) 26920번 법에 의거한 유효한 허가를 보유한 어선

부II장 의무 및 금지 규정

111조 - 의무

위성추적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어선주에게 다음의 의무가 부과된다.

- a) 시스템 장비 설치
- b) 어선의 항구 정박 중, 운항 중, 조업 중, 금어 기간 중에 항상 위의 장비를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다.
- c) 선상에 설치된 장비의 작동 및 통신 상태를 수시로 체크한다.
- d) 행정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형식으로 조업 보고를 한다.

112조 – 선주의 책임

112.1 선주는 다음의 사항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 a) 선박의 항구 정박 중, 운항 중, 조업 중 선상에 설치된 시스템 장비의 고장 또는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상황을 발생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에 관할 지방정부 수산국 또는 추적 통제 감시국에 통보한다.
- b) 선박의 유지 보수를 위해 위성추적장비를 작동시키지 않을 경우, 수산부 추적 통제 감시국에 이유, 기간과 함께 사전에 통보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 수산국 또는 추적 통제 감시국은 선주에게 장비 비작동 허가 통지를 한다.
- c) 앞에 명시된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장비를 재작동시킨다.

112.2 선주는 선장과 선원에게 이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13조 – 금지사항

- a) 장비, 부착기구, 전선에 손을 대거나 이물질을 첨가하여 송수신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b) 설치된 장비를 허가 없이 떼어 놓는 행위
- c) 전원을 손상시키거나 없애는 행위 또는 장비의 정상적인 운용과 송수신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선박의 유지보수를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4조 – 출항 금지

수산업 78조에 규정된 처벌과 별도로 위성추적시스템을 장착하지 않은 어선에게 해양청은 출항허가를 하지 않는다. 수산부는 본 시행규칙 112.1의 a)의 규정을 어긴 선박에게 출항허가를 하지 않도록 해양청에 통보한다.

부III장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데이터의 기밀성

115조 – 정보와 데이터의 기밀성

115.1 시스템에서 획득한 데이터, 보고, 정보는 수산부가 소유권을 보유하며, 기밀사항이다. 선주는 본인의 어선에 관계된 데이터에 시스템상에서 접근할 수 있고 본인의 어선에 관한 정보만 수산부에 요청할 수 있다.

115.2 개별화되지 않은 데이터, 보고서, 정보는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라 수산부의 허가를 받아 자연인과 법인이 이용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116조 – 정보 접수

IMARPE 과학통제센터 및 국방부 해양경비국은 수산부 통제센터로부터 시스템의 데이터, 보고, 정보를 제공받는다.

117조 – 정보의 증거로서의 성질

117.1 시스템에서 나온 데이터, 보고, 정보는 수산법 76조 1,2,3항에 명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절차 또는 사법절차에서 증거로 수산부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117.2 위에 언급된 정보는 선박회사, 수산업 회사 역시 행정, 사법 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다.

IX권 양허, 승인, 어업허가 및 면허 교부 절차

118조 – 수산부의 권한

118.1 수산부는 전국에서 양허, 승인, 어업허가 및 면허를 교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118.2 이 권한을 지방 예속기관에 기관령(resolucion autoritativa)으로 위임할 수 있고, 여기에 권한의 범위도 명시해야 한다.

118.3 수산업의 분야별 양허, 승인, 어업허가, 면허증은 해당 국(局)에서 발행하며 국(局)이 행정 1심, 차관부가 2심 및 최종심이 된다.

119조 – 투자의 법적 안정성

119.1 수산업 및 양식업 투자 유치 업체는 D.L. 662와 757, 보완법 및 규칙에 따라 법적 안정성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투자 유치 업체는 투자협약이 본 시행 규칙 11조 11.1, 11.2, 11.3에 언급된 제도의 안정성의 혜택을 받도록 신청해야 한다.

119.2 수산부는 중간이용자원, 미개발 자원, 시한적 수산자원, 대거 이동 수산자원의 적절한 이용 및 양식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안정성 협약을 민간과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산업 관련 규정만 적용하고 그의 조건 및 경우는 행정령으로 정한다. 이 협약의 기한은 10년 이하로 하며, 사후에 IMARPE나 환경국이 권장하는, 생물적 환경적 성질의 조치를 취하는 행정권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120조 – 개인적인 성질의 법령 공고

증선승인, 대규모 해상어업허가, 과학적 기술적 연구승인, 영세 규모가 아닌 사업장의 사업허가, 영세 규모가 아닌 양식업 양허, 명의 이전, 기타 변경사항의 신청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성질의 법령(norma)은 관보 ‘El Peruano’에 공고하며,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121조 – 어업허가의 내용

121.1 내국어선의 어업허가에는 허가명의인의 성명; 어선의 이름, 종류, 등기 또는 저장용량; 승인된 운용(operation) 방법; 최대 우연성 어업(incidental capture)허가량; 허가된 기구 또는 방법; 허가기간; 세금납입액; 기타 수산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기입된다.

121.2 외국국적 어선의 어업허가에는 위의 내국어선의 허가에 기입되는 사항 외에 선주 및 선박의 국적; 선주의 대표권; 선주의 국내 주소; 어종별 그리고/또는

조업별 쿼터; 페루영해에서의 조업 허가를 위해 수산부와 체결한 계약 형태가 기

입된다.

X권 기관 간(間) 조율

122조 – 수산부의 수장(首長) 역할

수산업, 양식업, 수산자원, 환경보호, 생물의 다양성 보존 등의 범위에서 수산부는 관계 기관 사이에서 수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123조 – 정보시스템 승인

123.1 수산부는 선주, 수산사업장, 기타 이 업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관계자가 관련된 수산업 및 양식업 통계 정보

123.2 수산법, 본 시행규칙, 수산부가 확인 진술(Declaracion Jurada)의 성격을 띤 제공 정보

124조 – 해양경비국(Direccion General de Capitanias y Guardacostas)

수산법 69, 70조에 의거하여 국방부는 해양경비국을 통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a) 유효한 어업허가를 보유하고 본 시행규칙의 14조에 명시된 리스트에 있는 선박에게만 출항허가를 한다.

b) 수산부가 발행한 증선승인을 입증하는 선주에게만 조선 허가를 한다.

125조 – 지방정부의 권한

지방정부는 국내시장에서 직접 식용으로 소비되는 수산자원의 위생규제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XI권 위반 및 처벌

I장 총칙

126조 – 행정조치 위반

126.1 수산법, 시행규칙, 어업 및 양식업 규칙, 기타 모든 관계법에 분류된 모든 행위 또는 누락은 행정조치 위반으로 간주한다.

127조 – 형사 고발죄

고발된 위반 사실의 조사 후 혐의자의 행위가 형사 고발죄라고 판단되면, 해당 행정 처벌과는 별도로, 추적 통제 감시국 또는 지방 수산국은 수산부 법무부분을 담당하는 국민대리청(procuraduria)에 사건을 통보한다.

128조 – 해양청의 권한

수산법 70조에 따라 해양청은 권한 범위 내에서 수산자원의 통제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하며, 여기에는 영세 어업만 허가된 지역 및 현행법으로 제한하는 지역이 포함된다.

129조 – 협약에 명시된 위약처벌 적용

수산업과 양식업 종사를 위해 수산부와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 위반 행위를 할 때, 수산법, 시행규칙 및 기타 수산 관련 규제를 위한 법에 따른 처벌과 별도로, 협약 또는 계약에 명시된 위약 처벌을 받는다. 이것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이중 처벌로 간주되지 않는다.

130조 – 고발

수산법, 시행규칙, 수산업 및 양식업 관련 규칙, 기타 수산업 관련법에서 위반으로 규정하는 행위 또는 누락에 대해 누구든 추적 통제 감시국, 지방 처벌 위원회, 지방 예속기관에 범법 행위를 증거와 함께 고발할 수 있다.

131조 – 처벌 절차 시작권의 소멸시효

131.1 수산부가 행정처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는 위반 행위를 범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된다.

131.2 처벌 시행을 시작할 수 있는 행정권의 시효는 처벌이 허가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된다.

II장 행정 위반

132조 – 수산부가 중앙국 또는 지방국을 통해 교부한 허가 없이 수산업을 영위하는 것은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간주한다.

133조 – 금지된 물품의 사용 혐의

133.1 폭발물, 오염 물질, 기타 수산업, 본 시행규칙, 기타 관련 규정에서 금지하는 독성 물질을 선박 내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의 불법적 사용으로 간주되어 수산부의 처벌 행위를 받게 되며, 별도로 검찰에 통보한다.

133.2 본 조항 및 133.1에 언급된 선박의 선장단은 해양청으로부터 6개월 동안의 자격 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134조 – 기타 위반

수산법 76조에 분류된 위반 외에 다음의 사항도 위반으로 간주한다.

1. 각 어종별 최소 크기 이하 물고기 및 같이 있는 다른 어종의 허용 비율을 초과할 때
2. 법률이 요구하는 선상 보호 장치 또는 도구를 비치하지 않거나 일부 또는 전부가 작동되지 않을 때
3. 어획물을 승인된 목적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때
4. 최대 허용치 이상의 그물을 사용할 때
5. 그물의 선택성(selectivity)을 감소시키기 위해 진흙 방지, 덮개, 이중 뜨개코,

찌꺼기 방지, 강화, 기타 수단을 사용할 때 (코의 길이가 같더라도 마찬가지로)

6. 어업 선택성을 감소시키는 모든 수단을 이용할 때

7. 증선 허가 없이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하거나 국내 국적 선박으로 조업하기 위하여 대소규모의 어선을 수입할 때

8. 해당 승인 없이 어선의 저장용량을 확장할 때

9. 수작업이 아닌 표류 그물을 이용할 때

10. 영세 어업 보호구역에서 바다 바닥을 훑는 그물, 공업용 고리 그물, 기계화된 저인망, 예인망을 사용할 때

11. 본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위성추적시스템을 장착하지 않거나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업할 때

12. 수산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해 내에서 어선의 지원을 받아 수송선이나 대모(代母) 보트로 수산물을 이적할 때

13. 외국 국적 어선이 수산부의 사전 승인 또는 승인 받은 검사관의 입회 없이 부두에서 어획물을 처리할 때

14. 유효한 어업허가를 소지한 외국 국적 어선이 어획물의 이적을 위해 영해를 벗어날 때

15. 해당 허가를 받지 않고 종자, 알, 유충, 새끼를 채집할 때

16. 찌꺼기 물을 처리할 적절하고 효과적인 장비 없이 어분, 어유 가공이나 찌꺼기, 잉여물 처리 공장을 가동할 때

17. 찌꺼기, 잉여물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갖추고 있어도 이를 생산 과정에 사용하지 않고 식품 가공 공장을 가동할 때

18. 행정령으로 지정하는 기구 및 설비를 갖추지 않고 어분, 어유 가공 공장을 가

동할 때

19. 승인 없이 수산자원 가공 공장을 건설, 시설하든가, 생산능력을 확장할 때

20. 수산업에서 파생된 고품잔여물을 노천에서 건조할 때

21. IMARPE 직원, 검사관, 감독관, 환경국 인증 감사관, 기타 수산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인력이 시행하는 추적, 통제, 검사, 감독, 측정 샘플 채취 업무를 방해할 때

22. 수산부에 제출한 환경 관련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23. 행정령에 의한 승인 또는 양허를 취득하지 않고 양식업; 재배시설 건설; 해수, 하천, 바닥에서의 양식 연구 등의 사업을 할 때

24. 현행법의 규정에 반하고 환경을 침해하는 방법 또는 시스템으로 양식장을 운영할 때

25. 어선용 위성추적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계, 센서, 터미널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지 않을 때

26. 수산부, 지방 수산국, 기타 수산부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이 선상 위성추적시스템을 설치 및 가동성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할 때

27. 다음의 상황을 보고하지 않을 때:

a) 선박의 항구 정박 중, 운항 중, 조업 중 선상에 설치된 시스템 장비의 고장 또는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상황 발생

b) 선박의 유지 보수를 위해 위성추적장비를 꺼 놓을 때

28. 어떤 수단, 행위로 위성추적시스템의 송수신 및 작동을 방해할 때

29. 지정된 형태, 방법, 시기에 보고하지 않을 때

30. 배의 SISESAT의 표시를, 부착되어 있던 장소에서 허가 없이 제거할 때

31. 기타 본 시행규칙에서 명시하는 행위

135조 – 환경관련 위반 행위

본 시행규칙에 언급된 환경관련 위반 행위의 책임은 허가의 명의인과 행위당사자에게 공히 있다.

III장 처벌

136조 – 처벌의 종류

136.1 수산법 78조에 따라 처벌은 벌금, 정지, 압수, 승인, 면허, 허가, 양허의 취소를 독립 또는 병행 실시한다.

136.2 수산 및 양식자원 수산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규정에서 정한 처벌을 하되, 본 시행규칙에 규정된 처벌과는 별도이다.

137조 – 벌금 부과

137.1 벌금액은 납부 당시의 UIT를 기준으로 한다.

137.2 벌금액은 수산자원에 미친 해와 불법 행위로 취득한 이익에 따라 산정한다.

137.3 추적 통제 감시국, 항소위원회, 수산부 지방 처벌위원회가 각자의 권한에 따라 부과하는 벌금의 등급은 행정령으로 정한다.

138조 벌금 납부

138.1 벌금 납부는 수산부 계좌로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 공고일 또는 통지일로부터 15일(LABOR DAY) 내에 해야 한다.

138.2 위의 기한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한이 경과한 시점에 납부 의

무자가 납부 보증을 하지 않으면 수산부는 부채 강제 징수 절차를 밟기 시작한다.

138.3 수산부는 분할 납부와 벌금 할인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마련은 강제 징수 대상자에게도 적용된다.

138.4 벌금 납부 또는 처벌 집행으로 수산법, 시행규칙, 수산규칙 및 기타 법률의 준수 이행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139조 – 정지효과

139.1 위반자는 정지 기간(3일 이상 90일 이하) 동안 수산부 또는 지방 수산국이 교부한 양허, 승인, 면허, 허가로 가지고 있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관련 기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139.2 정지의 경우 선박이나 사업장의 잘 보이는 장소에 처벌의 이유와 정지 기간을 명시한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140조 – 허가 취소

141.1 양허, 승인, 면허, 어업허가의 취소로 수산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

141.2 취소 처분을 받은 자연인, 법인은 수산부에 어떤 허가 신청을 다시 할 때 신청 당시의 현행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전에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로 어떤 법령을 준수할 의무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142조 – 위성추적시스템 연결중지 통고 의무를 완수하지 않았을 때

본 시행규칙 134조 27번 위반자는 7일의 어업허가 정지 처분을 받으며, 재위반 시에는 15일 정지 처분을 받는다.

143조 – 승인 가공량 초과

수산부로부터 승인 받은 가공량을 초과(생산)하는 산업시설 및 수산물 가공공장 명의인은 벌금 및 3일 이하의 정지 처분을 받는다.

144조 - 최대이용자원의 불법 어획

144.1 어업허가 내용에 반하여 최대이용자원을 불법 어획한 사람은 위반의 경중에 따라 해당 벌금 외에 3일 이상 90일 이하의 어업허가 정지 처분을 받는다.

144.2 어업허가에 명시된 것과 다른 방법을 이용하거나 특정 어종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때에도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다.

145조 재위반

처음 위반으로 인한 처벌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반할 경우 두 배의 벌금 및 두 배의 기간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46조 반복

최대이용자원, 법으로 보호 받는 수산자원의 금어를 어기거나, 수산업 또는 양식업 제한 구역에서 조업했을 때는 위반의 경중, 성질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IV장 처벌 기관

147조 권한 기관

147.1 수산업, 본 시행규칙, 기타 관련법의 위반 처벌 규정 적용 심사 권한을 가진 기관은 다음과 같다:

a) 추적 통제 감시국 : 수산업, 양식업의 영위로 발생하는 행정절차 및 현행법에 따른 벌금 분할 납부 담당

b) 지방 처벌 위원회 : 관할 지역에서의 영세 수산업, 대소규모의 하천 수산업 영위로 발생하는 행정 절차를 담당한다. 행정령으로 이 위원회에 다른 종류의 처벌 권한도 위임할 수 있다.

c) 수산부 처벌 항소 위원회 : 본 조항의 a)에 언급된 기관에서 시작된 행정 절차의 2심 역할을 맡는다. (*)정오표에의거수정

147.2 처벌 기관들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변호할 권리를 인정하고, 고발을 심사하여 수산법, 본 시행규칙, 수산규정 및 기타 해당 법률에 정해진 처벌을 적용하고; 재심사 요청에 대해 판정하여 상급 심에 제출한다.

148조 – 지방 처벌 위원회 및 처벌 항소 위원회의 구성

수산부가 지방 처벌 위원회 및 처벌 항소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결정한다.

(*) 정오표에 의거 수정

149 처벌 기준

149.1 수산법 83조에 명시된 처벌은 앞의 조항들에 명시된 처벌 기관이 집행하되, 단지 자원의 지속성이 위협에 처할 경우와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으로 할 경우에 한한다.

- a) 위반의 성질
- b) 위반자의 과실 또는 고의성
- c) 수산자원, 환경에 미친 해 및 불법행위로 획득한 이익
- d) 재위반 여부

149.2 위반자가 행정 절차 중에, 그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 특정 법률의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는 처벌 기관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150조 – 어떤 재심사 또는 항소도 처벌의 집행 정지 효과가 없으나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 집행 정지 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용어 해설

151조 – 용어 정의

수산법, 시행규칙, 기타 관련 규칙 및 조치의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한다.

수산업 :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획득으로 이익을 얻는 시스템 내의 모든 요소의 총칭으로, 모든 생산 과정이 포함된다.

환경 : 모든 생물 및 무생물 및 일정한 물리적인 공간의 특징이 되는 그들 사이의 기능적 관계

환경감사관 : 수산부에 등록되고 환경 관련 검사 및 감사를 수행하도록 지정되어 수산부에 등록된 법인

환경감사 : 환경영향평가, 환경 적응 취급계획, 환경영향확인서에 약속한 행위의 이행 여부를 환경 관련 기관의 의뢰로 검사 및 감사하는 행위

어획량 : 어획 당시 포획된 모든 살아 있는 생물자원의 무게

환경컨설턴트 : 환경영향평가, 환경 적응 취급계획, 환경영향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승인 받아 수산부에 등록된 법인

환경오염 :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오염물질을 이입하여, 물질의 농도 또는 존속으로, 그 물질을 받아 들인 환경이 원래 또는 이입 전과 다른 성질을 띠게 되고 그 사실이 환경이나 건강에 해를 초래하게 하는 행위

환경오염물질 : 환경에 이입되거나 작용하여 생태계나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정도로 질을 낮추는 물질 또는 에너지

수령체(受領體) : 수산업, 양식업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받아들이는 물, 땅, 공기

환경영향확인서 : 소규모 프로젝트 또는 사업의 명의인이 그 사업으로 자연자원과 환경에 해를 미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문서

유출물 : 순수한 또는 수산업, 양식업에서 발생한, 찌꺼기 용해물질이 섞인 물

방사물 : 순수한 또는 수산업, 양식업에서 발생한, 찌꺼기 용해물질이 섞인 가스

어업 : 어느 수산 단위가 일정한 기간 일정한 수산자원에 하는 행위

목적종 :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의 어업 대상이 되는 어종

영세사업장 : 저장(silage)시설을 포함한 수작업을 수행할 장소 또는 기반시설 (infrastructure)

수산사업장 : 하나 이상의 가공설비가 있는 물리적 기반시설

환경의 질(質)의 기준 : 수령체로서의 대기, 물, 대지의 요소, 물질의 농도 또는 등급;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parameter로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괄목할 만한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환경영향평가 (EIA : Estudio de Impacto Ambiental) : 프로젝트 지역에 미칠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의 평가, 묘사, 판정을 말하며, 이의 목적은 주위 환경의 현재 상태, 능력, 생태계를 측정 및 분석하고 프로젝트 시행으로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예상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는 오염방지 조치, 수산업과 환경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보존 조치 등도 포함시킨다.

환경취급가이드 : 수산업과 양식업의 지속성 있는 발전을 위한 기준을 실은, 환경 관련 수산당국이 발행한 명령문서

IMARPE : 페루해양원- Instituto del Mar del Peru

환경검사관 : 환경 검사 및 감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수산부에 등록된 자연인

ITP - 수산기술원 - Instituo Tecnologico Pesquero

최대허용치 : 방사 방출 물질, 요소의 농도 또는 정도;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parameter로서,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건강, 인간 복지, 환경에 해를 미치며, 이의 준수는 법적인 의무이다.

수산 이적 업무 : 외국으로 운송하기 위해 수산자원 또는 수산생산물을 어선에서 수송선으로 옮기는 작업

환경기준 : 수산업, 양식업 관련 예방, 리사이클, 재이용, 오염조절 정책 장려와

환경파괴에 관해 권한 기관이 제정한 법률, 기준선, 행실, 과정 및 도구를 일컬으며, 여기에는 최대허용치도 포함된다.

퇴거계획 : 수산업, 양식업 관련 모든 사업의 폐업으로 발생하는 고체 액체 기체 유출물의 오염을 단중장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영구적인 시행 계획

대비책 : 수산업, 양식업으로 또는 자연재해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및 응급상황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준비 행위

가공공장 : 수산사업장에 설치된 변형 행위

오염방지 :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대하기 위해 수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오염물질 발생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를 일컫는다. 여기에는 장비나 기술의 설치 또는 변경; 공정, 생산, 원료의 변경 또는 재구성; 유지(maintenance), 직원교육, 재고조사의 개선 등을 포함한다.

수산 생산물 : 다음과 같은 보존 또는 변형 공정을 거친 자원: 냉장, 탈수, 냉동, 절임, 담금, 훈제, 포장, 단백질 농축, 어분, 어유, 기타 소비에 적합하고 적절한 기술을 적용하여 제조된, 수산자원을 원료로 한 상품

환경 적응 취급계획 (PAMA : Programa de Adecuacion y Manejo Ambiental) : 자연환경에 방사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한 오염 방지책, 기술 적용, 생산공정, 원료 사용, 운송 교체 등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점진적으로 맞추기 위한 행동, 정책, 투자 계획을 일컬으며, 여기에는 쓰레기 축적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원료, 생산품, 기타 물질의 리사이클 및 재이용이 포함된다.

모니터링 : 환경에 방사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존재 여부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과 방법을 동원한, 체계화되고 영구적인 샘플링을 일컬으며, 수산부가 지정한 프로토콜에 따른다.

모니터링 프로토콜 : 모니터링 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 및 방법

리사이클 : 오염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찌꺼기, 원료, 완제품을 생산과정에 재편입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동원(recruitment) : 전체 인구 중 개발(exploitation) 단계에 진입 또는 합류하는 동일한 계층의 젊은이들의 수

수산자원 : 물에서 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내는, 사람이 이용 가능한 동물 및 생물

찌꺼기 : 수산업에서 직접적인 이용 가치가 없는 모든 물질

재이용 : 어떤 물질이 세 가지(고체, 액체, 기체) 중 어느 상태에서나 물리적, 화학적 구성 변화를 거치지 않고 다시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위험 : 인간의 활동으로 건강, 또는 환경의 경우에는 환경의 역할, 자연자원, 경관 인류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가치에 해를 입을 가능성

위성추적시스템 : 장비(하드웨어), 이용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위성통신 서비스의 총칭. 장비는 위성추적시스템의 일부로서 어선에 설치되는 자산과 센서이며, 위성 신호 전달에 적합한 기술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제어센터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데이터, 보고, 정보의 수신 및 처리가 이루어진다.

최소크기 : 권한을 가진 기관이 각 어종의 일정 길이 또는 크기 이하는 어획, 가공, 운송, 판매를 금지한다. 각 어종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제정한다.

금어 : 권한을 가진 기관이 일정 지역의 일정 수산자원의 어획, 가공, 운송,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적 행위

임시규정

1. 본 시행규칙의 발효일로부터 90일(calendar day)간의 기간을 허용하여 자연인 또는 법인들이 수산부 행정수속을 하도록 마련할 것.

2. 양식업 장려법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는 한 수산법 시행규칙 VII권 (D.S. 01-94-PE), 확대, 개정, 보완조치가 유효함.

3. 임시조치법 No. 014-2001에 의거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최대이용자원 저장용량 대체를 위한 증선 허가를 받으려면 증선 허가를 받는 어선 저장 용량의

두 배 용량을 가진 한 척 이상의 어선을 출자하는 것이 필요함.

위 단락의 요구사항은 전갱이, 고등어 어업허가만 받은 어선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본 시행규칙 18, 38조 규정의 경우에는 본 시행규칙 발효일 현재 수속 중에 있는 어선들도 포함되지 않는다.

4. 본 시행규칙 12조에 의거하여, 수산부는 수산법 24조의 엄격한 준수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90일 안에 수산 관련 행정기관의 자치적 결정으로 거부된 허가 신청을 검사한다.

보완규정

1. 행정부령(Resolucion Ministerial) No. 593-98-PE 시행 이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영세 어선들은 직접 식용 소비를 위한, 허가 받은 어획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모든 어종의 어업허가로 자동 확대된다.

2. 환경국 환경 검사 감사관 등록 및 환경 컨설턴트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자연인 및 법인은 수산부가 정한 요건 및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격 있는 자라야 한다.

3. 수산 부문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적응 취급계획을 작성하도록 허가된 회사들의 등록을 환경 컨설턴트 등록이라 명명한다. 수산부는 일반법으로 새로운 등록요건을 지정할 수 있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의 등록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다.

최종규정

1. 수산부는 수산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할 것이다.

2. 본 시행규칙에 명시된 처벌 규정은 유일한 현행 규정이며, 따라서 이와 다른 처벌을 규정하는 다른 모든 규정은 폐지된다.

3. 수산부는 외국에서 수입한 중고어선이 최대이용자원 또는 현 시행규칙 19조에 명시된 한정된 수산자원의 어획에 사용될 경우 증선허가를 교부하지 않는다.

원양산업 종합정보 페루편

발 행 일 : 2015년 12월

발행기관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원

자문위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원양연구실 조정희 실장